

가 동



1980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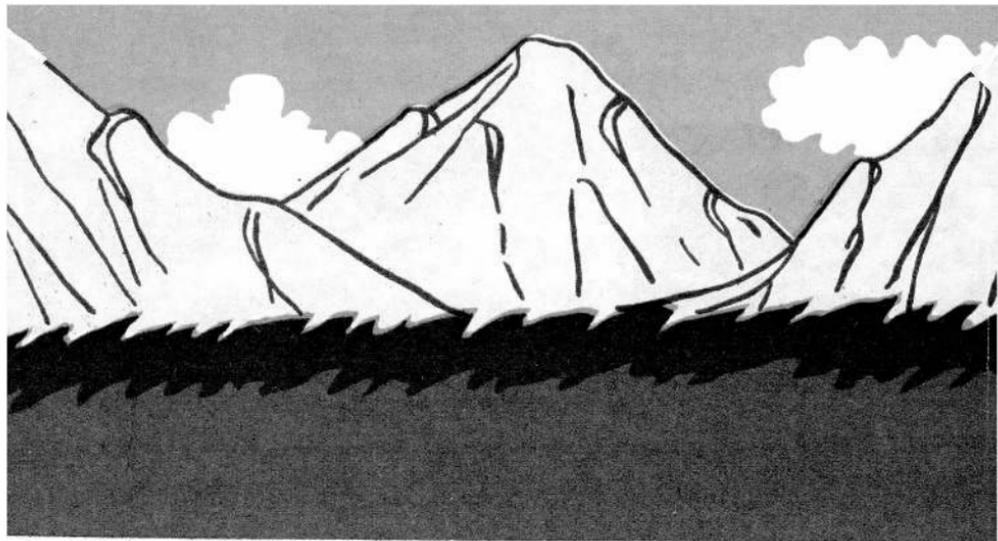
靑瓦台 動靜



현충일을 맞아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계시는 최규하 대통령 각하 < 6. 6. >



제 9 회 전국 소년 체전 개회식에서 입장하는 선수단에 답례하고 계시는 최 규하 대통령 각하 <춘천에서 6. 10.>



공군 제170호

卷頭言

美国의 对外政策 性向과 韩国安保

特輯：国家發展과 国民

北傀의 對話戰略과 統一戰線戰略

安保 最優先의 国家發展

經濟難局 克服을 위한 国民的 知慧

自然保護의 必要性和 그 指標

北傀의 民族史 捏造

非常時局 克服과 總力安保

南北總理會談과 우리의 姿勢

보이 스카웃 航空隊 發隊의 意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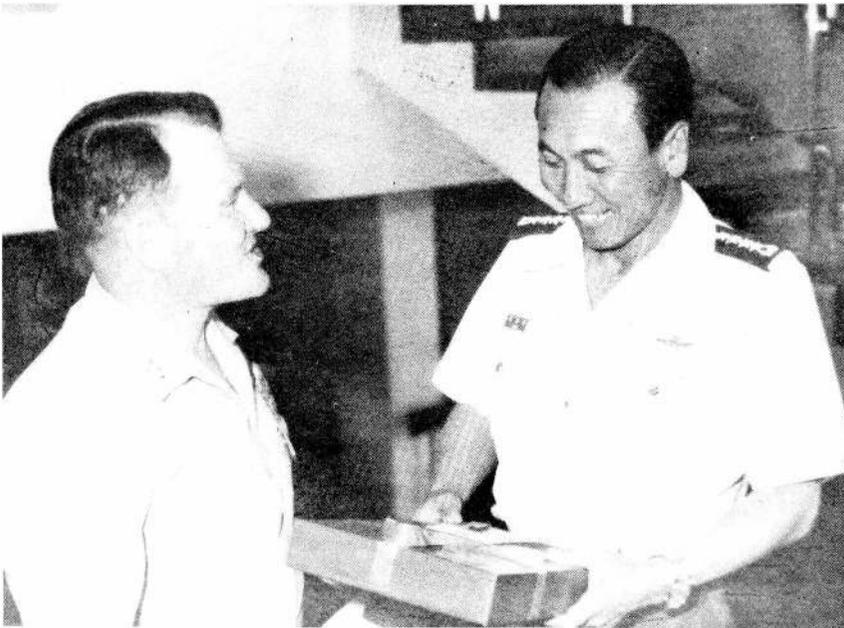
미 제 5 공군사령관 윌리엄 H. 긴, 주니어 중장이 방한 인사차 공군본부를 예방 < 5. 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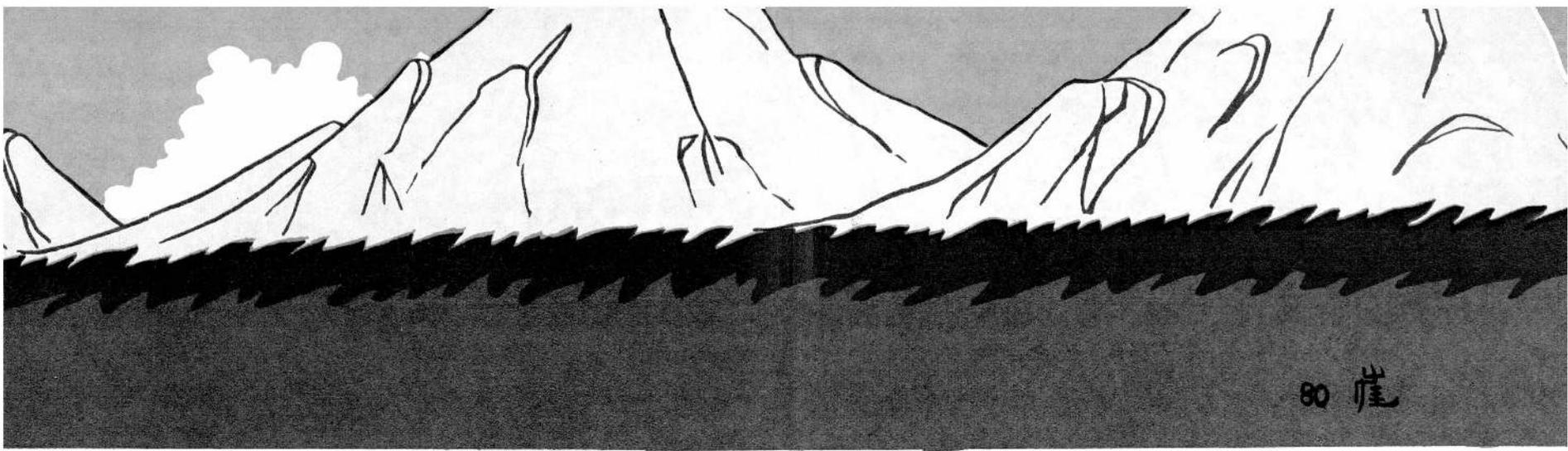
미 해병 제 3 상륙부대장 윌리엄 R. 몰로니 소장이 방한 인사차 공군본부를 예방 < 5. 15. >



정신전력학교장 조 주태 소장이 퇴역인사차 공군본부를 예방 < 5. 29. >

80-1 차 고등비행 교육수료식 거행 < 3975부대 5. 8. >





政訓監 金元起 (2)
李善浩 (4)

.....康仁德 (14)
文道彬 (20)
蔣道錫 (26)
申裕恒 (34)

.....편집실 (40)
편집실 (51)
편집실 (58)
조성환 (67)

아프가니스탄과 美国外交政策 편집실 (75)
 太平洋에서의 美国의 立場 편집실 (86)

美·蘇의 防空網에 对한 評價(終) 윤쾌환 (97)
 中共空軍은 “종이호랑이”신세를 면치 못할 것인가(終)李建淳 (106)
 美国의 戰略優位權의 상실과 西歐에 미치는 영향 金榮漢 (113)
 情報評價業務의 向上方案(終) 林貞赫 (127)
 前進翼 航空機 開發 윤형기 (132)
 空軍力의 先驅者 “앤더슨 將軍” 梁宸錫 (143)

空軍漫像

.....鄭雲燮 (84)
 군가: 1) 젊은 보라매 (149)
 2) 용사의 다짐 (150)
 3) 솟아라 보라매 (151)
 4) 사나이 한목숨 (152)

統一問答〈5〉 편집실 (153)
 忠武公의 生涯와 思想〈5〉 편집실 (159)
 초상화 올더스 헉슬리 (169)



전부대 지휘관 회의 개최 <공본 :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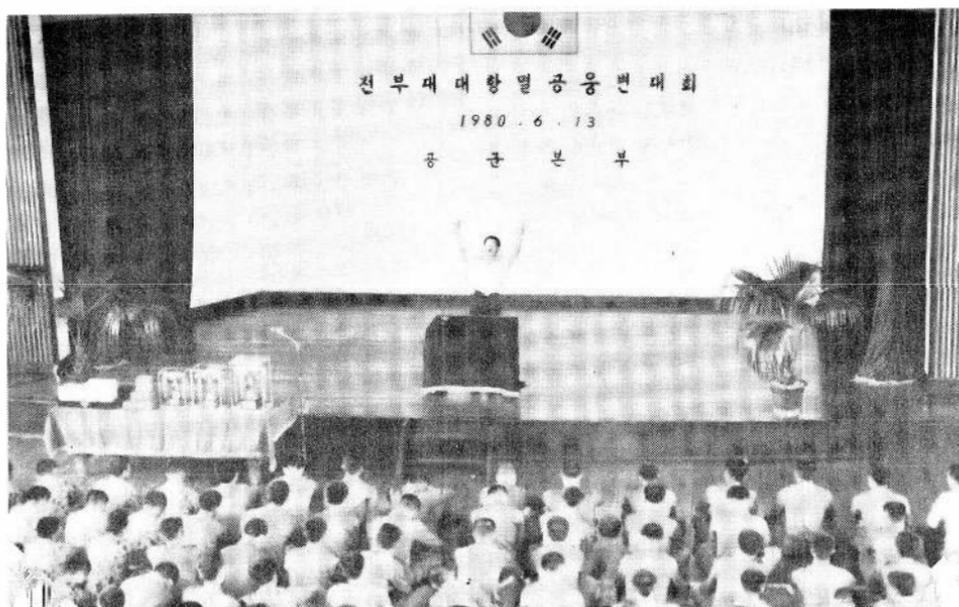
윤 자중 참모총장 전부대 모범용사 접견 <6. 9.>





2만 5천시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 거행 <3591부대 : 5. 8.>

6. 25 제30주년 전부대 멸공웅변대회 개최 <공본 : 6. 13.>



공군

제 170 호

1980년 제 3 호



參謀總長 指揮指針

必勝의 制空態勢 確立

戰 鬪 常 備

人 和 團 結

精 兵 強 軍

反共精神의 高揚

政訓監 空軍准將 金 元 起

六月이 되면 우리는 分斷된 祖國의 現實을 보며 뼈아픈 6·25 同族相殘의 悲劇을 回想하게 된다.

무려 2百75萬名의 死傷者와 수 많은 財産被害를 낸 戰爭의 結果와 父母 兄弟가 서로 헤어져 人倫의 情을 나누지 못하며 살게 된 오늘 現實에 그 回想의 아픔은 더한 것이다.

그러나 이 民族의 아픔과 함께 우리는 그동안 北韓 共產主義者들과 休戰線을 경계로 對峙하여 오는 동안 다시는 그들이 前者와 같은 愚를 犯하지 못하도록 精神의 或은 物質의 力量을 蓄積하는데 總力을 傾注해 왔다.

즉, 自由民主主義의 理念 아래 反共을 國是로 삼고 이를 生活化하며 滅共의 鬪志를 培養하는데 全心全力을 다해 왔다.

특히 1970年代初부터 自主國防의 旗幟 아래 내 祖國, 내 疆土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은 意志로 各種 火器는 물론 高度의 電子兵器 및 最近에는 미사일까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우리의 防공 망을 더욱 튼튼히 다졌다.

이는 오늘날 世界가 自由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兩大 이데올로기로 分離 對立되어 있는 歷史的 現實에서 우리가 擇한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고 이를 바탕으로 福祉國家로의 우리의 理想을 實現시키기 위해서 뿐 아니라, 바로 6·25 南侵을 恣行한 北韓 共產主義者들과



休戰線을 경계로 對峙하여 戰爭 아닌 戰爭을 하고 있는 狀況 아래 우리의 生存權을 守護해야 하는 무엇보다도 切實한 要求에서 그 必要性이 더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씻을 수 없는 民族의 大罪를 짓고도 一抹의 悔心도 없이 또다시 大韓民國을 共產化시키려고 갖은 手段과 方法을 다 動員하여 挑發을 劃策하고 있기 때문에 反共은 곧 우리의 至上的 課題이며 生命을 건 切實한 것임을 再三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편 世界各國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自國 實利追求的 現實主義를 指向하는 傾向으로 反共에 對한 思想的 武裝의 弱화가 憂慮되고 있는 가운데 6·25動亂을 直接 體驗하지 못한 젊은 世代가 將來 우리 社會의 主役을 맡게 됨에 있어서는 더욱 反共精神의 高揚과 理念的 確立이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越南의 共產化와 最近의 아프가니스탄 事態 등을 보더라도 共產主義者들의 全世界 共產化 策動이 끊임없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으며, 그들의 共產化 手段이 武力이라는 점에서 平和를 指向하는 우리는 “平和를 바라거든 戰爭에 대비하라”는 로마 格言처럼 또다시 6·25 動亂과 같은 悲劇을 招來하지 않기 위하여서도 투철한 反共精神으로 武裝한 對共姿勢가 堅持되어야 하는 것이다.

美国의 对外政策 性向과 韩国 安保

李

善

浩

△ 國防大學院 教授 ▽

1. 問題의 提起

「카터」大統領은 취임한지 3年을 넘어서는 지난 1月 21日, 美議會에 보낸 年頭敎書(State of the Union Message)에서, 世界의 主導의 役割을 爲해 다음과 같은 3個分野에 對한 施策을 重點의 으로 設했다고 말했다.

첫째는 蘇聯 軍事力의 增強과 對外 進出

둘째는 美國을 포함한 西方側의 中東 産 石油供給에 對한 壓倒의 依存度 增加

셋째는 開發途上國家에서 發生하고 있는 變化의 壓力.

이는 越南戰이 끝난 후 「네망드」의 美名下에서 軍備增強을 急激히 追求해 온 蘇聯에 자극되어 1976年代 中盤부터는 새로운 冷戰의 조짐이 보이기 始作한데 따른 美國의 對應策이라고 하겠다.

① 蘇聯의 威脅을 認識하게 된 것이다

美國은 지난날 東南亞에 있어서 遂行했던 先入觀에 따른 그릇된 役割에서 完全히 벗어나, 增大되어 가는 蘇聯의 軍事力과 政治的 影響力 뿐만 아니라, 西歐와 「아프리카」 그리고 中東에 關心을 돌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76년부터 蘇聯의 威脅이 뚜렷해지자, 「포드」大統領의 任期 마지막 해부터 國防費를 증액하기 始作했으며, 議會도 여기에 同調하는 立場

을 취하였다. 國防豫算의 삭감을 斷行했던 「카터」도 취임 1年만에 「나토」 諸國에게 3% 증액의 公約을 提示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② 「네탕드」政策의 계속적인 追求였다. 美國은 1978年의 「캠프 데이빗」會談이 結實됨으로써, 「이집트」와 「이스라엘」間의 歷史的인 平和條約을 체결시킨 產婆役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包括的인 中東平和의 발판 구축에 成功하고 「사나트」와 「베진」이 「노벨」 平和賞을 받게 된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란」王政의 붕괴와 人質事態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의 蘇聯侵攻事態를 유발하는 間接的인 要因이 됐다는 批判도 받게 되었다.

또한 南美諸國과의 關係改善과 植民地政策의 증식을 告한다는 大義名分下에 1979年 12月 31日을 時限으로 한 「파나마」 運河 移讓을 前提로 新 「파나마」條約을 체결했다. 그리고 美蘇間의 第2段階戰略武器 制限協定 締結 等, 平和指向的인 「네탕드」政策을 밀고 나갔다. 그런데 가장 重要한 또 한 가지의 變化는, 中共과의 國交正常化를 이룩했고, 이와 並行하여 日本과 中共 그리고 西歐諸國과 中共間의 關係도 급격히 改善되었다는 點이다.

이 期間中 中蘇關係는 日극히 악화되었으며, 美國이 東南亞에서 撤收한 以後 同地域에서 中共의 힘이 크게 伸張되

어 中越戰爭을 招來하는 結果를 빚기도 했다.

「카터」大統領은 이와 같이 對外的인 政策에서는 軍事力의 漸進的인 증강과 함께 同盟國과의 協力關係를 증진해 왔으나, 美國政府와 그 國民들은 美國이 2次大戰 以來 꾸준히 지녀온 支配的인 強大國(Preminent Global Power)으로서의 役割과 位置에 커다란 變化가 招來되었음을 實感하게 되었으니, 무엇보다 그 뚜렷한 증거가 「달러」貨의 弱勢와 蘇聯軍事力의 威脅인 것이다.

그런데 美國은 共產勢力을 封鎖한다는 基本的인 政策은 변함이 없으나, 共產主義의 宗主國들이 分裂됨으로써 漁夫之利를 取하고 있다고 믿은 나머지, 昨今の 「쿠바」事態나 中東事態가 戰後의 冷戰時代로 完全 復歸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카터」는 今般 發表한 年頭敎書에서 1980年代를 위한 5大基本政策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① 軍事力 增強 ② 平和的인 紛爭解決 ③ 「에너지」와 「인플레이」問題解決 ④ 人權保護 ⑤ 軍備統制

이러한 政策은 美國의 利益과 價値가 挑戰받고 있으며, 美國의 意志와 能力을 試驗하는 決定的인 時機인 1980年代初에 즈음하여 公전의 關心事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政策展開는 韓國安保와

깊은 連繫性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內적으로 民主化의 기치를 내세운 政治的 大變革過程에 雪上加霜으로 油價引上으로 몰아닥친 世界經濟不況이 韓國의 經濟成長과 安定基調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北傀의 平和攻勢가 더욱 高潮되고 있는 오늘날, 惡化一路의 美蘇關係로 世界의 耳目은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中東에 쏠려 있음으로써, 닥쳐오는 1981년에는 南北間의 均衡을 前提로 留保되어 있는 駐韓美地上軍 撤收問題가 다시 거론될 展望인바, 美國의 對外政策이 韓國 安保에 미치는 影響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選擇的 國際主義

1970年代 中盤 以後, 蘇聯은 戰略核戰力과 海軍力의 對美均衡 내지 優位達成으로 對美對決態勢를 確固히 다졌다.

그런데 蘇聯의 이와 같은 軍事力의 膨脹에 따른 威脅을 輕減시키기爲해 美國은 國防費를 증액하고, 특히「나토」에 對한 支援을 大幅 強化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從前과 같은 包括的인 對外支援政策이 아닌, 選擇的 國際主義(Selective Internationalism)의 性向인 것이다. 美國의 軍統帥體制(National Military Command Structure)를 볼 때

5個 統合軍(Unified Command) 중의 하나인 「유럽」사령부(European Command)는 그 司令官이「나토」聯合軍總司令官(NATO 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을 겸하고 있으며, 이 統合軍의 任務가 「유럽」全域과 中東地域을 맡고 있는 戰區司令部이며, 戰時에는 「나토」의 指揮體制가 有効하게 될 때는 「나토」軍의 支援司令部 役割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유럽」과 中東은 地理的으로나 軍事的으로 相互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美國의 決定的인 關心地域(Vital Interested Areas)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太平洋司令部의 예하인 美第7艦隊勢力의 主力이 現在 印度洋으로 轉換配置되어 있으며 1978년에 「부루킹스」研究所에서 提議한 「東北亞의 軍事力均衡」에도 「스윈」戰略概念을 前提로 船母의 有事時 事態地域集中 配備를 合理化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및 中東 重視政策은 美國이 越南戰 以後 採擇한 1.5戰爭原則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의 主戰場은 「유럽」임에 틀림없으며, 0.5의 副戰場은 中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現實的으로 뒷받침하는 美國의 對外政策性向은 1978年 11月부터 12月까지의 期間中 美國의 「갤업」(Gall Up)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잘 나타나고 있다(表①~⑥).

表 ①

美國의 對外政策 優先順位

	大端히重要함		多少重要함		重要치않음		잘 모름	
	P	L	P	L	P	L	P	L
美國의 달러 價値 維持	86%	73%	8%	25%	2%	2%	4%	—
「에너지」 供給保障	78	88	15	12	2	1	5	—
勞動者의 職業保障	78	34	15	57	3	7	4	2
汎世界的 軍備統制	64	81	23	16	5	3	8	—
共產主義 저지	60	45	24	47	10	8	6	1
世界饑餓 追放	59	66	31	31	5	2	5	—
友邦의 安保	50	77	35	21	7	1	8	1
「유엔」機能 強化	47	25	32	49	13	25	8	—
美國의 海外企業 保護	45	27	40	64	9	9	6	1
他國의 人權伸張	39	36	40	56	14	8	7	1
低開發國 生活向上	35	64	47	33	12	3	6	—
弱小國을 強大國으로부터 保護	34	30	47	63	10	5	9	2
他國의 民主化 助力	36	15	44	62	21	23	9	1

P : 大衆(Public)

L : 指導者(Leaders)

表 ②

對內外 政策關係記事에 對한 關心度

	1974	1978
地域社會 關係記事	56%	57%
州政府 關係記事	47	41
聯邦政府 關係記事	56	48
他國에 關한 記事	35	26
美國과 他國과의 關係記事	50	44

表 ③

當面한 對外政策上의 問題點

對外政策 分野	P	L	對外政策 分野	P	L
中東問題	20%	47%	防衛力 增強問題	3%	7%
對外援助減縮	18	4	對 中共關係	3	17
對蘇關係	13	46	對 共產圈 關係	2	6
貿易收支	12	19	世界經濟	2	7
他國問題 不介入	11	2	「라틴·아메리카」	2	5
油類問題	9	7	「이란」事態	1	8
平和維持	9	13	人權問題	1	7
軍備競爭	7	16	越南問題	1	1
「달러」下落	6	7	「과나마」運河	1	1
對外政策 信賴性 상실	5	17	西歐 및 同盟國	1	6
「아프리카」問題	4	17	대만문제	—	3
「쿠바」問題	3	17	第3世界問題	—	18

P : 大衆

L : 指導者

表 ① 및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의 國民大衆과 指導者級 共히 對外問題보다는 國內問題에, 聯邦政府보다는 地域社會에, 政治軍事問題보다는 經濟問題에 더 많은 關心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特히 弱小國을 強大國의 침공으로부터 保護하려는 從前의 世界警察軍의 役割은, 오늘날 힘의 限界에 直面한 나머지, 美國이 大義名分과 公約은 계속 내세우고는 있지만, 가장 낮은 30%~34%의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分明히 「팩스 아메리카나」(Pax-Ame-

ricana) 體制의 증식을 뜻한다. 또한 表 ②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國家나 國際關係記事가 地域社會關係보다 關心度가 낮은 것은, 美國의 孤立主義 내지 保守主義로의 回歸性向을 示唆하고 있으며, 越南戰에 對한 「알레르기」的 후유증의 殘存現狀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表 ③에서 軍備競爭問題에 對하여 指導者級에서는 상당한 關心을 갖고 있음은, SALT-II를 通한 이른바 必須的 對等性(Essential Equivalence)을 追求하면서 對蘇優位를 堅持하려는 意志를 버리지 않

고 있음을 뜻한다. 이 表에서 또한 美國의 指導者級은 中東問題와 對蘇關係에 가장 심각한 威脅을 느끼면서 우려를 表明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意外로 第3 世界와 대만에 對하여도 상당한 問題意識을 갖고 있음은 注目할만한 事實이다. 이 어론 통계는 「카터」大統領이 집권한 지 2年을 마무리짓는 過程에서 調査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1980年初의 現時點에서 多少의 變化는 있겠으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前提할 때, 一般的으로 對外政策은 一般 國民이 별로 적극적인 關心을 表明치 않고 있으나, 指導者級은 選擇의 國際主義原則에 立脚하여 特定地域이나 國家에 對하여 選別支援을 하려는 政策性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對하여 國民의 支持性向은 반드시 一致되지 않는다고 보겠다.

3. 美國의 對外政策性向과 韓國安保

美國의 立場에서 越南戰은 正義의 戰爭임에는 틀림없으나, 大多數 國民은 施

行錯誤였으며 根本的으로 잘못된 不道德한 戰爭이었다고 批判하고 있다. 오늘날 蘇聯의 威脅이 漸次 高潮되고 있음은, 美國本土에 對한 威脅보다는 美國이 主導하고 있는 「나토」諸國에 對한 威脅을 더 意識하고 있으며, 美國이 海外 軍事力 介入을 抑制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토」의 防衛力 增強에 對해서는 全幅的인 支持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表 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4년에는 前年度 對比 무려 28%의 軍事費를 삭감하고 海外經濟援助와 軍事援助는 各各 45% 및 67%의 大幅削減을 斷行한 것이다. 그러나 1978年을 期하여 軍事費가 10%나 증액됐으며 海外援助의 削減趨勢가 둔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10%의 增加는 「나토」의 防衛力 增強에 重點使用토록 되어 있으며, 威脅받고 있는 其他의 多數國家에 대한 包括的 安保公約支援을 위해서는 至極히 選別的이며 制限的으로 使用될 것임을 表 ⑥에서 分明히 알 수 있다.

表 ④

美國의 重要政策事業 增減趨勢

事業	1974		1978	
	增加	減少	增加	減少
教育支援	50%		47%	
高速道路 擴充	1%		16%	
防衛費		28%	10%	
營農	1%		8%	
福祉事業		4%		30%
他國經濟援助		45%		39%
他國軍事援助		67%		59%

表 ⑤

危機狀況別 美國의 對應策

危機狀況	對應策		派兵		袖手傍觀		協商試圖		交易拒否		軍需支援		未 知	
	P	L	P	L	P	L	P	L	P	L	P	L	P	L
「파나마」運河 폐쇄	58%	49%	3%	2%	22%	32%	4%	13%	2%	1%	11%	3%		
蘇聯의 西歐侵攻	54	92	9	—	16	3	2	—	6	4	13	1		
蘇聯의 西「베를린」占領	48	77	10	1	19	11	3	4	6	4	14	2		
蘇聯의 日本侵攻	42	81	13	1	20	6	3	1	9	10	13	2		
「아랍」의 對美油類供給中斷	36	30	5	1	34	37	12	27	1	18	12	5		
「아랍」의 「이스라엘」침공	22	31	14	2	38	27	3	2	8	35	15	4		
北韓의 韓國侵攻	21	45	24	26	28	13	3	2	9	30	15	4		
中共의 대만침공	20	18	25	12	27	14	5	5	7	17	16	4		
소련의 「유고」침공	18	15	26	13	30	35	5	10	6	22	17	6		
「이스라엘」의 「아랍」침공	11	10	19	5	42	63	5	10	5	7	18	4		

P : 大衆

L : 指導者

「나토」優先政策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韓國이나 대만에 比하면 그 支持性向이 엄청나게 높다는 事實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바로 隣接國인 日本에 對한 支持 또한 壓倒的임을 유념해야 한다.

蘇聯의 西歐 侵攻時, 現地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軍의 主力이 美軍이고, 지휘 체계상 美軍이 聯合軍의 主力部隊을 統轄指揮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美國의 介入은 지극히 當然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런데 蘇聯과 맞먹는 GNP를 가진 經濟大國인 日本은, 비록 美國의 安保體制에 無賃乘車를 하고 있으나, 소련의 침공을 받을지는 美國의 派兵支持度가 42%와 81%로서 西「베를린」의 蘇聯 侵攻時와 지지성향이 大同小異한 反面, 한국이 北傀로부터 侵攻을 받을 경우, 美國의 派兵意志는 겨우 21%와 45%라는 事實도 중요시되어야 하겠지만, 袖手傍觀을 支持하는 性向이 무려 24%와 6%로서, 國民大衆의 派兵反對輿論이 그

表 ⑥

美國과 決定的 利害關係 有無國家

國家	利害關係		決定的 利害有		決定的 利害無		未 知	
	P	L	P	L	P	L	P	L
「사우디 아라비아」	80%	95%	8%	5%	12%	—		
日 本	78	89	11	1	11	—		
「이스라엘」	78	91	8	8	14	1		
「파 나 마」	77	66	11	33	12	1		
「이 집 트」	75	91	10	9	15	—		
蘇 聯	74	95	15	4	11	1		
中 共	70	93	16	6	14	1		
「캐 나 다」	69	95	19	4	12	1		
西 獨	69	98	15	1	16	1		
「이 란」	77	92	13	7	20	1		
쿠 바	66	69	23	30	11	1		
英 國	66	94	20	5	14	1		
南「아프리카」	63	62	22	37	15	1		
韓 國	61	70	24	28	15	2		
「백 시 코」	60	90	22	10	18	—		
「프 랑 스」	54	90	30	10	16	—		
대 만	53	55	26	43	21	2		
「로 메 시 아」	49	49	26	48	25	3		
「나이제리아」	42	59	29	38	29	3		
「터 키」	39	75	31	24	30	1		
「브 라 질」	38	73	32	25	30	2		
인 도	37	55	33	43	30	2		
「이탈리아」	36	80	41	20	23	—		
「폴 렌 드」	28	42	45	55	27	3		

P : 大衆

L : 指導者

支持輿論보다 2%나 더 높다는 事實이 더욱 큰 關心事가 된다. 「이스라엘」이 「아랍」의 侵攻을 받을 경우에 派兵을 願치 않는 여론성향은 不過 14%와 2%임을 유의하면서, 中共의 대만을 침공할 경우를 보면 同比率은 25%와 12%임을 알 수 있는데, 대만의 지지성향을 기준하여 우리가 自慰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대만은 美國과 商業的 文化的 關係外는 公式的으로 諸般關係를 斷切한 狀態임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國民大衆의 支持는 議會의 支持와 직접적이고 있으며, 指導者 級의 支持는 多分히 外交的인 側面과 可變的인 要因이 內在되어 있음을 計算에 넣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韓國安保에 關한 美國의 國防長官이나 高位當局者의 公約이나 聲明 等에 一喜一悲할 것이 아니라, 美國의 對外政策의 흐름과 여론의 底邊을 정확히 分析評價하여 적절한 對應策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前章에서 言及한 바 있는 美國의 選別 支援政策을 實感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表⑥이다. 여기에서 美國이 決定的인 利害關係가 있다고 보는 國家들은, 産油國(「사우디 아라비아」·「이란」), 經濟大國(日本), 隣接友好國(「캐나다」·「멕시코」), 軍事的 對決國(蘇聯), 政治的 接近國(中共, 「이집트」), 그리고 「나토」諸國과 「이스라엘」等으로서, 美國의 國家

利益에 어느 程度 보탬이 될 것이냐 하는 効用度에 따라 相互關係의 強度가 나타나 있다. 韓國에 대한 支持性은 61% 및 70%로서 美國의 關心國(24個 國家) 中 下位級에 머물고 있으며, 日本(78% 및 89%)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대만(53% 및 55%)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한 白人支配國인 南「아프리카」(63% 및 62%)와, 蘇聯의 등에 업혀 美國을 괴롭히고 있는 「쿠바」(66% 및 69%)보다도 오히려 저조함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카터」大統領의 75「페이지」에 達하는 年頭敎書에도 「나토」와 中東에 對한 美國의 決意는 強하게 表明되어 있으며, 東「아시아」의 安保에 대해서는 中共 및 日本과의 協力增進을 強調하고 있으나, 韓半島의 安定에 대해서는 一言半句도 言及된 것을 發見할 수가 없다. 그리고 1月 28日 議會에 보낸 豫算敎書(Budget Message)에도 昨年보다 153億「달러」나 增額된 1,427億「달러」를 1982會計年度의 國防豫算으로 議會에 承認要請하면서 「나토」 盟邦들과 協力하여 「나토」指向的으로 軍事力을 現代化하고, 西歐에 對한 增援力量을 強化한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最近에 편성된 緊急配置軍(Rapid Deployment Force)은 美國의 東海岸 「프로리다」州에 있는 戰備司令部(Readiness Command) 內에 位置하고

있는 바, 이는 「쿠바」事態나 「나토」와 中東事態에 對備한 것이다.

따라서 韓國安保를 보는 눈은 항상 動態의이고 巨視的인 次元에 두어야 할 것이며, 한 두그루의 나무를 보고 숲 자체를 評하는 式의 構成의 誤謬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3月 1日부터 始作된 「팀스피리트」訓練이나, F-16機를 비롯한 一部 高價裝備의 軍事販賣 等도 美國의 對韓政策支持性向이 나타내고 있는 尺度를 벗어나지 않는 範圍內에서의 措置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韓國安保는 駐韓美軍과 不可分의 連繫性을 갖고 있는 바, 美國이 南北均衡을 꼭 軍事力의 均衡에서만 찾으려고는 하지 않고 있으니, 美·中·日 聯合提携關係에 韓半島 抑制戰略의 바탕을 두고, 韓國의 經濟的 優位로서 北韓의 軍事의 優位를 相殺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인 理論도. 駐韓美 地上軍 撤收를 合理化시키

기 爲해 提示될지도 모른다.

Fy-81 美國防報告書 및 軍事態勢報告에서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美海兵 第3師團은 계속 殘置될 것이며, 「괌」島에 航母前進基地를 증설하고, 印度洋의 「디에고 갈샤」基地를 強化할 것을 明示하고 있으나, 駐韓美 第2師團 殘餘部隊의 撤收는 一時的인 中斷狀態임을 再確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駐韓美軍의 駐屯은, 美國이 그들의 國家利益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判斷할 때까지는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 美國의 國家利益과 우리의 國家利益이 共通分母를 갖게 될 때, 美國 對韓安保公約의 不確實性은 減少될 것이며, 韓國이 이룩한 經濟發展으로 뒷받침되는 軍事力 增強과 並行한 政治發展이 成熟될 때, 兩國의 共同利益은 接近될 可能性이 더욱 커지고, 共通分母를 찾을 名分과 實利를 갖추게 될 것으로 믿는다.

×

×

×

×

北傀의 對話戰略과 統一戰線戰略

말하는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形成의 한 手段으로 利用하고 있는 것이다.
北傀는 南北對話를 그들의 目的인 南韓의 赤化統一을 爲한, 소위 그들이



康
仁
德

△政博·極東問題研究所長▽

최근 북한 공산당은 「南北 總理間 接觸(相逢)」을 제의하며 집요한 對南政治 攻勢를 강화하고 있다.

그들의 기도는 「合作」을 실현하여 「聯共의 團結」을 성취하며 이를 통해 南韓 內 統一論을 兩分하여 보다 容共의 社會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北傀의 戰略的 企圖를 그들의 對話現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연결하여 分析해 보기로 한다.

統一戰線의 形成企圖

統一戰線이란 무엇인가? 北傀가 발행한 政治用語辭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노동계급이 당의 영도 밑에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해당한 혁명의 승리에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기 위하여 부운 정치적 연합을 말한다”

위 정치용어사전의 정의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통일전선은 첫째로 일정한 時間(그들이 말하는 혁명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反共產主義勢力을 무찌르기 위하여 다른 정치세력과 일시적 연합을 결성한다는 것이다.

즉 主敵을 타도하기 위하여 副次的인 敵(그것이 反共勢力이든 親共勢力이든 관계없이)과 同盟을 맺음으로써 主敵을 고립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一定한 時間(해당한 시기의 革命)의 鬪爭 課業이 달성되면 그 동맹은 즉각 파괴되어야 한다.

통일전선의 둘째 특징은, 반드시 공산주의자가 主導權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칙이다. 만약 공산주의자에게 주도권이 장악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공산주의자들이 제시하는 투쟁구호가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동맹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의 활동자유가 억제되는 어떠한 조건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산당은 통일전선에 가입한 다른 정당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것임을 전제로 한다.

통일전선의 세째 특징은, 上層統一戰線보다 下層一統戰線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바로 연합해야 할 상대방 黨이나 社會團體의 指導者들과의 연합보다 그 黨을 구성하고 있는 黨員이나 團體員과의 연합, 즉 相對方黨의 黨員들이 공산주의자의 선전과 선동을 받아들여 그들의 지도부에게 압력을 가하게 만드

는 政治工作을 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연합한 정당과 사회단체들 內部로부터 공격시키려는데 있다.

통일전선의 네번째 특징은, 「오늘의 운동에서 그 운동의 장대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공산주의자들이 목표로 하는 정권탈취라는 궁극적 목적을 끝까지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운동을 집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보다 큰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國號의 제시와 투쟁방법의 선택을 전술적으로 잘 다듬어야 한다는 말이다. 작은 규모의 투쟁, 일상적인 생활상 요구에서 발생하는 구호로부터 정치투쟁을 가속화시키는 구호로 발전하며,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에서보다 차원이 높은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전선의 다섯째 특징은, 오늘의 연합은 곧 새로운 투쟁의 시초라는 전체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오늘 연합하기로 약정한 정당이나 단체들도 결국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일면 타협, 일면 투쟁”을 당초부터 개시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것이 統一戰線의 基本特徵이다.

이러한 戰術을 어떻게 “對話”와 연결시키는가?

이것이 오늘의 對南戰略의 對話戰術

이다.

統一戰線戰略과 南北 對話와의 相互關係

우리는 1971년 이 후, 몇 가지의 南北 對話를 추진한 바 있다. 離散家族을 재결합시키기 위한「南北赤十字會談」, 南北間의 多角的인 교류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軍事 등 모든 현안문제와 統一問題를 해결하기 위한「南北調節委員會」, 卓球, 올림픽 등의 單一팀 구성과 體育交流를 위한「南北體育人會談」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南北總理間會談」을 준비하는 實務者會議 등이다.

그런데 性格上 서로 다른 이 회의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基本線이 있었다. 그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든지 간에「南韓의 法律的, 社會的 條件이 改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法律的, 社會的 條件의 改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南韓에 강력히 뿌리박고 있는 國民의 反共意識, 反共教育, 反共的인 社會秩序, 反共的인 法律과 政策 등을 바꾸라는 것이다.

한 마더로「聯共」또는「容共」의 분위기로 南韓의 環境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모든 南北會談에서 결렬의 원인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北韓側 要求 때문이

었다.

우리側이 北韓共產集團에 대한 종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 對北觀을 바꾸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설 때 비로소 가능한 문제이다.

北韓共產主義者에 대한 國民의 不信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政府의 弘報效果 때문이 아니다. 對北愧不信은 6·25 남침을 통해, 그리고 그 후 繼續된 그들의 단행에 의해 비롯되고 심화된 것이다.

어느 한 사람, 어느 1個 政黨이「反共하자!」고 외쳤기 때문에 反共環境이 조성된 것이 결코 아니다.

때문에 北韓共產主義者들 입장에서 볼 때 南韓內 存在하는 反共環境은 간단하게 파괴될 수 있는 戰術的인 문제가 아니라 戰略的인 問題이다.

北傀는 바로 이 점을 알고 있다. 6·25 動亂 이후 30년이 경과하여 새로운 世代가 出現했고, 이들은 거의 감상적인 民族觀에 젖어 있다. 北韓共產主義者에 대한 憎惡心이 보다 느슨해진 세대들이다. 이러한 變化에 편승하는 것이 바로 戰術的인 前進를 기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方途는 무엇인가?

우선 現政府에 대한 集中砲火를 퍼부어 國民의 不信을 조장하는 것이다. 모

은 잘못의 책임을 政府(爲政者)에게 전가시켜 국민의 對政府 不滿을 촉발시키는 「反政府統一戰線」을 형성함으로써 국민의 口味를 자극하면서 接近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民族끼리 統一問題를 논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外勢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주었는가? 우리의 歷史는 항상 外侵略의 鬪爭으로 점철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라고 선전하면서 北韓共產主義者 스스로가 民族의 代辯者로 둔갑하려는 것이다.

中國大陸에서의 共產化가 가능했던 것은 中國共產黨이 抗日鬪爭의 前哨兵으로 둔갑되었기 때문이었고 베트남의 赤化가 가능했던 것은 베트남共產黨이 抗佛獨立鬪爭의 前衛隊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는 事實을 감안할 때 무릇 後進國家에서의 共產主義革命은 「民族的」인 것으로 분장함으로써, 즉 民族解放勢力으로 認定받음으로써 可能하였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바로 이 經驗을 教訓으로 삼아 「反美統一戰線」을 形成하려 노력한다.

또한 그들은 民衆의 意思를 대변하며 각종 獨裁와 鬪爭하는 「民主人士」로 위장하여 「民主主義統一戰線」을 형성하려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장을 통해 反政府, 또는 民主野黨人士를 자기편에 끌어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그렇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접근은 가능하리라고 타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各種 統一戰線形成 기도를 하나로 묶은 것이 바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이다(현재 北傀는 이 이름을 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그들의 기도를 가장 용이하게, 가장 넓게, 그리고 가장 짧은 時間內에 파급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있다. 그것은 아마도 南北 對話라는 會談戰術일 것이다.

왜냐하면 南北對話는 統一問題를 비롯한 여타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平和의 政治攻勢의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宣傳場이 될 수 있는 素地가 있기 때문이다.

北傀側 立場에서 볼 때 南北對話는 南韓國民은 勿論 全世界를 향해 그들의 眞意를 위장 선전할 수 있는 場所를 제공해 준다.

첫째, 南韓國民에 대해서는 民族의 宿願인 統一을 위해 「民族的立場」에서 진지하게 解決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환언하면 思想과 理念을 초월하여 統一問題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力說함으로써 南韓國民들로 하여금 北韓共產集團도 틀림없는 우리의 同族이구나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의 共產化計劃을 위

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美國에 對하여 韓半島의 緊張이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美國內의 輿論을 撤軍方向으로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美地上軍 撤收計劃이 일시 유보된 상대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緊張緩和의 虛像을 美國民에게 보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세째로 만약 그들의 意圖대로 南北對話가 進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깨어 버리고 대신 南韓과는 對話가 안 되니 美國과 直接 對話하여야 한다는 論理的 根據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美國과의 直接對話가 가능하게 된다면 그것은 韓美離間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北傀立場에서는 南北對話의 主導權을 장악할 수 있는 한 항상 韓國政府를 곤경에 몰아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네째로 이러한 對話過程을 통해 그들은 南韓內에 일어나는 각종 여론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分裂의 契機」를 포착할 수 있다. 統一問題가 全民族의 문제인 한, 제각기 자기 견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南韓의 現實이다. 더우기 政治人 또는 政黨의 경우 執權을 위해서도 統一問題에 관한 자기 견해를 표명해야 하므

로 극단적으로는 數 10種의 統一方案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항상 顯在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側은 그 많은 統一方案中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고 不利한 것은 제외시킴으로써 統一論議를 兩分할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利點을 노리는 것이 바로 北傀側의 對話戰略이다.

「合作」의 戰術口號를 경계하자

지금까지 統一戰線과 南北對話간의 相互關係를 北傀側 立場에서 검토하였다.

한 마디로 北韓側의 南北對話에 대한 戰術은 그들의 용어 즉, 「合作」이란 말에서 分明히 나타나 있다.

「合作」이란 「合同作業」의 준 말이며 따라서 「서로 힘을 합쳐 일한다」는 뜻이다.

用語上으로 보아서는 하등 의심할 것이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北韓側이 使用하는 政治用語들은 그 해석에 있어 우리의와는 판이하다. 예를 들면 「民主主義」란 용어도 모든 國民의 自由와 平等을 의미하는 우리의 해석과는 달리 「階級的立場」에서 「타도대상인 有産階級을 억압하는 人民民主主義」를 뜻한다. 「自由」역시 「프롤레타리

아獨裁의 實現으로 비로소 무산계급의 자유가 확보된다"라고 해석한다. 「平和」 역시 마찬가지로 「戰爭이 없는 階級鬭爭의 期間」을 의미한다. 「民族」 역시 「社會主義的 民族으로 전환할 때 진정한 民族의 解放이 온다」고 주장한다.

「合作」이란 바로 1930~40年代 中國大陸에서 「國共合作」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南韓內에서 聯共 또는 容共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主敵을 고립화 하고 親共勢力의 革命力量을 축적하는 戰術」이란 政治的意味가 內包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合作」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協力」 또는 「協調」의 뜻과는 판이한 것이다.

「合作」이란 對南戰略의 戰術的 前進을 保障하는 것이 절대적 전제로 된다는 사실이다.

具體的으로 「合作」은 統一戰線의 슬로건이며 이를 위한 偽裝된 모습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함정이 있는 것이다.

統一戰線이 國論分裂을 바탕으로 主敵을 孤立化하기 위한 「副次的 敵과의 聯合」을 의미한다면, 「合作」은 이를 수행

하는 구체적 방도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南北間의 不信除去를 위한 交流와 接觸을 환영하고, 그러한 과정을 밟지 못한다면 統一에의 접근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方法을 하나 하나 밟을 생각은 아니 하고 무조건 南北間이 「合作」하면 「團結」할 수 있고 「團結」하면 「統一」된다는 北傀側論理의 不當性을 제삼 음미하고 검토해야 한다.

統一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길고 어렵다고 해도, 自由와 民主主義와 福祉社會建設이라는 우리의 國家理念을 성취함을 前提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北傀側 戰略에 달려 들어 國論이 分裂되고 國民의 團結이 깨어진다면 對話 그 自體가 그들에게는 무슨 必要가 있는 것인가? 곧장 革命으로 進入하면 되는 것이다.

北傀가 그나마 對話 云云하는 것은 우리 國民의 團結이 굳건함을 反證한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北韓側의 企圖에 말려 들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安保最優先의 國家發展

基盤에서만이 經濟難局의 타개는 물론 政治發展도 成就할 수 있다.
비록 時代的 狀況은 달라졌으나 튼튼한 國家安保와 社會安定



文
道
彬

△서울신문 論說委員▽

1. 國家發展과 오늘의 危機狀況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내외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10.26 사태 이후 우리의 국가발전에 대한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 위기의 실상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즉 격동하는 세계경제, 한시의 방심도 분허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괴의 남침위협, 침체일로를 치닫고 있는 국제경제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우선 국제정세면에서 본다면 지난 해 12월에 벌어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강대국간의 평화공존분위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주변정세에 있어서는 미·일·중공간의 3각협력관계 형성과 이에 맞서 구동 지역 군사력을 급격히 증강하고 있는 소련의 팽창전략이 주목할 위협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작금 북괴는 이 힘의 개편기를 남침의 호기로 삼으려는 책동을 끈덕지게 전개하고 있다. 또 최근에 일어난 세계적인 석유과동은 가격인상 및 공급면 등에 있어 우리의 국내 경제에 힘겨운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 형편이다.

최규하 대통령이 지난번 그의 대통령 취임사에서 지금이 비상시국이며, 현정

부를 「위기관리정부」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같은 국가적 난국에 대한 국민에의 일깨움이라 하겠다. 이어 최대통령은 지난 1월 연두회전에서 이러한 국가적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금년도 정부 시책의 중점을 ① 국가안보의 공고화 ② 공공질서의 유지 ③ 국민생활의 안정 ④ 질서정연한 정치발전 등에 두겠으며 이를 추진해 나가는 정부를 모든 국민은 신뢰,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0년대에 우리는 정부와 국민이 땀흘려 노력해온 보람으로 반만년의 숙명적인 빈곤을 벗어나 우리의 국력을 국방,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있어堂堂히 선진국 수준의 문턱에까지 올려 놓았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장의 토대 위에서 80년대의 새로운 시대적 추이에 발맞추어 각 분야의 보다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역사의 전환점에 당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삼 깨달아야 할 것은 비록 시대적 상황은 달라졌으나 여전히 튼튼한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기반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경제난국의 타개도 정치발전의 성취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기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난국 타개에의 자신감, 정치적 성장에의 기대감

등은 지난 70년대에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 오직 자주국방과 자립경제 건설에 온갖 노력을 다해온 국력배양의 경험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최근 우리사회의 일각에 우리의 안보상황과 사회안정을 자못 위태롭게 할 정치과열 기미가 한동안 이는듯 하다가 북괴 무장간첩의 잇단 대남 침투를 목도하자 다시 자제(自制)의 제자리로 돌아선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3천 7백만 국민의 생존권(生存權)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국민생활의 안정은 물론 국민이 바라는 정치발전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각성이 세차게 되살아난 것이다.

10·26사태 이후 우리 국민은 높은 수준의 자제력을 보여왔고 그것은 그동안 난국극복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 경험에 힘입어 안보최우선의 국민적 합의(合意)로 한때 뭉쳐 국가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슬기는 앞으로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도 계속 아낌없이 발양되어야 하겠다.

2. 北 傀 의 對 南 赤 化 兩 面 戰 略

우리가 국가안보를 모든 국가시책의 최우선적 명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의 적화통일만을

불변의 목표로 믿고 있는 호전적인 북괴 집단과의 사생결단(死生決斷)의 대치관계 때문이다. 특히 10·26사태 이후 우리 내부의 동태를 계속 주시해오던 북괴가 울들어 느닷없이 남북 총리(總理)회담을 제의해 오는가 하면 그 뒷전에서 잇달아 무장간첩을 남파시키고 있는 것은 이전에도 상투적으로 써오던 대남적화양면전략의 본격적인 전개양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높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6·25남침 직전에도 남북총선(總選)을 위한 예비회담의 개최, 피검(被檢) 인물의 상호교환, 소위 「평화통일 서명운동」에 대한 호응선전 등 치열한 평화공세를 펴오다가 급기야 전면(全面) 무력남침을 감행했다. 또 남북적십자회담 및 남북조절위원회 등 두갈래의 남북간 대화통로가 열린 70년대 초에는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적 여당은 아랑곳없이 그 뒷전에서 남침용 지하당군을 파내려왔으며, 대화 자체도 단지 대남적화를 위한 통일전선전략에만 이용하려다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이 요즘 들어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함으로써 우리의 「1·19당국자간 대화제」에 응해오는 듯한 태도를 잡작스레 보이고 있는 것은 10·26사태 이후

의 우리 국내상황에 편승, 남북대화를 또다시 대남적화를 위한 통일전선전략 전개의 한 방편으로 삼으려 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 속셈은 지난번 총리 회담제의 때 같은 날짜로 소위 「조국통일 위원회=祖統」이란 이름의 편지공세를 우리측 각계인사에게 퍼온 사실에서 역력히 드러난 바 있다. 「조통」은 지난 60년 4·19혁명 직후 대남적화를 위해 조직된 북괴당의 외곽단체이다. 그들이 이 단체를 다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과도기적 국내상황을 이용 남북대화를 소위 「대민족회의」 형태로 유도함으로써 우리의 극론(國論)을 분열시키고 우리 사회에 4·19 직후와 같은 걸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적화전략임이 너무도 명백한 것이다.

한편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같은 위장평화공세와 배를 같이 해서 무장간첩을 계속 남파하고 있는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북괴의 대남군사 전략은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과 정치적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개발한다는 전제 아래 소련식 정규군 전략과 병행, 모택동(毛澤東)식의 소위 「인민전쟁」 전략을 결합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인민전쟁」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중공(中共)이나 「베트남」과 한국의

제반 여건(與件)은 근본적으로 관이(判異)하다. 지난날의 국공(國共) 전쟁은 오랜 기간에 걸친 대일(對日)항전의 유물이며, 월남전쟁 역시 장기적인 반불(反佛) 식민지 해방투쟁의 유산으로서 정치심리전적인 주도권을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또 지리적으로도 「게릴라」 활동에 유리한 「정글」이라는 절호의 여건이 주어져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 사회에는 「게릴라」활동이 발붙일 곳이란 전혀 없다. 정치적으로 국민의 반공의식은 철저하며 지리적으로도 전국이 1인 생활권으로 개발돼 그들의 은익처가 없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68년의 1·21 사태와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사건 등에서 알아차린 북괴는 새로이 「위장인민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냈다. 즉 무장간첩을 한국의 주민 또는 국군으로 위장, 대량 침투시켜 주요시설 파괴, 민심교란, 내부 폭동 등을 주도케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민중봉기」인양 꾸며내어 소위 「민족내부문제」라는 구실로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는 가운데 일거에 무력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명분을 찾으려는 남침적화전략인 것이다.

한국에 불안사태가 일어날 경우 북괴는 약 10만명의 특수부대를 대거 남파할 계획이라는 최근의 여러 외신보도가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괴의 양면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월남패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되새겨야 할 越南 敗亡의 敎訓

지난 75년 4월 30일 공산월맹(越盟)과 월남공산당 「베트콩」의 칩락앞에 패망해 버린 자유월남의 비극은 한 마디로 공산세력의 통일전선전략에 놀아나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약화된데 기인한 것이었다. 공산군의 침입을 받아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월남 내의 일부 제야정치인, 종교계·학생·사회단체 등은 소위 「제3세력」임을 자처하면서 자유와 민주를 부르짖으며 반정부활동을 계속함으로써 국론의 분열을 초래, 결과적으로 공산측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어 화를 자초(自招)하고 만 것이다.

73년 1월 「파리」 월남평화협정이 성립되자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이들에게 3세력은 공산군의 포성(砲聲)을 귓전에 들으면서도 미국원조의 즉각중지와 「베트콩」과의 협상을 요구하는 등 안보문제를 대정부공격의 도구로 삼아 내부

직 과정에 영일이 없었다. 이에 편승하여 공산측은 「파리」협정에 의한 「민족화해정부」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반공주의자인 「티우」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공세를 폈다. 이같은 내외의 압력에 의해 결국 75년 4월 21일 「티우」대통령은 하야(下野)하고 말았다.

그러나 「티우」대통령의 하야 후에도 공산군은 계속 전투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프란 반·후옹」신임대통령도 사임하고 대통령직을 제3세력의 대표자적인 「두옹 반·민」장군에게 인계했다. 그 후 「민」장군은 공산측이 요구해 온 용공적(容共的)인 「민족화해정부」가 수립된 것을 내세워 공산측과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공산군의 비타협적인 무력공격 앞에 그는 4월 30일 무조건 항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써 월남국민의 양심과 정의를 대변한다고 자처해온 제3세력 인사들의 공과(功過)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세계 여러 지역을 적화해 온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을 보면 투쟁대상국가나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초기단계에는 상대측 각 계층간의 모순과 반목을 최대한으로 이용, 극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반공세력을 제거한 후에 다음 단계의 폭력혁명 또는 무력침공에 들어갔던 것이다. 우리

는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정채와 음모를 똑바로 보고, 그에 말려 들지 않기 위해 우리 내부의 취약점을 과감히 도려내야 하겠다.

4. 反共, 安保態勢를 再點檢하자

일면 대화, 일면 간첩남파의 양면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북괴는 최근 그들의 모든 선전기관을 총동원, 『한국이 정치발전을 이뤄나가려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용공(容共)사범을 무조건 석방해야만 한다』는 티무니 없는 억지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한국에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양분되어 있는 양 선전하면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반공을 거부하고 이른바 「연공」(聯共) 내지 「용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궤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정치적 변풍기를 틈타 국민의 반공의식을 와해시킴으로써 「적화통일의 길」을 열겠다는 발악적인 선전·선동공세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국가관·안보관에는 과연 해이됨이 없는가를 곰곰히 뒤우쳐 봐야 하겠다.

이와 관련, 얼마전 우리 사회에 큰 충

적을 던진 이른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南民戰」 사건이 그 구체적인 반성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변에 비록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뜻밖의 자생적(自生的) 용공조직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것은 지난날 월남패망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되는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을 경중삼아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3천 7백만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오직 한길은 반공일 따름임을 거듭 명심해야 하겠다.

한편 대간첩 경제태세도 전면적으로 재점검, 철통같이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북괴 무장간첩의 대남 침투는 해마다 녹음기에 으레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올해는 그 양상이 예년보다 더 격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즉 그들은 정치발전의 여러 질차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국내 상황을 계속 안보상의 헛점으로 오관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 오는 11월

로 다가선 미국 대통령 선거기를 미국의 대외공약(公約) 이행 취약기로 오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같은 근거에서 북괴의 대남침투와 무려도받은 앞으로 가일층 격화될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이에 대비, 우리 군은 이제까지도 그렷지만 앞으로도 무장간첩이 단 1명도 침투에 성공하는 일이 없도록 진후방의 대적경계 및 대간첩작전태세에 항시 완벽을 기해 나가야 하겠다. 한편 모든 국민은 군의 방위태세를 뒷받침하는 투철한 반공·안보의식으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

이렇듯 우리가 처해있는 오늘의 내외적 위기상황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군과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안보의 공고화를 향한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으로 배가해 나갈 것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經濟難局克服을 爲한 國民的 知慧

國民的 積極적인 反應이 수반되어야 한다.
 投機抑制、失業豫防、生必需品價格安定 등(과 더불어
 經濟難局 克服을 위해서는 政府의 經濟對策(非生產的

蔣 道 錫
 (高大 經濟研究所 幹事)



우리의 경제적 현실을 보고 국민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경제난국에 대처해 나가기 전에 한국경제가 어떠한 길을 밟아왔고 무슨 문제를 유발시켰느냐는 사전 인식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우선 경제개발 과정의 개괄적인 이해와 1·12 조치가 취해진 배경 등을 살펴 본 다음 국민들의 자세를 논할까 한다.

1. 한국 경제개발의 문제

해방 이후 한국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걸어왔다. 식민지경제를 인수받은 민족경제적 상황은 자본결핍, 자원부족, 기술미비라는 여건 속에서 성장의 발

<表 1> 금리 추세

年 度	1年단기 정기예금 금리 (%)	輸出 入餘 금리 (年利%)
1969	26.4	6.0
1970	26.4	6.0
1971	20.4	6.0
1972	16.8	6.0
1973	12.0	6.0
1974	15.0	6.0
1975	15.0	7.0
1976	16.2	8.0
1977	14.4	8.0
1978	18.6	9.0
1980 (1.12)	24.0	15.0 (1)

1) 1980年 6月 30일까지는 잠정적으로 12%를 적용

(자료) : 경제 통계연보(한국은행) 1979.

돋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자본 및 기술의 도입과 무역에 의한 자원구입 및 외화획득으로 경제발전의 동기를 주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국내적으로는 중화학공업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수출주도로 성장을 이끌어 가게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한 자본이 부족한 기업에게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低金利를 유지시키고(表 1 참조) 조세감면 등 「코스트」를 인하시켜 주는 수출지원정책이 강행되었다. 그리하여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싼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원정책의 일환이 되는 저금리정책과 전통적인 契와 같은 사적 금융거래, 부동산 투기 등이 성행하여 직결한 예금수준에 훨씬 못미치게 되는 반면 자금비용이 싸고 정책적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기업의 자금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느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정금용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조세특혜 보조금, 금융예택 등은 이러한 지원책이 있다고 분수 있다. 그러나 정부재정과 은행 대출자금은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그 해결책을 통화증발이라는 것에 호소하게 되었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훨씬

<表 2> 주요국의 통화량 증가율(%)

연 도	미국	서독	일본	한국
1972	5.7	13.6	22.2	27.4
1973	7.9	5.6	26.4	52.4
1974	4.0	5.9	13.3	26.5
1975	4.5	14.1	10.3	26.3
1976	5.1	10.2	14.2	30.4
1977	7.2	8.3	7.0	39.0
1978	7.1	13.8	10.8	28.2
1979 (I)	5.1	11.2	11.6	19.2
(II)	—	—	13.4	14.4

(자료) : 외환은행 월보 1979. 11; IMF 발표

높은 비율로 통화가 증발되었다. 이러한 과도한 통화증발을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다. 후진국에서는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심하게 겪고 있는데 소위 거발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성인플레이션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경제개발을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통화를 증발하여 수요가 과도하게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인플레이션인데 경제전반에 걸쳐 심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통화증발에 의한 초과수요 인플레이션은 수입을 촉진시켜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외채를 급증시키게 한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의 안정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는 가격인상을 살펴 보자. 앞에서 본 통화증발은 수요증대에 의해 물가를 압박

하여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제품공급은 일정한데 통화량이 증대될 때는 불가피하게 물가상승이라는 것으로 귀착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을 기준으로 선진국이 상당히 물가가

<表 3> 주요국의 도매물가 지수

연 도	미국	서독	일본	한국
1975	100.0	100.0	100.0	100.0
1976	104.6	103.9	105.1	112.1
1977	111.0	106.6	107.0	122.2
1978	119.7	108.0	104.3	136.5
1979 (I)	129.8	110.5	104.8	146.0
(II)	132.4	112.5	109.1	156.3

(자료) : 외환은행 월보 1979. 11. ; IMF 발표

안정된데 비해 한국은 매년 10~20%의 물가상승이 있었다. 물가를 상승시키는 또 하나의 증대된 요소는 기업의 직접적인 비용을 구성하는 해외 원자재가격의 상승이다. 이 원자재는 국내 생산이 가능하지 못하거나 대체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생산요소에 배놓을 수 없는 것이라면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수입원자재가 외생적으로 가격이 인상된다면 국내기업은 생산비용이 인상되어 곧 바로 제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70년대에 들어와서 OPEC 산유국들이 유가를 전락적으로 인상시키므로써 유류의 절대적 양을 수입

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직접적인 물가 인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表 4> 1배럴당 원유가(사우디아라비아)

연 도	油價(\$)	연 도	油價(\$)
1973	2.70	1979. 1月	13.34
1974	9.76	6月	14.54
1977	12.40	7月	18.00
1978	12.70	12月	24.00
		1980. 1月	26.00

(자료) : 외환은행 월보 1979. 11.

<表 4>에서 보듯이 1973년 석유값이 1배럴당 2.70달러 하였으나 1979년 1월에는 13.34달러, 올 1월에는 무려 26.00달러로 지속적으로 치솟아 오른 것이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또 무시하지 못할 요소는 對外債務라는 것이다. 처음에 지적했듯이 한국경제는 애초부터 자본이 극히 부족했다. 이러한 여건이었기에 발전의 모토를 해외자본에 의존하여 경제부흥의 기반을 다지려 했다. 그리고 보니 기업의 外債는 해마다 누적되어 왔으며 게다가 국내 물가상승으로 환율인상(변동환율제)에 따른 외채상환 부담은 더욱 커졌다. 79년말 외채잔액이 200억불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육성과 수출신장을 위해 조세 금융지원정책과 더불어 자금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 전

반에 걸쳐 물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 경제생활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누적되어 온 외채의 상환부담을 우려한 나머지 환율을 일

정수준에 묶어 버린 것이다. <表 5>에서 보면 1973년까지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계속적으로 환율이 인상되어 오다가 1974년 12월 7일부터 환율이 484원으로 고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었다.

<表 5> 원貨의 對美 달러 換率

연	도	한국은행 집중기준율	연	도	한국은행 집중기준율
1968		281.50	1973		397.50
1969		304.45	1974)	484.00
1970		316.65	1979		
1971		373.30	1980. 1. 12		
1972		398.90			

(자료) : 한국 통계연감 1979. (경제기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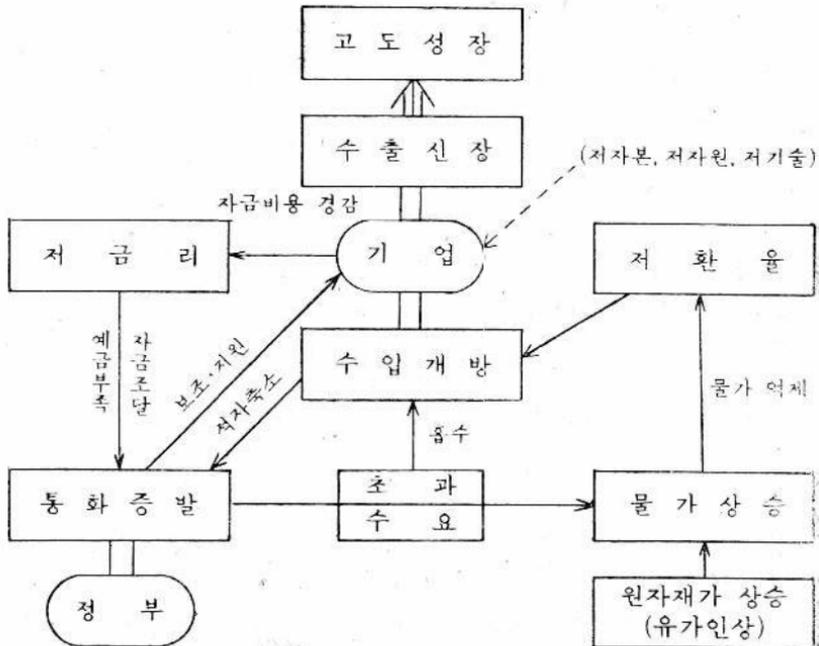
<表 6> 貿易 추세 단위 : 100만弗

연	도	수	출	수	입	무	역	수	지
1965		175.1		463.4		-	288.3		
1970		835.2		1,984.0		-	1,148.8		
1975		5,081.0		7,274.4		-	2,193.4		
1976		7,715.1		8,773.6		-	1,058.5		
1977		10,046.5		10,810.5		-	764.0		
1978		12,710.6		14,971.9		-	2,261.3		
1979	상반기	(6,772.0)		(9,647.0)		(-)	2,875.0		

(자료) : 경제통계연보 1979. (한국은행)

이렇듯 저환율로 유지시킨다는 것은 달러에 비해 원貨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수출은 억제되는 반면 수입은 증대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서 점차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언제나 무역적자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表 6>참조). 수입을 증대시키는 또 하나의 측면은 통화증발에 의한 초과수요를 상쇄시키기 위해 국내 초과수요를 해외수입에 의한 수요에 충당하려 했던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환율은 더욱 요구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의 여러 부문들을 각각 부문에 따라 원인-결과 관계로 분석해 보았다. 이제 좀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경제의 運用이 얼마나 연쇄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경제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으로 어떠한 효과를 고려하여 수행되어져 왔나를 <圖 1>을 통하여 살펴봄이 좋을 듯하다. 우선 우리의 기본 명제는 低資本, 低資源, 低技術의 여건 속에서 고도성장을 국제무역을 통해서 특히, 수출신장을 통해서 이룩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생산을 담당하는



<圖 1>

기업측에서는 이윤이 보장되면서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시 이자율이 낮아야 한다. 그러나 예금부족으로 인해 자금조달을 차관이나 통화증발에 호소해서 기업에게 보조 지원을 해주게 된다. 그러나 통화증발은 초과수요를 유발시켜 물가불상 상승시킬 뿐 아니라 수입의 증대를 불러 일으킨다. 유가인상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세되어 물가는 더욱 상승되고 이에 대한 억제책으로 통화를 흡수시키고 추가적 물가상승의 억제와 외채의 상환부담의 경감을 위해 환율을 낮추게 된다. 이러한 저환율은 역시 수입을 증대시키며 이 수입증대는 초과수요의 해소책으로서의 수입개방에 의한 수입증대와 더불어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밖에 없고 적자 만회를 위해 똑같은 방법으로 통화증발에 의한 기업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통화증발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이른바 순환적 악성인플레이션이 해소될 길이 없다는 상황이 현재까지의 경제적 현실이라 볼 수 있겠다.

2. 1·12조치와 유가상승

제1절에서는 70년대말까지 한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취해진 경제정책과 그 파급효과를 개략적이거나 분석해 보았다. 그러면 올해에 들어와서 왜 갑작스

럽게 충격적인 경제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는가를 알아보자.

다시 <圖 1>을 보자. 기업의 금융부채의 부담을 줄이고 자금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저금리를 취했던 것이 예금부족현상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통화증발을 통해서 기업에게 보조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통화증발은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물가상승을 초래했다. 따라서 물가 억제책으로서 환율을 낮게 고정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 수입증대—적자누적으로 연결이 된다. 악화되는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시 기업에 보조 지원하게 된다. 그리하여 저금리와 저환율의 본래의 의도는 수출진장과 증대되는 물가상승의 억제라는 양면정책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적자누적과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의 급등이 저금리 저환율정책을 무색하게 한 뿐 아니라 오히려 악성인플레이션으로 취약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버렸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이상 저금리와 저환율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의존해서는 안 되게 되었다. 주요 경쟁대상국의 물가추이 등을 고려해서 원화의 환율실세는 달러당 570원~580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세에 맞는 환율로 인상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금리로

인한 저축부족 현상은 시중에서 이득이 높은 자금용의 비대를 수반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중부동자금을 흡수하고 통화증발없이 자금조달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환율은 달러당 484원에서 580원으로, 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율 기준으로 연 18.6%에서 24%로 각각 인상 조정되었다.

이러한 인상조치의 의도는 환율을 실세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외화의 국내 구매력을 높이어 수출을 증대시키고 수입을 억제하려는 것이며 금리를 인상시킴으로써 시중부동자금을 은행으로 끌어들이고 통화증발없이 자금동원이 가능하게 하며 투자 수요의 억제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반면 우리 경제에 불리한 영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80년의 원리금 상환예정액이 약 56억달러로 추정되는데 환율인상으로 생기는 올해의 원리금 상환추가 부담액은 5376억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6억불 \times (580 - 484)) = (5,376억 원)$. 그리고 환율 인상이 수출증대 수입억제 효과를 낸다 하지만 근래 외국이 불황에 처해 있으므로 수출이 잘 될지도 의문이며 수입에서도 소비재 수입은 억제할 수 있으나 원자재 수입은 감소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자금

비용 상승과 나중에 보겠지만 유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극계수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금리인상으로 자금용을 은행으로 끌어들이려 해도 상당한 수익성을 내게 하는 부동산 투기 등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면 기대한 예금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도 역시 미지수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유가 상승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表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우더」의 경우 울들어 배럴당 26달러까지 원유가를 인상시켰다.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못한 채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강제적인 물가 상승의 피해를 당해야 했다. 더구나 1·12조치로 인해 국내 유가는 (원유가 인상+환율인상+금리인상+세금)만큼 상승하여 더욱 물가를 압박하게 하였다.

3. 경제적 대책과 국민적 자세

경제적 난국을 극복해 보려는 일련의 조치도 경제 구조의 취약성으로 곤란을 받게 되었고 또한 외생적 유가상승이 가세되어 물가가 폭등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이 심한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팽배하여 국민 정신건강도 해를 입게 되었다.

이제 문제는 환율 금리인상과 유가상승이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상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첫째로,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아무리 금리를 인상시킨다 해도 비생산적 투기 기회가 상존한다면 시중의 부동자금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기할 기회를 박탈한다면 자동적으로 은행으로 부동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화폐증발 없이 생산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정부는 통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물가 시대에 늘어나는 실업대책으로서 노동집약도가 높은 업종에 적극 지원하여 실업을 예방하는 것이다. 셋째, 일반 가계생활이 되도록 이면 안정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소비제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생활필수품 생산업종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생필

품 가격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정부는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영세민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 못지 않게 기업과 가계의 자세문제도 또한 중요하다. 기업은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와 심리적 작용에 의한 추가적 가격인상을 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경영을 합리화하여 원가 상승요인이 되는 기타 경비도 절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 가계는 합리적으로 소비를 절약해야 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은행을 이용한 가계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은행자금을 풍부히 하여 통화증발을 불필요하게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민들도 경제난국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고 정부의 경제대책과 국민의 적극적 호응, 이 모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

×

自然保護의 必要性과 그 指標

護는 必要한 것이다.

보다 풍요하고 안락하며 쾌적한 삶을 위하여 自然保

自然의 破壞는 곧 人間の 破壞라는 事實과 우리의

申 裕 恒

〈農博·慶熙大 生物學教授〉



1978년 10월 5일에 전국 6만여직장, 단체, 학교에서 자연보호회가 조직되고 정부의 강력한 후원으로 역사적인 자연보호현장이 선포된지 만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각 직장, 단체, 학교 등에서는 향토의 자연보호를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읍니다마는 아직 실천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충분한 계몽과 이해가 부족하여 쉬는 날에 유원지에서 버린 휴지나 비닐봉지, 빈병 따위를 줍거나 진귀한 새들을 잡지 않는 것 등이 자연보호인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신문이나 TV에 자연보호운동을 하는 장면에는 으레 자연보호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휴지나 빈병을 줍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도 자연보호사업의 일부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연보호란 무엇인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망설여 집니다. 자연보호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영어의 「Preservation」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사람의 손을 전혀 가하지 않고 그대로 문화유산적으로 보존하고 또 사람의 손이 가하여 지지 않는 자연에서 학술연구 등에 이용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onservation」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속에서 산업이나

수자원확보, 여가선용 등 공익적인 효용을 포함하여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일의 자원도 확보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생활에도 자원을 활용하여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자연의 유지를 위하여 사람의 손이 필연적으로 가하여 지며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쳐서 자연이 보전될 수가 있습니다. 양자는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평행하여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나, 광역적인 시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는 「Conservation」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자연보호라는 말의 뜻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자연을 손상함이 없이 자연의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간직하면서 인류생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자연을 유지 또는 관리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뜻에서의 자연보호는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리 또는 동식물을 포함하는 자연경관구역의 보호」라 할 수 있고 넓은 뜻의 자연보호는 물, 토양, 대기 등 무기적 환경의 보호도 포함됩니다. 후자는 점차 환경보전이라는 말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곳곳에서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라는 표어가 쓰여진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자연보호의 본질을 적절하게 잘 표현한 표어로

서 사람도 자연 속의 생물의 한 종류이므로 자연이 멸망할 때에는 사람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식물—동물—미생물이라고 하는 생태계의 구성 속에서 식물이 없어도, 미생물이 없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와 같은 인간우위의 생각 즉, 인간은 자연의 밖에서 자연을 자유로이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부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연보호사상은 어제 오늘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런 사상의 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자연보호라는 말의 어감과 오늘의 자연보호라는 말의 어감의 농도가 다른 뿐입니다. 지금은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실정을 살펴 봅시다. 과거 10여년간 우리 국민은 남들처럼 잘 살아 보겠다는 신앙과 같은 국민적인 어망 속에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길을 뚫고 다리를 놓고 댐을 만들고 공장을 짓고 빌딩을 세우고 농토를 넓혀 왔습니다. 나라 모습이 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졌고 생활하기가 편하여졌고 물질적으로 다소 중요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길을 뚫기 위하여 산을 깎아야 했고 기름진

망을 메웠고 산림을 벌채하였으므로 녹지대가 줄어 야생 조수들이 삼의 터전을 잃고 깊은 산 속으로 밀리어 갔습니다. 댐을 건설하다 보니 물 속에서 살던 수서(水棲)생물이 죽어 갔고 수생식물상이 달라졌습니다. 공장용 지하수 공장폐수가 하천과 강물, 바다로 흘러들어가 탐았던 강물빛을 흐리게 하였고 기형물고기가 생기고 심하면 폐죽음을 당하였으며 오염물질을 먹은 물새들이 번식이 어려워졌고 희생되었습니다. 김 양식장과 굴 양식장을 더럽혀 어민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식수원마저 찾기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굴쪽에서 나오는 배연은 맑은 공기를 흐리게 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오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고 산림을 해쳤습니다. 도시화되다보니 녹지대는 고층빌딩과 주택으로 메워졌고 도시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졌고 쓰레기 처리장에는 각종 악취와 위생해충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하천을 더럽히고 물속 생물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도시의 아름다운 가로수들을 시들게 하였습니다. 농작물 수확을 억제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뿌린 농약은 하천을 오염시켜 민물고기는 물론,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물고기나 패류몸

속에 잔류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목초를 먹은 짐소의 우유 속에서 농약성분이 함유됨은 물론 각종 식품을 오염시켰습니다.

우리의 자연은 시시각각으로 가속적으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맑은 면도 많습니다만은 반면 어두운 면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런 어두운 면의 심각성은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렵고 일반 국민들은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야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무엇이든지 태우고 강에 버리면 자연은 그것을 정화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태우고 버리는 물건이 전과는 달라서 양적으로 엄청난 뿐만 아니라 인공물질이므로 자연은 분해하고 정화할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대로 방치해 두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자연보호의 반대말은 자연파괴입니다. 누가 지금 「자연을 파괴합니다」라고 외친다면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하고 건설하다 보니 자연은 어쩔 수 없이 파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화, 공업화에 따르는 자연의 파괴와 환경의 오염은 예측되어 온 일이며 우리나라에서만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진 공업국들은 자연파괴나 환경오염에서도 선진인 것입니다. 그들 나라에서도 「매

연으로 흥한 나라 매년으로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공업화의 상징처럼 우뚝 솟은 굴뚝은 잘 처리하지 않으면 화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선진공업국들은 지금 환경오염이 야생동식물은 물론 사람에게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경험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4대 공해사건이라 하여 「미나마타」병사건, 「사일시(四日市)」천식사건, 「이따이이따이」병사건 그리고 아하야천(阿賀野川)유기수은중독사건 등으로 한때 들끓었고 큰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미나마타」병을 예로 들면 일본 「구주」에 있는 「미나마타」는 해안어촌입니다. 이 「미나마타」해안의 공장에서 매일 많은 양의 공장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고장 어부들은 어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근해에서 물고기를 잡아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나마타」에 사는 어민들가운데서 기형아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갖지 않고 있다가 차츰 여러세대에서 기형아가 태어나고 어른들 머리가 빠지는 등 심상치 않은 일들이 생겨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공장 폐수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은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데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장은 문을 닫

게 되고 보상문제로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전세계에서 학자들이 수은이 섞인 폐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가를 알려고 밀려왔습니다. 선진국 일본의 치부가 드러나고 공해선진국이라는 오명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야생조수류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에 전에 있던 호랑이는 우리민족과 더불어 오랫동안 친숙하게 지내온 동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림속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고, 대륙사슴도 큰곰(불곰)도 남한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아름다운 새인 원앙이 사촌도 1916년 12월 부산 부근 낙동강 하류에서 암컷 한 마리가 잡힌 것을 마지막으로 영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는 조류는 20여종에 이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두루미, 딱오기, 너와, 뽕쇠오리, 크낙새 등입니다. 이들 새들은 우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호하지 않으면 멸종하게 됩니다. 크낙새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 새는 극동, 특히 대마도와 한국에 분포하고 있던 것이 대마도에서는 이미 절멸(絶滅)하여 없어졌고 한국에 소수만이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우거진 숲 속에서 나무속의 벌레나 나무껍질에 있는 나무좀과 같은 곤충을 잡아먹고 삽니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는 거대한 수목을 벌채하여

버리면 이 새는 숲과 더불어 멸종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수렵을 금지하였다고 해서 새가 붙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새가 사는 서식환경의 보호가 함께 따라야 합니다. 이런 예는 따오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오기는 1890년에는 일본 「혼슈」에서 사라졌고 소련과 「우스리」지방에서 1940년을 최후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958년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지금은 일본 사드섬에 6마리, 한국에 소수 야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일본 「혼슈」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논에서 먹이를 찾아 먹던 것이 논에 뿌린 유기인계의 농약에 중독되어 산란하여도 알이 부화되지 않고 모체도 중독에 의하여 죽어간 것입니다. 야생조수류의 보호에 있어서 서식지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환경오염의 현황과 사라져 갔거나 사라져 가고 있는 야생조수류의 실태를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선진공업국들은 지금 심한 환경오염에서 벗어나려고 그들의 축적된 부와 기술을 동원하여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영국 「텔즈」강입니다. 이 강은 50년대 후반에 들어 산업쓰레기 때문에 한 때 그

토록 많은 야생생물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강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강을 되살려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런던」항 운영위원회와 「런던」시의회에 의한 폐수처리시설 개선노력으로 63년에 적은 수의 물고기가 되돌아오더니 10년 후인 74년에는 73종의 물고기들이 되돌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보호 노력이 성공한 좋은 보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들 선진공업국들에 걸어온 길을 어리석게도 되풀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서둘러 국토를 개발하고 건설하다 보니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 빠르게 우리 피부에 와 닿은 것입니다. 자연의 파괴가 인간의 파괴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우리 나라라고 하여 일본에서와 같은 「미나마타」병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이상 더 환경오염과 무모한 자연의 파괴를 방지해 둘 수 없다는데서 자연보호의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다 풍요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삶을 이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자연보호에 관과 민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는 환경청이 새로 생겨 활동을 시작하였고, 보도기관에서도 매일과 같이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몽하고 또 자발적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을 보호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자기와 이해관계가 엉키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폐수시설을 해 놓고도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밤중에 주위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폐수를 강물에 버려 고발당한 기사를 보았고 연일 그와 유사한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의 모호텔 사장 등이 기동력까지 갖추고 야음을 이용하여 밀렵을 해오다 적발당한 보도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물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환경오염을 막자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모르는 것 같고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앞을 못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나라 야생조수가 특정인의 취미와 건강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생조수가 자연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모르는 무지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주말에 유원지에서 자연보호라는 완장을 두르고 버려진 오물을 줍으며 나도 자연보호에 이바지하였다고 하려는지 모릅니다. 이 분들은 폐수 정화시설을 성실히 가동하는 것이 야생조수를 남획 안 하는 것이 최선의 자연보호의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자연보호의 첫 걸음인 자연정화에 힘써 왔습니다. 전보다 많이 정화되었으나 아직도 버리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법한 이런 적은 일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물며 전국에 퍼져 있는 공장의 폐수와 매연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게 합니다. 죽어가는 한강을 살리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처럼 생각하고 국민적 결심과 단합만 있다면 「넵즈」강에서와 같이 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구호보다 실천할 때입니다.

길은 하나 뿐입니다. 좁은 국토에 과밀한 인구에 의한 생산활동과 자연의 건전한 환경조절 기능과를 공존시켜 나가기 위하여서는 일체의 부용한 자연 파괴를 멈춤과 동시에 불필요한 야생조수의 살생을 금지하고 그들의 서식환경을 보호하며 아무리 좁은 땅일지라도 쓰지 않아도 될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공원녹지와 같은 유사자연을 만들고 농촌이라든가 들새들의 보금자리를 위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잡목을 심어 될 수 있는대로 본래의 모습에 가까운 자연을 부활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北傀의民族史捏造

- 오늘 우리 疆土의 北半을 强占하고 있는 共產.....
-主義者들은 그들의 黨의 目的을 絶對要件으로.....
-하여 歷史事象의 解釋을 唯物史觀의 歷史理論에.....
-두들겨 맞추기 위해 우리 民族史를 너무도 荒唐.....
-하게 歪曲 變造하고 있다. 이에 本欄에서는 北.....
-韓共產集團의 우리 民族史 捏造實相을 소개하는.....
-章으로 마련 연재한다.

편 집 실

1948年 北韓共產政權이 成立되던 당시 부터 1950年 그들의 南侵으로 일어난 戰爭이 休戰되던 1953年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이 標榜하고 있던 共產主義理念에 대한 理解나 唯物史觀의 歷史理解體系는 宣傳의 水準을 넘지 못하는 극히 素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一般國民에게 줄 수 있는 思想的 影響力이란 것도 微微한 것이었다. 이 時期의 北韓 共產集團內에 있어서 唯物史觀에 立脚한 韓國史研究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進行되고 있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당시 史學者가 많지 않았던 北韓에 있어서는 소 聯에서 나온 唯物史觀世界史教程이나 이에 맞추어 만들어진 朝鮮史 教本類가 있지 않았는가 한다.

이와 같이 史學者가 없었던 北韓社會에 1948年과 1950年을 전후하여 南韓에서 東洋史專攻의 金日出, 李能植 등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史學者가 越北하였으니 당시에 越北한 韓國史專攻史學者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白南雲(古代, 高麗), 都宥浩(考古學), 全錫淡(李朝後期經濟史), 金錫亨(李朝前期經濟史), 朴時亨(李朝前期經濟史), 朴文圭(日帝時代經濟史), 金漢周(日帝時代經濟史), 韓興洙(考古學), 金鎔俊(美術史), △ 洪憲裕(李朝後期經濟史), △ 林建相(古代史), △ 金世翊(李朝前期經濟史), △ 鄭燦英(李朝後期經濟史), △ 金思億(李朝後期實學), (線을 친 것은 死亡者, △표는 越北 당시 大學을 갓 卒業한

新進들로서 現在 中堅의 位置에 있음. 韓興洙, 金鎔俊은 肅淸된 것으로 推測됨).

이들이 그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北學史學을 움직이는 中堅位置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하는 점이 있다. 南韓에 있어서 文獻考證史學者 對 社會經濟史學者의 區別은 단지 史觀의 差異 뿐만 아니라 新·舊의 世代, 新舊傾向의 差異의 意味를 가지는데 이와같은 新世代의 越北으로 말미암아 南韓에서 받는 損失은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그 다음 이들은 南韓史學의 動向과 長短點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으로 이 점이 그들이 새로운 世代라는 점과 함께 南北의 競争에 있어서 그들이 有利한 것으로 看做될 수도 있다. 그 다음 그들이 南韓에서 訓練을 받았다고 하나 文獻資料 取扱에 있어서 獨斷的이고 主觀的인 解釋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北韓에서의 韓國史의 本格的인 研究는 前後의 事情으로 보아 1952년 12월에 設立된 「科學院」에 考古學·民俗學研究所와 歷史學研究所, 經濟學研究所 등이 設置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1953年 이후 文化遺産(뒤에 考古·民俗으로 改稱됨)과 「歷史科學」 등의 學術雜誌와 「遺蹟調查報告」 등이 계속하여 刊行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뒤인 1956年 3月에는 조선통사(總五三六面)가 科學院 歷史研究所刊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때 이 執筆은 古代에 林建相, 高麗初期에 金德중(京城帝大出身), 高麗中葉以後 李朝初期는 金錫亨, 朝鮮中期와 壬辰亂까지를 朴時亨, 丙子胡亂後 19世紀 前半期까지를 全錫淡이 擔當하였다.

이 冊의 章節의 題目이 보다 近代的으로 되었다는 것이 눈에 띄나 韓國史의 敘術體系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基本的으로는 王朝史의 時代區分에 그대로 따르면서 社會經濟史의 認識內容을 敘術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韓國史에 對한 體系의 認識의 水準도 낮은 것이었고, 그들이 試圖한 社會經濟史의 說明의 內容도 貧弱한 것이어서 이렇다 할만한 學的價値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의 原因은 編纂時 時代區分의 論爭이 있는 듯하고 奴隸制社會의 缺如論을 主張하는 金錫亨, 朴時亨 등의 意見에 쫓는 編纂體制에 따르게 되고 古代가 그만큼 浮刻될 수 없었던데서 오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根本的인 原因은 그들의 學問的 業績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 뒤 北韓史學에 있어서 近代關係研究의 分量이 늘어나는 동시에 考古學의 發掘과 調査가 進行되어 韓國史에 있어서의 靑銅器時代의 存在를 確認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靑銅器文化를 基盤으로 하여 성립하였던 古朝鮮과 扶餘, 辰등을 古代社會라 하고 三國時代 초기부터 封建國家로 보는 妥協의 調整이 억지라도 성립되었다.

이리하여 오래동안 論爭을 계속하던 時代區分問題가 一段落되어 그 調整된 時代區分에 의해서 全面的으로 고쳐 써서 1962年 5月 출판한 것이 叢刊「조선통사上」이었다.

여기에 동원된 學者는 叢刊의 執筆者이었던 金錫亨, 朴時亨, 林建相 3人과 새로 등장한 金勇간(考古學), 리지린(考古學), 蔡熙國(三國時代), 朴문원(美術史), 리용중(高麗時代 初期), 洪憲裕(朝鮮時代 初期), 金世翊(朝鮮時代 中期), 장국중(壬亂以後社會), 金思億(實學과 19世紀前半期), 손영중(實學과 19世紀前半期), 리종호(19世紀前半期), 鄭鎮石(思想史), 김교식(19世紀前半期) 등이 있다.

南韓에서 震懷學會編으로 刊行된 「韓國史」를 意識하고 出版된 이 著術이 內容에 대한 評價는 뒤에 時代別로 따로 할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專門分野別, 執筆者數의 증가는(그 學의 內容의 水準을 別問題로 하면) 그동안 北韓史學이 상당한 정도로 發展을 본 것을 意味한다. 이에 뒤이어 1966년에는 「朝鮮文化史」를 내었으니 그들이 政策的으로 日本에서도 번

역하여 出版하게 한 이 「朝鮮文化史」는 大分히 宣傳의 性格을 띠는 것으로 唯物史觀의 立場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또 그 內容의 學의 水準이 높다고 할 수 없어 叢刊「조선통사의 文化叙術部分」을 보다 擴大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留意할 것은 이 叢書執筆에 動員된 各分野別 學者數는 叢刊「조선통사」 때보다 더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아마 金日成大學과 科學院 考古學·民俗學研究所와 歷史研究所에서 양성된 新進들이라 생각된다.

이제 그동안 續刊되어 온 「歷史科學」, 「考古·民俗」이나 「遺蹟, 調查報告」의 에 나오는 主要單行本을 들면 다음과 같다.

朱榮憲 高句麗壁畫무덤의 編年에 관한 研究(1961)

朱榮憲 美川王陵(1965)

朱榮憲 渤海文化(1971)

考古學研所編 高句麗文化(1975)

歷史科學論文集 三國時代의 社會構成에 관한 討論集(1956)

歷史科學論文集 朝鮮 古代諸國家의 領域과 古代社會의 性格(1971)

林建相 朝鮮部曲制에 관한 研究(1963)

金錫亨 初期 朝日關係 研究(1966)

鄭鎮石, 鄭聖哲, 金昌元 共著 朝鮮哲學史(1960)

全錫淡 朝鮮經濟史(1949)

朴時亨 朝鮮土地制度史(1960)

金錫亨 朝鮮封建時代 農民階級構成(1957)

科學院編 金玉均(1964)

科學院編 우리나라 封建末期의 經濟狀態(1963)

科學院編 朝鮮에 있어서의 不肖亞民族의 形成에 관한 討論集(1957)

朝鮮歷史 編纂委員會刊 朝鮮民族解放鬪爭史(1949)

科學院 歷史研究所編 朝鮮解放鬪爭史(1961)

金熙一 아메리카帝國主義의 朝鮮侵略史(1960)

30年間に 이루어진 이 研究의 分量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研究에서 얻어지는 結果가 多樣한 것도 아니다. 南韓에서는 研究될 수 없는 分野, 이룰데면 北韓考古學이라든가 南韓에서는 별로 注力하지 않는 經濟史 分野가 開拓된 것이 있어 相對的 價値가 認定되는 것이 있으나 알고 보면 그學의 內容이나 水準이 資料紹介의 以上에 이른 것이 많지 않다. 傳聞에 의하건대 考古學者 韓興洙와 美術史家 金鎔俊 등은 肅清되었다 한다.

肅清되지 않는 限界 안에서의 研究는 저절로 學問的 限界性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研究業績들 중에 大部分은 勞動黨 第4次大會의 中央委員會事業總括報告(1961年 9月) 가운데서 「黨의 路線과

政策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으로 깊이 研究하고 解說 宣傳하지 않으면 안 되고 黨의 革命과 民族文化遺産을 全面的으로 研究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金日成의 指示를 따른 것으로 그들의 社會路線에서 오는 基本的인 制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各 研究業績들은 各己의 特色과 個性을 가지지 못하고 千遍一律의인 方法論의 되풀이이고 金日成獨裁路線에 대한 迎合이었다. 다만 한 가지 留意할 것은 休戰協定以後 그들의 主體性強調과 民族意識強調政策에 따라 나온 것들 중에 無視할 수 없는 業績들이 있다. 이러한 것은 南韓에서도 解放後에 應當 研究되어야 할 것이나 文獻考證學의 限界性 때문에 拋棄되었던 分野를 開拓한 業績(金錫亨의 「初期朝日關係의 研究」 같은 것)이 있으니 우리는 唯物史觀과는 關係가 없는 이러한 研究들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研究業績을 程度 이상으로 宣傳하여 그들의 歷史意識을 더욱더 偏狹하게 만들 뿐더러 南韓에 있어서의 韓國史 研究의 大義名分을 喪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社會經濟史 分野에서도 심지어는 思想史 分野에서도 어떤 것은 南韓學界에서도 研究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손을 대어 첫 整理를 하였다

는 結果에 이르렀고 그러한 까닭으로 그 研究들은 상당기간 初步의인 段階에 있어서는 宣傳의 價値뿐만 아니라 學의 價値의 영향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러한 狀況을 社會經濟史는 唯物史觀의 立場에서만 可能하다고 믿은 文獻考證史學의 學風, 文獻考證史學의 貧困性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反省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한 두 가지 例外를 除外하면 大概가 그들의 모든 文化活動에서 나타나고 있는 唯物史觀의 公式適用的 理解라는 限界性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그 限界性 때문에 장차의 北韓史學의 研究가 量的으로는 增加할 수 있을 것이나 學問의 水準은 이 以上 發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北韓史學의 限界性이 그대로 南韓史學의 長點이 되든가 南韓史學의 優位를 保障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狀況을 明確히 認識하여야 한다. 그 理由는 첫째로 歷史認識水準을 높이는 것이 對外關係의 解決策으로서만 必要的인 것이 아니라 對內的인 問題—보다 基本的인 問題들의 解決을 위해서 필요한 까닭이다. 앞으로 南韓史學이 그 哲學的 貧困性 때문에 民族文化의 基本方向을 把握하지 못한다면 北韓史學이 아무리 水準이 낮더라도 우리에게 더 큰 影響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들켜로는 北韓의 史學이 時代 錯誤의인, 스탈린 時代의 蘇聯史學이나 模倣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蘇聯史學이나 中共史學을 그들의 背景的인 힘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北韓의 唯物史觀의 歷史理解와 對決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中共의인 文化意識, 蘇聯의인 文化意識이나 歷史意識과 對決해야 할 運命에 처해 있는 것이다.

唯物史觀과 時代區分論

마르크스 및 그의 同調者들이 체계화한 歷史方法論을 흔히 唯物史觀이라고 부른다.

唯物史觀은 唯物論과 辯證法을 哲學的 基盤으로 하고 剩餘價値說과 階級투쟁을 人間關係 내지는 社會關係의 기본요인으로 파악하며, 生産力과 生産關係를 社會發展의 原動力으로 이해한다. 唯物史觀은 資本主義社會의 모순이 첨예화되었던 18세기말 19세기초의 歷史경험을 토대로 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하나의 時代의 產物이라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民族國家의 경험을 갖지 못한 西洋 우월주의자의 한 사람이다. 그가 체계화한 唯物史觀은 그의 제한된 역사경험과 歷史知識 위에서 구축되었다는 것을 먼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가 物質과 生産力을 극도로 중요시하고 階級

鬭爭을 注目한 것도 그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에서 오는 偏見에 지나지 않는다.

歷史에는 轉換期이 있고 安定期이 있다. 轉換期에는 전환기에 합당한 社會法則이 있으며, 安定期에는 안정기에 맞는 社會法則이 있는 법이다. 唯物史觀의 근본적인 오류는 모든 歷史를 전환기로 이해하고 전환기의 社會法則을 안정기의 사회법칙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점에 있다. 西歐資本主義社會가 20세기 이후로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唯物史觀의 오류에 대한 비판이 드높아지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安定期的 歷史경험을 가진 Max Weber는 투쟁보다 협동이, 물질보다 가치 이념이, 때로는 사회를 주동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체득하였고, 여기에서 유물사관을 극복하는 價値中立의이며, 多元論的인 社會科學 이론을 창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唯物史觀이 이데올로기로서의 위선을 가졌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항가리출신의 社會學者 Karl Mannheim은 유물사관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唯物史觀 그 자체에 적용하여 유물사관도 하나의 위선적인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료하게 갈파하였다.

社會科學 方法論으로서의 유물사관의 오류는 西洋의 석학들에 의해서 이미 명쾌하게 비판, 극복되었거니와 유물사관에 기초한 이론바 人類歷史의 보편적 발

전 법칙이라는 것도 그 실증적 근거가 박약하다는 것이 서양의 實證主義史家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다.

마르크스가 <資本論>에서 밝힌 古代奴隸制, 中世封建制, 近代資本制社會說은 유럽이라는 제한된 지역을 놓고 볼 때에는 일정한 근거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럽 외의 다른 지역이나 특수한 민족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위의 발전도식이 실증적 근거를 잃고 만다. 예를 들면, 古代 노예제라는 것은 古代地中海世界, 즉 그리스·로마·이집트 등에서는 전형적으로 발달하였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뚜렷한 형태는 찾기 어려우며, 중세봉건제라는 것은 게르만民族 이동 이후의 서유럽에서는 뚜렷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다.

近代資本제도 북부유럽에서 특징적으로 발전하였고, 여타의 地域에서는 마르크스가 분석한 것과 같은 전형적 형태를 갖춘 資本主義가 성립되지는 않았다. Marx가 경험한 것은 주로 영국의 자본주의였다.

말하자면 Marx의 발전도식은 주로 유럽 각지역에서 특수한 시기에 특수한 형태로 발전한 사회체제를 하나의 체계속에 연결시켜 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주로 사회전환기의 현상을 특징적으로 과장해 놓은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西洋歷史 서술에도 불완전한 한계를 드러내는 발전도식을 역사경험이 각각 다른 인류의 모든 역사에 연역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가를 알 것이다.

더우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東아시아 삼국은 고대로부터 독립된 문화권을 성립시키고, 역사무대를 크게 변동하지 않으면서 민족단위로 살아온 독특한 역사경험을 가지고 있다. 서양인이 민족적 갈등보다 계급적 갈등을 더 많이 체험하였다면 동아시아인은 계급갈등보다 민족적 갈등을 더 많이 체험한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대개 同一民族 내부에서 조정되는 계급이나 신분은 민족구성이 복잡한 사회에서 조성되는 신분이나 계급에 비하여 융통성과 포용성을 가지게 마련이다. 東아시아사회에 있어서의 계급제도나 신분제도가 상대적으로 포용성을 많이 지니는 이유의 하나는 여기에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농업사회에 있어서는 생산활동한 협동이 중요한 까닭에 상업사회에 있어서처럼 개인이나 계급집단의 경쟁에 치중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서양문화가 일반적으로 상업문화의 패권을 강하게 지녀왔다면, 동양문화는 반대로 농업문화의 전통이 우세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서문화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무시하고 서양문화와 서양사회를 이해하는 기준을 가지고 동양문화, 한국문화를 도식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크게 해치는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한국사 인식기준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들의 정책기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기시기마다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직후에는 소련에 깊이 傾倒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의 명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한국사 이해의 기준을 세웠다.

그러다가 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소 분쟁이 격화되자 중립적인 외교노선을 채택하면서 이른바 주체사상을 표방하게 되고, 이 주체사상이 다시 김일성 것사화운동 및 김정일 후계 승습을 위한 김일성일가의 족벌체제 강화운동과 연결되면서 유일사상으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외정책의 변동에 대응하여 나타난 역사서술상의 변화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자막대기>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의 이른바 주체사상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역사해석이란 교조주의와 도식주의를 배격하고, 「조선」의 문제는 조

선]의 현실과 실정에 맞게 풀어가며, 사람을 모든 것의 주인이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다시 말하자면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 그리고 인간중심사상이 주체사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주체사상을 액면대로 한다면, 그들이 그동안 의존해온 바 唯物史觀의 한계성과 오류를 시정하는 큰 계기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주체사상의 기치 아래 새로이 쓴 역사서술의 내용을 검토해 본다면 그것은 김일성과 일가의 특별체제를 강화하고 김일성 우상화운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사를 더 한층 변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주성과 창조성 그리고 인간중심이라는 아름다운 구호는 우리민족 전체의 입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역사를 한 사람의 구미에 맞게 변조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내외 정책의 변동에 대응하여 역사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시대구분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특히 시대구분과 관련하여 朝鮮王朝=封建社會說의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북한 歷史學界에서 時代區分論爭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50年代 후반부터이며,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다가 1962年 版〈朝鮮通史〉에서는 古朝鮮에서 夫餘,

辰國까지를 노예제사회로, 삼국이후부터를 봉건제사회로, 朝鮮王朝後期를 자본주의로의 이행기로 보는 견해가 정설로 결정되었다.

시대구분이란 각시대의 사회성격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인만큼, 각 시기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축적시켜야 하고, 또 유물사관을 적용할 경우라 하더라도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사회의 기본법칙 내지는 기본특성이 무엇인가를 개념상으로 확실하게 정의한 다음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Marx, Lenin, Stalin이 안이하게 규정한 개념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실증적 연구축적도 지극히 빈약한 토대 위에서 단숨에 5,000년 역사의 시대구분을 설정하고 말았다.

그들이 진지한 학문적 검토를 무시한 채 시대구분을 서두른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자본주의는 봉건제사회를, 봉건제사회는 노예제사회를 각각 전제로 해서 성립한다고 믿는 까닭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와 같은 시대구분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社會主義의 도래를 역사적 필연성에 의해서 정당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구분은 이미 연구이전

에 예정된 결론인 셈이며, 다만 각 시대를 어느 시기에서 자르느냐가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그 자르는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여 그들 나름대로 학문적 수속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상당기간 논쟁을 되풀이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시대구분을 시두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들 나름의 주체성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韓國史의 停滯性 이론이라든가, 또 日人들의 시대구분이 시대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서 한국사의 낙후성을 암암리에 드러내려는 경향에 대한 반발이 크게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식민지사관을 비판하고, 또 日本學者의 영향을 받고 蘇聯에서의 한국사 서술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北韓史學이 정설로 굳힌 시대구분은 그 학술적 타당성은 일단 제쳐두고 생각할 때, 지금까지 시도된 어떤 시대구분보다도 한국사를 가장 발전적으로 체계화한 것만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日人學者가 고려말·조선시대부터를 봉건사회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와 비교해 본다면, 三國時代 封建社會論은 약 1천년 이상을 앞당긴 것이 되고, 西歐에서 4~5세기에 封建社會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약간 앞섰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공이 봉건사회의 시발을 西周로 보는 견해와 비교한다면 우리가 훨씬 뒤늦은 것이 되지만, 12~13세기부터 봉건사회로 보는 일본사의 경우보다는 1천년 정도 훨씬 앞선 것이 된다.

그 다음, 개항 이전의 朝鮮後期社會를 封建制社會에서 近代資本制社會로 넘어가는 이행기로 설정하고 몇 가지 부문에서 자본주의의 <前提條件> 또는 <要素>를 발견함으로써 일본에 의해서 비로소 근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가 스스로 근대를 준비해 가고 있었다는 주장울 낼 수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학자들은 이와 같은 시대구분을 통해서 식민지사관을 극복하고 우리 역사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재구성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성급한 시대구분이 옳은 것보다도 옳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이러한 시대구분이 학술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지 못하여 설득력이 부족한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를 낙후된 역사로 새롭게 왜곡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삼국시대부터 조선왕조말기에 이르는 시대는 민족문화의 근간이 확립되던 시기이며, 2,000년이나 계속된 전시대물

봉건사회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세계역사상 봉건사회를 가장 오래 체험한 낙후된 민족의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에 나타났다는 소위 자본주의적 <要素>와 <前提條件>은 문자 그대로 <요소>와 <전제조건>일 뿐,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서양은 이미 이 시기에 산업혁명단계에 들어갔고, 東 아시아 삼국중에서도 자본주의적 요소는 중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그들 자신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봉건사회 뿐이다. 봉건사회가 빨리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찾기에 는 급급한 나머지 삼국에서 신라, 신라에서 고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발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

唯物史觀의 발전도식을 가지고 한국사를 이해하려는 것은 결국 서양사를 이해하는 기준을 가지고 한국사를 이해하려는 것이니, 과거 왕조시대에 유학자들이 중국사를 이해하는 기준으로서 한국사를 이해하려 했던 오류와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唯物史觀이라는 것도 서양인이 자기 역사를 이해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고, 유교

의 春秋史觀이라는 것도 공자가 자기 역사를 이해하는 기준으로서 만들어 낸 것이다. 春秋史觀을 빌어오거나 유물사관을 빌어오거나 간에 사관 자체는 다르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남의 기준으로서 자기를 잴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중국인의 史觀을 가지고 보면 우리 역사는 小中華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사의 아류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唯物史觀을 가지고 한국사를 보면 불수록 서양사의 아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유학자들은 춘추사관을 가지고 국사를 이해하는 것이 주체적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국사를 부당하게 왜곡한 점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유물론자들은 유물사관을 가지고 국사를 보는 것이 주체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사를 왜곡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물사관의 도식에다 국사를 집어넣고 아무리 주체를 외쳐보아야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주체사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조선통사>(1962年版)에 제시된 삼국시대 이후 봉건사회설은 어떠한 근거에서 성립된 것이며, 그러한 근거는 과연 사실에 부합되는 것일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삼국시대 이후 우리나라는 貢納制的, 農奴制的, 奴隸制的 우크라드가 공존하였는데 그 중에서

농노제적 우크라드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봉건사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봉건사회의 속성으로서 Marx는 농노제와 봉건적 토지소유, 그리고 경제의적강제 등을 내세웠지만,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이 아니었다. 1952년에 Stalin은 <소련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체문제>라는 교시 속에서 封建制度의 기초는 封建的土地所有라고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소련의 학자들은 봉건사회의 기본법칙과 봉건적 토지소유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토론에서도 어떠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갑론을박하다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봉건사회의 기본법칙과 봉건적 토지소유의 개념에 대한 토론이 정설을 세우지 못한 것은 각 나라마다 사회구조가 다르고 토지소유 관계가 일정치 않은데서 연유한 것이었다. 따라서 토론이 정설을 세우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봉건사회를 부인하는 것은 Marxism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Marxism을 부인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 학자들은 불명확한 개념을 그대로 간직한 채 봉건사회를 증명해야 하는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이다.

북한의 학자들이 <封建社會>說을 내세

울 때 의거한 봉건사회의 기본법칙과 봉건적 토지소유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말한 Stalin의 1952년 교시를 따른 것이었다.

그 교시에서는 封建社會의 토대를 봉건적 토지소유에 두고, 봉건적 토지소유는 生産手段(土地)에 대한 봉건영주들의 소유로 보았으며, 農奴에 대한 封建領主의 불완전소유를 경제외적 강제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토지를 소유한 양반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外居奴婢가 주인에게 소유되어 있으니, 그들을 농노라고 보는 것은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제적으로 엄연한 자유민인 良인이 존재하고, 자기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작농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곤란한 것이다.

良인과 自作農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많아지고, 특히 조선초기에 오면 良인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自作農이 小作農을 훨씬 숫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많은 良인과 自作農을 農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北韓의 학자들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궁색하게도 <봉건적 예속민>이라는 새로운 用語를 만들어 내어 良인과 自作農을 <봉건사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發을 抑止하고 持續的인 發展을 위해 분발할 때이다.
政治發展과 國家의 安全保障을 더욱 確固히 다져 戰爭挑
지금이야말로 國民 모두 투철한 使命感과 愛國心으로

非常時局克服과 總力安保

편
집
실

1. 序

待望의 80年代는 希望과 期待와 함께 對內外的으로 混迷와 沈滯가 交叉되는 試鍊의 年代가 될 것으로 豫見되고 있다.

따라서 80年代에 있어서도 우리의 最大의 課題는 여전히 安保問題가 아닐 수 없으나 同時에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民主的 政治發展도 우리가 追求해야 할 重要한 國家의 課題이다.

특히 現時點에서 韓·美間의 血盟의 유대를 더욱 強化하고 政治·經濟·文化 등 모든 部門에서 兩國의 協力關係를 擴大·強化해 나가는 것이 國家安保上的 緊急한 外交의 課題로서 當面한 民主的 政治發展은 韓·美兩國의 共同利益을 確保한다는 뜻에서도 가장 重要視해야 할 問題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政治와 安保는 南·北韓의 軍事的 均衡維持와 韓·美間의 同盟關係 維持 및 持續的인 經濟成長이라는 제바퀴가 다 함께 有機的으로 連結되어 돌아갈 때만 安定과 繁榮을 누릴 수 있는 바 지금이야말로 우리 國民 모두는 투철한 使命感과 愛國心으로 渾然一體가 되어 政治發展을 이룩하는 한편 國家의 安全保障을 더욱 確固히 다져나감으로써 韓半島에서의 戰爭挑發을 抑止하고 國家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해 奮發할

때이다.

2. 非常時局과 國內外的 環境

「10·26」이라는 돌발적 사태를 계기로 몇번의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으면서 80年代 關門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지금 非常時局下的 重大한 轉換期에 처해 있다.

지난 날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끔 使用하던 「政治發展」이란 말이 이제는 全國民의인 口號로 되어 이른바 國民的인 合意下에 새로운 民主時代를 豫定하게 된 것이다.

發展이란 變化없는 停滯의 反對概念이다. 따라서 지금 政府와 國會를 비롯하여 도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政治發展은 民主主義를 향한 內政의 一大變轉과 改革을 意味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國政이 정돈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다.

이러하여 民主主義는 이제 한낱 口頭禪이 아니라 우리의 當面한 現實的 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그러므로 올해는 무엇보다 政治의 해가 될 展望이며, 또한 우리는 그동안의 經濟, 社會的 發展에 相應한 政治的 發展을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祖國 大韓民國을 安定되고 富強한 民主國家로 發展시켜 나가야 할 歷史的인 使命을 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政治가 어떻게 發展하든 變할 수 없는 重大性이 國家 安全保障에 있다는 것을 銘心해야만 되겠다.

政治發展은 무엇보다도 튼튼한 安保가 前提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상 우리 社會의 모든 活動이 安保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인 이상 政治發展을 한다고 해서 安保가 잠시라도 소홀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現下 國際情勢를 볼 때 「이란」 事態가 해를 넘기면서도 아직 解決되지 않은 채 더욱 냉각화 되어 가고 있으며, 소聯이 무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을 衛星國化함으로써 世界는 다시 50年代의 冷戰時代로 되돌아가는 듯한 기미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外部의 情勢와 政治發展을 위한 새 秩序 形成過程에 있는 우리 內部情勢에서 北韓 共產集團이 得을 보려는 誘惑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國民 모두는 더욱 튼튼한 安保의 울타리가 있어야 政治發展도 그 안에서 더욱 促進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認識하고 이럴 때일수록 理性과 信賴의 회복을 통해 國民的인 和合을 이룩해야 하며, 스스로 安保를 다짐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80年代의 課題와 安保

80年代에 있어서도 우리의 最大의 課題는 여전히 國家安保問題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安定 및 政治發展도 分明히 80年代의 우리의 國家的 課題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分斷國家의 그것도 韓半島의 苛酷하고도 冷嚴한 論理에서 安保만큼 選擇의 餘地가 없는 重要한 課題는 없다.

國際問題 專門家들은 80年代에도 韓半島가 가장 危險한 地域이 될 것이라고 警告하고 있다.

北韓 共產集團은 한결 같이 우리의 虛點을 노리고 있으며, 소위 「南朝鮮解放」을 위한 軍事戰略과 政治攻勢를 일관하여 追求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對南赤化政策을 바꾸리라는 징조는 아직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北韓 共產集團의 軍事同盟國인 소련은 昨今の 아프가니스탄侵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틈만 생기면 弱小國에 대한 鐵面皮한 攻撃을 敢行하고 있는 것이다.

舊時代의 帝國主義侵略을 능가하는 소련의 평창주의와 新帝國主義는 힘의 空白만 造成되면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이것을 軍事的으로 支配한다는 것은 이미

東歐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證明되었다.

특히 이번의 아프가니스탄 事態로 惡化된 美·소關係로 말미암아 世界는 바야흐로 새로운 激動期로 突入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國際情勢의 變化는 우리 韓半島에도 敏感하게 波及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事態를 계기로 美·日·中共의 反소 協力關係가 더욱 強化되어 가고 있는 情勢下에서 소련이 北韓으로 하여금 韓半島에서 紛爭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과 더불어 金日成의 無謀한 불안난을 일으킬 念慮를 排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情勢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의 國力을 培養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自명한 理致이지만 同時에 우리는 韓·美間의 血盟의 유대를 더욱 強化하고 政治·經濟·文化 등 모든 部門에서 兩國의 協力關係를 擴大·強化해 나가는 것이 國家安保上的 緊急한 外交의 課題로 登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美國政府는 「10·26」 및 「12·12」 事態」 직후 즉각 對韓防衛決意를 對外的으로 천명하고 北傀의 어떤 挑發도 단호히 粉碎한 것을 다짐한 바 있었으며, 또 한 「위킴」 韓·美聯合軍司令官이 去年末 中東部前線 日대를 視察한데 이어 異例의으로 金日成에의 警告 「메시지」까

지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現地 最高司令官이 前線을 두루 살펴 면서 北傀軍의 挑發時 이를 물리칠 臨戰 態勢가 완비함을 公言하기는 이런이 처음으로서 그는 韓國이 美國의 主要 貿易 國家이고, 共產勢力의 南進要衝에 자리 하고 있으며, 越南에서 나란히 싸운 血盟關係에 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美國은 韓國防衛를 위한 道義의 責任과 國家的 利害關係를 같이 하고 있다고 力說하였다.

美國의 이같은 措置는 「10·26 事態」를 北傀가 惡用하지 못하도록 警告한 時宜適切하고도 기민한 조치로서 우리로서는 세상 韓·美間의 血盟의 유대를 더욱 強化·擴大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痛感치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은 이처럼 연거푸 警告를 보낸다는 그럴만한 충분한 理由와 狀況判斷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더우기 異例의으로 警告「메시지」까지 보낸 理由와 背景은 果然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한 마디로 그동안 北傀軍이 뭔가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였거나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措置가 취해졌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로서는 더욱 높은 경각심과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

도 北傀가 誤判할지도 모를 素地를 造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安保에 관한 한 韓·美防衛條約에다 韓·美聯合司令部까지 設置돼 있고, 4만여명의 美軍이 駐屯하고 있는 狀況에서 아직 우려할 必要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美國의 이같은 對韓防衛決意는 우리나라 安保를 위한 外的인 支援要素에 不過하다는 것을 깊이 認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安保는 우리의 國軍과 軍을 뒷받침하는 우리 國民의 투철한 防衛決意 없이 外軍의 도움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外軍의 支援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5年前에 滅亡하고 만 越南을 回想하면 足하다.

50만에 달하는 美軍이 投入되어 있었고, 最新裝備가 쏟아져 들어갔었지만 軍의 士氣低下와 國民의 對政府不信으로 끝내 赤化되고야 만 越南의 悲劇이 우리에게 살아 있는 教訓이 아닐 수 없다.

4. 政治發展問題와 友邦과의 紐帶強化

한편 우리는 現時點에서 當面한 民主的 政治發展問題가 韓·美유대 強化와 外交에 어떤 關係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살

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본래 政治發展, 즉 民主化問題는 우리들의 오랜 切實한 所望이었다. 우리나라의 政治發展問題는 美國에서도 다시 없는 큰 關心事로 登揚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政治發展問題에 관해 美國이 이처럼 關心을 갖는 것은 그것이 自國의 利益과도 密接히 關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政治發展 問題는 韓·美兩國의 共同利益을 確保한다는 뜻에서도 가장 重要視해야 할 問題이다.

우리는 一時的이나 美國과의 매우 不便한 關係가 있었던 過去를 잘 알고 있으며, 個人이건 集團이건 國家이건 間에 孤立해서는 살아 남지 못한다. 이것은 鐵則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同盟關係의 維持, 強化와 보다 많은 友邦을 確保하려는 外交的 努力을 傾注해 온 것이다.

「10·26 事態」 이후 우리는 政治發展을 위한 國民的 合意基盤의 成立과 더불어 그동안의 「外交의 重荷」를 벗어나 從前的 被動적 방어적 姿勢로부터 새로이 뚜렷하고 積極的인 友好關係增進에 邁進할 수 있는 重要한 轉機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外務部當局이 그동안 우리의 內在的 부담으로 인해 西歐 등에서 外交上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나 이제 사정이 好轉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政府

가 國內의 政治發展과 民主化추세에 고무되면서 美·日을 비롯한 유럽 友邦國들과의 同盟關係 및 유대관계를 強化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되었다는 判斷 아래 進一步한 協力體制 深化方策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무릇 內治와 外交는 相互依存關係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10·26 事態」 이후 當面한 民主化를 위한 政治發展이 참다운 安定과 繁榮과 그리고 統一을 向해 나아가 할 우리들의 不可避한 選擇이며, 順理의 길인 同時에 美國을 비롯한 友邦과의 同盟關係 維持 및 유대강화에 必須條件이란 것과 아울러 政治發展이 人類의 보편적 價値觀의 징표로 되어 있는 自由와 民主主義의 希求에 合致되고 있음을 바로 認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80年代에도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이룩하여 福祉國家를 建設해야 할 課題를 안고 있다.

그러나 80年代는 심상치 않은 經濟的 危機를 內包한 時期임을 否定할 수 없다.

國民들은 우선 物價가 安定되고 雇傭水準이 向上되며, 國際收支도 改善되기 바라고 있다.

그러나 70年代 後半期부터 加速化되어 온 인플레이의 昂進과 더우기 原油價 自由放任化時代로 접어든 現在의 與件下에서는 그런 經濟政策目標들을 同時에 追求할 수는 없다.

79年末 우리나라의 貿易赤字는 40億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國際經常收支의 赤字도 35億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 數字는 78年의 3倍를 넘는 것이며, 그밖에 外債는 1백 80億달러에 도달했다는 것이 當局의 公式統計이다.

따라서 앞으로 石油事情에 있어서 國際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限, 經濟成長率은 低下되고 失業率은 올라가며, 物價도 계속 昂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經濟專門家들의 一致된 見解인 듯하다.

이렇게 豫見되는 經濟危機를 政府의 올바른 施策과 全國民의 協力에 의하여 큰 충격없이 克服해야 한다는 것은 政治發展과 더불어 또 하나의 80年代의 重大한 課題인 것이다.

만약 經濟가 크게 잘못될 때 이것이 政治와 外交와 國家安保問題에 連鎖反應을 일으켜 國政 全般에 混亂이 오리라는 것은 반드시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80年代의 經濟難局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經濟開發과 社會開發의 調和와 과실의 혜택을 고르게 하는 所得再分配政策이 必겨야 할 것이며, 全國民의 協力を 얻어야 한다.

全國民의 協力を 얻으려면 우선 이른바 「消費가 美德」인 社會나 허황한 展示效果 方式을 포기하고 實體를 正直하게 國民들에게 알려줌으로써 國民들의 自覺

과 自發的 協力を 促求해야 할 것이다.

한편 80年代의 民主化가 제대로 促進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貧益貧富益富」로 表現되는 國民의 所得격차를 可能的 限 좁히고 密輸·橫領·收奪·도박단·脫稅·強力犯 등 自由社會에 寄生하기 쉬운 一切의 社會惡에 대한 果敢한 소탕戰이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強健한 社會的 氣風과 倫理意識의 確立 없이는 어떤 政治制度도 성공을 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5. 우리의 姿勢와 總力安保의 길

結局 우리나라의 政治와 安保는 달리는 三輪車와 같이 세 바퀴를 갖고 있다고 비유된다.

南北對決·國際關係·國內發展이란 세 바퀴가 더 함께 有機的으로 連結되어 돌아갈 때만 安定과 繁榮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南北韓의 軍事的 均衡維持와 韓·美間의 同盟關係維持를 비롯한 友邦과의 유대관계 強化 및 持續的인 經濟成長의 維持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問題의 解決方向은 두말할 것도 없이 國民의 合意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國家安保는 그 가장 큰 威脅이

南北對決로부터 야기되면서도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앞에서指摘한 바와 같이 三輪車의 세 바퀴를 有機的으로 連結할 때만 有力하다는 特徵을 갖고 있다.

그리고 國際關係란 次元에서 現況을 살펴볼 때 韓·美間의 同盟關係가 그 主軸을 이루고 있음은 南北間의 軍事的 均衡維持와 北韓에 대한 戰爭抑制가 美國의 積極的 協調를 前提로 한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룩하려는 政治的 發展은 韓·美關係를 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強化하는 民主的인 것이어야 그 妥當性이 認定될 수 있다.

80年代는 民主的 政治發展을 위한 絶好의 찬스이다. 우리는 80年代에 自由民主主義를 中斷없이 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自由民主主義의 中斷없는 發展이란 結局 人權을 重視하고 民主的 節次를 所重히 여기며, 國民的 심판을 政治權力의 장악과 행사에 있어서 核心으로 받아들이는 體制의 定着化를 意味한다.

이러한 政治體制는, 그리고 이러한 政

治體制와 併行하여 實施되는 社會衡平의 政策은 國民들로 하여금 우리 體制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킬 價値가 있는 體制라는 確信感을 줄 것이며, 그러한 確信感은 安保의 基礎일 뿐만 아니라 平和統一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大韓民國의 國是는 民主主義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 저것을 다 해보았으나 모두 悲劇으로 끝났다.

汎世界的으로 日進月步하는 時代進軍속에서 우리는 이제 建國의 理念이요 現代文明國의 價値基準인 民主主義로 回歸한 것이다.

따라서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 決코 뒷걸음질 칠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國民 모두가 투철한 使命感과 愛國心으로 渾然一體가 되어 民主的인 政治發展을 期必코 이룩하는 한편 全國民이 總力安保의 決意를 다짐하고 國家의 安全保障을 더욱 確固히 다져 나감으로써 韓半島에서의 戰爭挑發을 抑止하고 國家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해 奮發할 때이다.

×

×

×

南北總理會談과 우리의 姿勢

가 숨어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하겠다.
作戰略에 따른 政治協商會議로 유도하자는 기도를
對内外에 부각, 궁극적으로 그들의 聯合共合
우리는 北傀가 僞裝된 그들의 平和指向의 이미

편
집
실

1. 概 要

「責任있는 當局間對話」를 促求한 지난해 우리의 「1·19」提議에 대해 뒤늦게나마 北傀가 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냄으로써 지난 2월 6일 板門店에서 南北總理級會談을 위한 첫 實務代表 접촉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거듭된 제의에 北傀가 어벼한 속셈에서이건 일단 呼應해 왔다는 것은 막혔던 南北對話의 길이 雙方의 接觸을 통해 다시 실마리를 찾았다는 點에서 환영할 만한 進展이라 하겠다.

6일 열렸던 첫 實務代表接觸에서는 雙方代表들의 활발한 意見交換으로 對話무드가 造成되고 北傀가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南北直通電話가 7일부터 다시 再開되는 등 우선은 南北對話의 앞날에 期待를 걸게 하고 있다. 이러한 時點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은 모처럼 成熟된 對話분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進展시켜 나가야만 좋은 結實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런 觀點에서 본다면 앞으로 기대되는 南北總理會談을 포함한 一聯의 對話成敗는 北傀의 態度如何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지난 70年代 초반과 지난해의 南北對話경험을 회고해 볼 때 北傀는



8. 崔

그들의 政策的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非合理的인 口實을 내놓음으로써 對話進展에 難關을 造成, 끝내 對話中斷의 事態를 몰고 왔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北傀가 總理會談이라는 「當局間會談」에 應하게 된 意圖를 철저히 규명하면서 그 進行過程 뒤에 숨어 있는 欺瞞策動의 可能性에 확고하게 對處해 나가는 일방 이번 會談을 能動的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미 시작된 南北 對話를 이번만은 기필코 成就시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첫 實務接觸에서부터 우리의 注目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은 北側 首席代表로 나온 玄峻極이 「南北韓總理會談은 政治·政治人 접촉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이라는 發言이라 하겠다. 즉 北傀는 總理會談 등 南北間의 「責任 있는 當局間會談」보다도 이른바 「南北政治協商會談」의 실현이 그들의 진짜 속셈임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지금까지 北傀가 우리에게 提議해온 對南平和攻勢의 企圖와 總理會談 제의를 前後한 北傀의 심상치 않은 動向, 그리고 當局間會談에 응하는듯 하면서도 會談 벽두부터 「政治協商會談」을 물고 가려고 하는 北傀의 底意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 總理會談 제의를 前後한 北傀動向

北傀는 우리의 非常事態 이후 韓國의 政治·社會的 諸般情勢를 그들에게 有利하게 轉換시킬 것을 企圖하면서 對南煽動攻勢를 加熱化시켜 왔다.

지난해 11월초에는 「團結과 合作, 交流와 對話再開」云云하는 기만적인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했고, 11월 中旬頃에는 韓國의 知識層을 대상으로 反政府鬭爭을 선동했는가 하면 大學生들의 소요사건이 유발되도록 劃策하는 모략선동을 가열시켰다.

한편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그들의 軍事政策결정의 최고기관인 「北傀黨 軍事委員會 全員會談 擴大會議」를 개최했고, 12월 28일에는 北傀가 對南地下組織으로 위장하고 있는 이른바 「統革黨」의 合法화가 곧 「民主化」라는 억지 主張을 제시하는 한편 이 명의를 소위 韓國의 「民主化」와 平和統一 支援을 요청하는 便紙를 世界各國의 政府·政黨·社會團體 앞으로 발송하는 對南모략 선전공세를 벌이기도 했다.

12월 20일에는 80年度 모스크바 올림픽大會에 南北韓이 單一팀을 구성, 出戰하기 위한 南北韓 體育會談 개최를 제의했는가 하면 1월 11일에는 지난 76년 8월 30일 以來 北傀가 一方的으로 斷切

시켰던 南北電話를 돌연 개봉하겠다고 방송을 통해 통고해 오기도 했었다.

또한 그 다음날인 1월 12일에는 申鉉礪國務總理 앞으로 보낸 北傀 政務院總理 李鍾玉의 편지를 포함해, 北傀 副主席 蔣 黨中央委 秘書이며 소위 祖國 平和 統一委員長 金一의 名義로 된 편지를 우리의 政界 등 11명의 人士 앞으로 각각 보내왔던 것이다.

이 편지에 담겨진要旨는 「南北의 모 든 政黨·社會團體들과 各界人士들이 參加하는 幅 넓은 政治協商會議도 할 수 있고, 必要하다면 當局者會談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內容이 강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5일 역시 金一名義로 된 편지가 美·日·西獨 등 10명의 海外同胞人士들에게 발송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張聰明씨(재일거류민단장)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과거에 反韓 活動을 했거나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 人士들이란 점에서 北傀가 노리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總理級會談을 제의해 놓고 前後가 모순되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北傀의 主張들을 살펴보면 1월 22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YWCA事件과 關聯되어 있는 윤보선·함석헌씨가 金一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裁判을 받고 있는 것처럼 真相을 歪曲하여 「이같은 事件은 對話와 統一에 逆行하여 對話進展에 찬

물을 끼얹고 對話를 가로막는 불순한 행위」云云였는가 하면, 1월 23일 노동신문 편집국 논설을 통해서 「어떤 對話는 할 수 있고 어떤 對話는 할 수 없다는 것은 不公正하며 對話범위를 特定人에 국한시킬 수 없다」고 強辯하기도 했다.

같은 날 「祖國戰線」書記局長 허정숙은 성명을 통해 「權力으로 對話參加를 저지하고 對話를 獨占하거나, 對話를 分裂主義의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北傀의 對內外的인 宣傳攻勢는 오늘의 韓國政勢가 그들에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고 判斷, 우리의 社會民心 혼란과 國論分裂을 거냥함과 同時에 總理會談을 口實로 政治協商會議로 물고가기 위한 基단적인 統一戰線戰術要素가 多分히 內包되어 있다고 하겠다.

3. 北傀 「平和攻勢」의 事例

北傀가 지금까지 韓國에 대하여 提議해 온 소위 「平和攻勢」의 內幕은 時期的背景에 따라 「政黨·社會團體 代表者會議」나 「最高民族會議」, 「大民族會議」, 「全民族大會」 등으로 그 名稱만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南北 政治協商會議」를 열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원래 共產主義者들이 赤化敎理로 삼고 있는 「上部統一戰線」술책의 일환으로 구사하던 낡은 手法에 지나지 않는다.

北傀가 韓國에 取했던 平和攻勢中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48年 3月 25日 북한공산집단은 당시 國際聯合總會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서 總選舉가 실시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소위 「北朝鮮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의 명의로 同年 4月 14日 평양에서 「全朝鮮 政黨, 社會團體 代表者會議」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② 1950年 6月 7日 北韓共產集團은 소위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의 呼訴文 형식으로 「平和統一의 모든 必要한 條件과 手段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南北政黨, 社會團體 代表者會議를 海州 또는 開城에서 6月 15~17日에 걸쳐 召集할 것」을 제의하면서 「李承晚, 李範奭, 金性洙, 申性模, 趙炳玉, 蔡秉德, 白性郁, 尹致映, 申興雨 등 民族反逆者는 協議對象에서 제외」하고 한국측의 정당 및 사회단체층에서 「大韓國民黨과 民主國民黨의 두 정당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條件으로 내세웠다.

또한 이 呼訴文이 나온지 1週日後인 6月 16日의 祖國戰線決定書에 의해 晝晚植先生과 北傀工作員 金三龍, 李舟河의 交換을 제의한 후, 6月 25日 그들은 南侵戰爭을 도발하였던 것이다.

③ 1960年 남한에서 4·19義舉가 발발하자 北韓共產集團은 이로 인한 南韓社會의 혼란을 틈타 강력한 平和統一方案

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당시 李承晚政權을 붕괴시킨 青年學生들은 그 뒤를 이어 出帆한 民主黨政權에 대해 간단없는 壓力을 加해 왔고, 그 결과 南韓의 社會秩序는 혼탁의 극을 이루었다. 張勉政權의 통제력은 連日 계속되는 각종 暴모조차 수습할 길이 없었다. 이러한 機會를 이용하여 雨後竹筒格으로 등장한 革新勢力은 감상적인 南北交流論을 주장하게 되었고 急進派 학생들은 「板門店으로」라는 口號까지 제시하였던 것이다.

北傀는 이때야말로 南韓內 保守政黨을 타도하고 革新政黨의 집권이 가능한 時期로 判斷하고 4·19 이틀 후인 4月 21日 「統一問題를 토의하기 위하여 南北朝鮮의 諸政黨 社會團體 連席會議를 구성하자」고 들고 나왔다.

만약 이 시기에 北傀의 對南武力再侵準備나 南韓內 地下黨組織이 강했다라면 임단의 平和攻勢에만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④ 63年 12月 10日에는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 中央委」와 「祖國平和統一 委員會」合同會議 呼訴文 형식으로 美軍撤收, 平和協定締結, 南北自由往來 및 交流, 統一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南北協商」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이때 처음으로 「祖國平和統一委員會」란 간판으로 對南平和攻勢를 제의해 왔었다.

⑤ 1971年 8月 6日 金日成은 「시아누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국의 民主共和黨을 포함한 諸政黨·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종래 포함시키지 않았던 與黨까지를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異例的인 자세를 보였다. 이것은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닉슨」美大統領의 中共訪問으로 美·中共接近이 이루어져 가는 등 주변 정세가 화해의 방향으로 나가는 시기에 便乘하여 對內外的인 統一路線 形成의 必要性을 그들 나름대로 인식한데에 기인한 것이다.

⑥ 1973年 4月 16日 평양에 온 「시아누크」 환영석상에서 金日成은 「南北調節委員會에 南北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 및 각계각층의 개별적 인사들을 광범하게 참가시키거나 아니면 南北調節委員會와는 별도로 정당·사회단체의 대표들과 각계 각층의 개별적 人士들로 구성되는 「政治協商會議」를 召集하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북한공산집단은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한 南北當局間的 對話를 이용하여서는 統一戰線 形成에 별로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格下 또는 有名無實化시키고 동시에 그들이 의도하는 통일전선 형성에 이바지할 정치협상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⑦ 1973年 6月 23日 우리 政府의 6·

23 平和統一 外交宣言이 발표된 바로 그날 오후 우리의 6·23宣言을 反對하기 위하여 急造한 것이 바로 「大民族會議」主張인데 이것은 金日成의 소위 「平和統一 5個方案」中の 第3項目이다. 그 내용 역시 종래 주장해오던 「政治協商會議」나 「最高民族會議」와 마찬가지로 南北의 政黨·社會團體와 各界 各層 人士들로 代表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民族」이란 用語를 使用한데 不過하다.

⑧ 1979年 1月 19日 우리 側의 「1·19」對北提議 이후 南北對話에 임하는 쌍방의 기본입장이 서로 對立된 가운데 板門店에서 3차례의 南北間 變則對座를 가진 바 있었으나, 우리 側의 責任있는 南北韓 當局間的 對話立場에 대해 北傀側은 責任있는 對話를 기피하면서 유명무실한 「祖國戰線」을 앞세워 南北韓의 各界 各層 대표로 구성하는 「全民族大會」소집을 위한 소위 「民族統一準備委」를 구성하자는 主張으로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⑨ 1980年 2月 6日 南北總理會議의 節次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첫 實務會談時 北傀側 首席代表인 玄峻極은 「南北韓總理會談은 政治·政黨人 접촉의 일환으로 개최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지난 1月 12日 李鍾玉의 편지에서 제시했던 「南北政治協商會議」개최실현이 그들의 속셈임을 드러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北傀가 「平和統一」을 앞세워 우리 側에 수 없이 提議해온 主張들은 비록 때에 따라 그 名稱이 약간씩 變化되어 왔지만 「南北의 政黨·社會團體 및 各界各層의 人士와 海外同胞團體 또는 個人 人士를 망라한 對話」라는 「政治協商會議」開催를 催할 餘念해 왔다고 集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北傀가 표방하는 「平和統一」이란 어떠한 平和目的이나 民族의 平和統一 念願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武力 내지는 革命에 의한 赤化妄想을 實施하기 위한 政治的 위장선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武力赤化를 위한 主客觀的 條件의 未備하기 때문에 소위 「政治協商會議」를 開催하여 「統一戰線戰術」을 通하여 이른바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일으켜 거기에 수립된 「人民政權」과 北韓共產政權과의 「合作」에 의해 全韓半島 赤化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4. 赤化戰術이 바로 「平和攻勢」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共產集團은 解放以後 現在까지 對南平和攻勢를 끈질기게 推해 왔었다.

이와같이 「統一問題」를 앞세운 北傀의 이른바 平和攻勢는 그때마다 「우리 민족의 主體的이며 自主的인 努力」에 의해

한반도 분단을 종식시킨다는 구호로 주한 미군의 철수, 南北間의 政治協商 總選舉, 多方面的인 交流, 人道主義問題의 해결을 위한 接觸 등 어느 하나도 빠짐 없이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解放後 35年間 단 한번이라도 北傀가 그들의 基本目標인 韓半島赤化革命보다 먼저 민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平和方案을 진심으로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이다.

6·25事變이 勳번으로 증명해 준 바와 같이 北傀는 共產主義革命의 金日成수행을 위해서는 수백만 동족들의 생명이나 수천억원에 달하는 민족의 財産 따위는 아랑곳 없는 것이다.

보다 分明한 것은 北韓共產主義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祖國統一이란 단순히 分斷된 國土나 分裂된 민족의 再結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全韓半島의 共產主義革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赤化統一以外的 어떠한 통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북傀의 어떠한 統一方案도 그것은 北傀黨의 綱領에 종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統一方案의 부분적인 變更이 있을망정 北傀黨의 基本戰略에는 하등의 變化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北傀의 統一方案이 基本戰略의 으로 變化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면, 그때야말로 그들의 暴力革命과 武力南侵의 戰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對內外的 環境이 造成된 때 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金日成 自身이 더 이상 暴力革命이나 武力南侵이 '不可能하다'는 마지막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北傀의 對內政治體制가 根本적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 公산독재체제 유지가 不可能할 정도의 붕괴현상이 표면화되는 시기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 한 그 어떠한 경우라 할 지라도 北傀의 平和統一方案은 그것 自體가 戰術적인 것이며, 따라서 戰略적으로 底意를 음폐하는 僞裝이거나 이른바 南朝鮮革命의 발전을 위한 한낱 戰術에 不過하다.

지금까지 北傀가 제시해 온 平和統一方案을 분석해 볼 때 國內外情勢의 重要한 變化期를 선택하여 主張해 왔음을 알 수 있다.

金日成이 제시한 統一의 時期는 소위 「3大革命力量」의 成長 如何에 따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韓半島 全域에서의 共產主義의 승리를 위해서 「北韓地域의 革命準備」, 「南韓에서의 革命勢力의 成長」 그리고 「國際적인 對北傀支持勢力의 確保」 등 이른바 「3大革命力量」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平和統一攻勢의 直接的인 目

標는 南韓에 있어서의 共產主義 革命勢力의 成長과 國際적인 對北傀支持勢力의 擴大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北傀의 平和統一方案의 宣傳은 北傀外的 環境 즉, 南韓과 國際社會의 變化를 촉진시켜 國際적으로 한국을 고립화하고 주한미군철수의 타당성을 인식시켜 그들에 대한 同調勢力을 擴大하며, 南韓內에서는 집권층을 고립화하는 광범한 反美反政府 統一戰線을 조직하려는데 그 底意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北傀가 平和攻勢를 展開함에 있어 민감하게 作用하는 要素는 곧 南韓과 國際情勢의 變化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北傀의 표면상 제의인 總理級會談이란 10·26事態 이후 韓國의 非常事態와 美·中共間의 급속적인 協力關係의 增大, 「아프가니스탄」事態 등 對內外的 情勢變化에 편승하여 그들의 赤化戰術을 試圖하기 위한 僞裝平和攻勢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5. 「政治協商會議」 開催의 底意

北傀가 지금까지 南北諸政黨, 社會團體 및 各界各層 代表들로 구성되는 「政治協商會議」 혹은 「大民族會議」 또는 「全民族大會」 등을 제의하고 多選적인 集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南北當局間對話로서는 共產化統一을 성취시킬 수 없다

고 보는데서 소위 統一戰線戰術의 形成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北傀는 이름뿐인 政黨·社會團體가 몇 개 있기는 하나 그것들은 전혀 獨自性을 갖지 못한채 北傀勞動黨에 철저히 종속되고 있는 허수아비 組織이라고 할 때, 萬一 南北諸政黨 社會團體間의 접촉이 실현된다고 해도 그것은 變質的으로 「勞動黨」이라는 하나의 共產黨이 나오게 되는 셈이 된다.

이같이 北傀側이 勞動黨이라는 하나의 政治勢力밖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 條件下에서 南北間의 接觸이란 전혀 無意味하며 따라서 南北間의 政黨·社會團體 및 個人人司의 接觸에서 南北間의 현안 문제나 統一問題에 대해서 아무런 成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北傀立場에서는 하나의 思想, 하나의 政見, 하나의 勢力으로 韓國에 對決하는 反面, 우리측은 各異多様な 政見과 派別로 分離된 채 北傀와 맞서게 만 들자는 속셈인 것이다.

즉, 우리 韓國社會의 경우는 北傀와는 달리 自由民主主義體制로서 多樣性이 前提되어 있기 때문에 各界各層의 特性과 見解가 多樣하여 統一된 路線을 강요할 수 없다는 우리 民主社會體制的 特性을 最大限으로 逆利用하겠다는 것이 北傀의 對南基本戰略인 것이다.

北傀는 群衆集會格인 「南北政治協商會

議」를 통하여 北傀의 勞動黨을 1로 하고 韓國의 當局을 包含한 諸政黨·社會團體들과 1對1 또는 1對全體와의 双務의 多樣的 會談을 推進시켜 놓고, 南北接觸의 幅이 넓어짐에 따라 相互利害關係를 달 리하는 韓國의 政黨·社會團體들을 混亂과 分裂에 몰아넣고 反美·反政府 統一戰線을 구축하여 이른바 「人民民主主義革命」을 側面에서 支援하려는 底意를 內包하고 있다고 하겠다.

北傀는 10·26事態 이후 北傀黨 機關紙 「勞動新聞」社說을 통해 「統一을 원하는 사람들」과의 南北對話를 제의하고 있다. 「統一을 원하는 사람들」이란 「南北政治合作」에 同意하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다. 그들은 北韓共產主義를 反對하지 않고 統一問題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소위 「合作」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말은 大韓民國의 自由民主主義의 政治秩序에 바탕을 둔 現存 憲政構造를 스스로 否定하고 共產主義 政治構造를 받아들여, 共產主義를 反對하는 사람과 團體 및 政黨을 일체 排除시키고 共產主義者들의 活動을 保障시켜 共產主義者들끼리 政治協商을 하겠다는 底意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6. 맺는 말

지난 6일 板門店에서 열렸던 첫 實務

代表 접촉에서부터 그 性格과 核心問題 등에 관해서 雙方의 見解差가 드러나 앞으로의 進度에 樂觀을 不許하고 있다.

北傀 首席代表인 현준국의 말대로 「南北政治協商會議」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던, 이것은 지난날 北傀가 제의했던 「南北의 政黨·社會團體 및 各界人士 海外同胞團體를 망라한 對話」나 더 나아가 소위 「祖國戰線」의 이름으로 제의해온 「全民族大會」의 變形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번 總理 앞 편지 이외에 政界 등 11名, 海外同胞人士 10名 앞으로 그들의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개별적으로 발송함으로써 앞으로 責任있는 當局間會談이, 그들에게 不利하게 展開될 경우나 아니면 한국사회 내부의 혼란이 야기될 경우에 대비하는 동시에, 또한 이 攻勢는 그들의 統一戰線戰術에 최대한 惡用할 수 있도록 政治의 伏線을 깔아놓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韓半島 주변정세가 10·26事態 이후 急變하고 있고, 우리의 政治發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이용하여 韓國의 社會的 不安定과 暴力분위기 조성을 위해 즉 共產革命의 유리한 情勢與件을 조성하려는데 그 先次的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南北對話 接觸에 있어 北傀側은 最終目標을 南北政治協商會議에 두고 當局間會談을 일부 받아들이는 인상을 주면서 그들의 平和指向의 이미지를 對內外에 浮刻하면서 궁극적으로 종래 그들의 聯共合作戰略에 따른 政治協商會議로 유도하자는 企圖가 숨어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하겠다.

北傀가 當局間會談에 대해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可能性은 現在로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肯定的인 面보다는 否定的인 面이 支配의임을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이번 對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對話를 통한 統一實現의 조그마한 可能性이라도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우리의 基本立場에서 出發한 것이며, 民族의 平和統一念願을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어떠한 南北對話可能性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는 意志의 발로인 것이다.

崔圭夏大統領이 文公部 巡視에서 밝힌 것처럼 「北傀의 對話음직임에는 우리 사회 내부의 안정을 해치고 國論을 分裂시켜 이른바 赤化統一의 機會를 포착하려는 저의가 있는만큼 堂堂하고 毅然하게 對話에 응하되 그들의 戰略에 말려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BOY SCOUT 航空隊

發隊의 意義



조성환

1. 韓國 Boy Scout의 發展過程 및 組織現況

스카우팅 (Scouting)이란 戰時에 있어서 積의 陣지에 몰래 뚫고 들어가 그곳에서 積의 陣營을 잘 더듬어 알아내오는 偵察활동이란 뜻에서 비롯된 말로 현재는 少年들이 團體生活을 통하여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信念과 忍耐으로써 未開地를 개척하여 새로운 것을 創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精神·生活·技術을 배우고 익히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國家와 社會에 봉사함으로써 平和에 공헌하는 활동을 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活動에 直接 參與하는 少年들을 스카우트 (Scout)라고 하는데 그 活動範圍가 대단히 넓어 오늘날에는 國家發展과 관계가 깊으며, 모든 産業分野 및 生活領域에까지 그 活動이 요청되고 있다.

기르한다.

여기에 Boy Scout 航空隊 發隊의 背景과 意義를 살펴 보

總長 孟모형 航空公氣大 회 개최와 함께 1979년 10월 7일 1979년 11월 24일

이에 當軍에서는 1979년 10월 7일 第一回 空軍參謀 形成이 絶실히 要請되고 있다.

모야 하며 特別히 자라나는 靑少年들에게는 더욱 그 意識의

그러나 科學하는 生活意識과 함께 航空思想의 昂揚이 前提되

아니라 産業的으로든 매우 重要한 分野로 대두되고 있다. 國民

征服의 꿈까지도 實現케 하였으며, 오늘날에는 軍事的인 것뿐 現代는 科學과 技術의 時代이다.

우리 나라의 스카우트活動은 1922년 10월 5일에 청소년運動을 통한 祖國의 광복을 目的으로 하여 조철호 선생이 指導하는 朝鮮少年軍과 정성채 선생이 指導하는 朝鮮少年斥候隊가 각각 발족됨으로써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나 1937년 9월 일제의 탄압으로 두 단체가 동시에 강제 解體되었다가 光復後인 1946년 3월 1일 위 두 단체가 통합 발족되어 1953년 1월 世界 Boy Scout 聯盟의 會員國으로 정식 가입하고 1954년에 社團法人 韓國 Boy Scout 聯盟으로 設立되었

다. 그리고 1969년에는 청소년으로서의 品性함양, 身體的 發達과 體力增進, 유용한 技能의 修得, 國家社會에 대한 봉사를 目的으로 하는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8호)가 공포되어 각종 지원 및 活動을 法的으로 보장 받고 只今까지 꾸준히 發展하여 現在와 같은 組織을 갖추었다(表 1. 參照).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 Boy Scout 聯盟의 既存 組織에 特殊隊組織으로서 航空隊가 있으나 지금까지는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것이었으며, Boy Scout

표 1. 韓國 Boy Scout 聯盟 組織現況



가맹국수: 114개국
가입회원: 1,600만

※ 명예 총재: 대통령
명예부총재: 국무총리
총 재: 주창균(일신제강 사장)
부 총 재: 김광수(국회의원)
사무총장: 최종덕
가입회원: 33만

航空隊 組織과는 別途로 1969년에 백제 고등학교에서 독자적으로 航空特活班 (C. A. P : Civil Air Patrol)을 組織하여 國際大會 (IACE : International Air Cadats Exchange) 參加程度의 活動을 하여 오다가 現在는 解體되어 活動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2. 航空隊 發隊의 背景 및 過程

80年代의 高度産業社會에 對處하기 爲해서는 生活과 意識構造의 近代化를 通한 全國民의 科學化가 切實히 要求되고 있다. 또한 1979년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完壁한 自主國防態勢의 기틀을 다지기 爲해서는 國產航空機 生産의 積極의 推進이 必要하다고 強調된 바, 이와 같은 政府施策에 副應하여 當軍에서는 參謀總長의 主要 關心事項으로서 다음과 같은 役점사업이 計劃되었다.

『고도의 정밀무기인 最新銳 航空機가 지니고 있는 속성을 100퍼센트 발휘시켜 必勝의 制空態勢를 確立하기 爲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最優秀 資源을 획득하여 이들을 高度로 訓練시키고 士氣를 드높여 必勝의 信念에 가득 찬 精銳要員로 育成하고 이를 지원할 優秀技術人력을 充分히 確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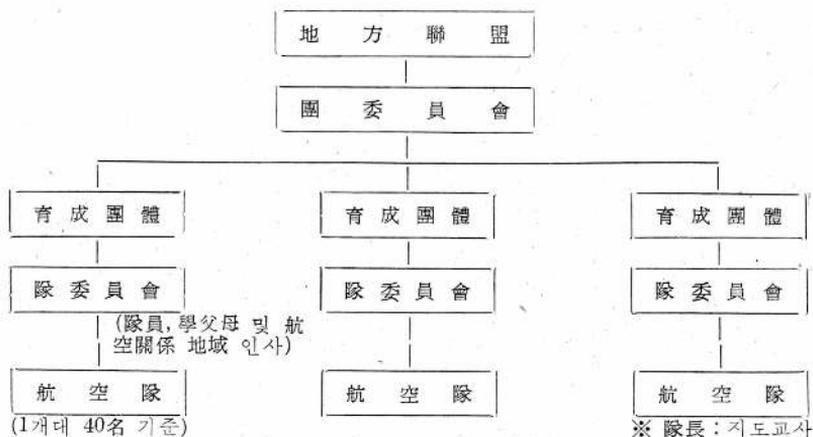
또한 現在 航空機生産을 推進하고 있는 業體의 핵심적 要員을 대부분 空軍에

서 輩出하고 있음을 감안한 때 航空科學과 航空技術人力은 空軍이 계속 主導의 으로 教育 養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軍事的, 社會的 必要를 充足시키기 爲하여는 우선, 자라나는 靑少年들에게 飛行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航空機에 대한 취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의 마련이 요청된다.』이 事業의 일환으로 模型航空機 大會의 개최, 보이스카우트 航空隊의 組織, 그리고 航空宇宙科學展示館의 建立 등이 計劃 推進되고 있는 것이다.

이 計劃에 따라 1979년 10월에 제1회 空軍參謀總長盃 全國 模型航空機大會가 이미 개최되었고, 航空宇宙科學館의 建立이 계속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航空隊 組織은 그동안 우리나라 및 日本·美國 等の 少年航空隊 現況에 關한 자료수집과 수차에 걸친 Boy Scout 聯盟측과의 協議를 거쳐 여러가지의 案이 提示되었으나 그 중 Boy Scout 기존 組織의 特殊隊인 航空隊를 지원 育成하는 案(表 1. 參照)이 채택되어, 우선 서울, 부산 등 7개 지구에서 各地區別 3個隊씩 組織(表 2. 參照)하고 이를 점차 全國의 으로 확대키로 決定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Boy Scout 航空隊 活動에 대한 空軍의 支援計劃이 수립되었으며 Boy Scout 各 地方聯盟과의 긴밀한 協調로 各地域別 航空隊가 1979년 11월

표 2. 地區別 航空隊 編成基準



※ 地域別로 2個隊 以上을 組織할 경우 團으로 編成하여 團委員會를 構成

24일을 기하여 발대되었다(表 3. 사진 1, 2 참조). 이發隊式에서 空軍參謀總長 尹子重 大將은 축사를 통해 『國家安保 그리고 科學文明 發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空軍力의 精銳化와 航空科學의 획기적인 發展을 爲하여 범국민적인 航空思想의 양양과 그 보급을 통한 航空 技術人力의 저변확대를 強調하고 Boy



<서울지구 발대식 모습>

표 3. 地區別 發隊現況(80년 3월 재등록시 組織隊數 및 人員 변동 가능)

地區 區分	서 울	水 原	大 田	淸 州	大 邱	釜 山	光 州	計
組織隊數	4	3	3	7	3	3	4	27個隊
人 員	226	105	129	145	110	120	104	939名
發隊日字	79. 11. 24				79. 11. 28		79. 12. 28	7個地區

Scout 航空隊 隊員 모두가 航空科學技術의 개척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祖國의 蒼空을 勝利의 意志로 수 놓아 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당군의 推進事業과 發隊式 모습은 各種 會報·新聞·放送 등에 크게 보도되어 많은 찬사와 환영을 받았다.

3. 80年度 航空隊 活動 支援 計劃

이와같은 背景과 취지를 가지고 發隊된 各 地區別 航空隊는 임시 활동프로그램에 의거하여 79년 말부터 80년 초에 걸쳐 오리엔테이션과 부대견학을 실시한



<부산지구 발대식 모습>

표 4. 地區別 航空隊 活動現況

地 區	서 울	水 原	大 田	淸 州	大 邱	釜 山	光 州
活動事業							
오리엔테이션	80. 1.23~24	79. 12. 26	79. 12. 29	79. 12. 27	없 음	80. 2. 28	80. 2. 29
部 隊 見 學	"	"	80. 2. 25	"	"	"	"

바 있다(표 4 참조).

80년도 支援計劃은 적용시기를 80년 3월부터 81년 2월까지로 하여 각 參謀部에서의 協調를 얻어서 표 5와 같이 수립되었으며 細部日程은 해당 部隊와 해당 보이스카우트 지방연맹의 協調로 部隊實情에 따라 調整 施行하게 될 것이다.

4. 展 望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Boy Scout 航空隊가 80年度 支援計劃(표 5)과 Boy Scout 航空隊 增員 5年 計劃(표 6)에 依據하여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育成發展되기 위하여는 當軍의



<광주지구 항공대 부대 견학 모습>

표 6. Boy Scout 航空隊 增員 5個年計劃

內 容 \ 年 度	'80	'81	'82	'83	'84	'85
活 動 地 域	7	11	13	13	15	15個地域
組 織 隊 數	27	44	52	65	75	75個 隊
人 員	939	1,500	3,080	2,600	3,000	3,000名

積極的이고 영속적인 정책적 차원의 지원 및 協調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이러한 軍의 關心과 協調支援이 韓國 Boy Scout 聯盟측의 積極的인 受容姿勢와 합치될 때 비로소 航空隊의 組織과 活動基盤이 다져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이 事業은 外國 少年航空隊와의 情報交換, 國際大會의 開催 등을 通하여 先進 航空知識을 도입하고 국제친선을

도모하는 方向으로 그 規模를 확대 發展 시킴이 마땅하다.

少年航空隊는 이제 막 출범하는 단계이지만 關係當局의 計劃이 차질없이 수행된다면 앞으로는 어릴 때부터 航空機에 대한 꿈을 품고 知識과 技術을 습득하며 성장한 청소년들이 空軍에서는 물론 航空産業에서도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名將名言>

- ◎ 職位가 높은 지휘관일수록 知的 능력 뿐만 아니라 身體的 능력이 필요하다. 오래 지속되는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휘관 스스로 節制있는 생활을 관습화하여 肉體的 힘을 기르고 精神的 노동에 자신을 단련시켜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수련을 평시에 꾸준히 쌓아 두어야 한다.
- 팻 틴 —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외교정책

사이러스 밴스 美國務長官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侵攻에 대한 강경한 對應은 비단 美國의 權益 뿐 아니라 『세계 平和와 安定에 많은 것을 걸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權益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3월 3일 시카고 外交諮問會議에서 행한 연설에서 밴스 國務長官은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美國의 政策 목표의 윤곽을 밝히는 가운데 『우리가 抑止力의 필요를 무시하면서 데탕트의 혜택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短見이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란 문제에 관해서 밴스 長官은 美國의 목표는 人質危機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다음은 밴스 長官의 연설 全文이다.

편 집 실

시카고 外交諮問會議는 세계의 주요한 문제들을 탐색해서 論할 수 있는 討論場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外交諮問會議는 近 60年 동안 세계에서 美國의 進路에 대한 思考와 교육과 토론의 센터였다.

본인은 오늘 그 進路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 국

민이 우리 나라의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취할 용의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다는 것은 近年의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美國인들이 이란에 人質로 잡혀 있는 이상 그들의 안전과 석방이 무엇보다도 急先務라고 생각된다. 이제 상황이 미묘

하고 어려운 단계에 있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자세하게 論評한다는 것은 타당치 못할 것이다.

다만 우리의 목적은 이 危機를 조속히 종식시키는데 있다는 것만을 말해 두고자 한다. 우리는 이 諮問會議가 이 목적을 위해서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美國人 人質은 석방되어 美國까지 안전하게 송환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란이 獨立되고 安全하기를 바라며, 그들의 國政에 간섭할 생각이 없다.

오늘 본인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挑戰 즉,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侵略과 우리가 취한 對應策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본인은 우리의 行動의 토대가 되는 목적과 또 그것이 美國 外交정책의 長期的 目的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論하고자 한다.

먼저 무엇이 큰 문제인가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우리는 國家의 獨立, 領土保全 및 人權원칙에 헌신하기 때문에 國境이 침해될 경우, 다른 나라의 독립이 파괴될 경우…… 국민의 意思가 잔인한 軍事力에 의해 억압될 경우 이에 등을 돌릴 수 없다.

우선 아프가니스탄에서 危機에 처해있

는 것은 한 國家와 한 국민의 자유이다.

우리는 소련의 행동이 西南아시아와 페르시아灣지역에 대해 가하는 보다 광범한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年間 石油輸入量의 약 25퍼센트 정도를 세계의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盟邦과 기타 국가들은 一先進工業國이건 開發途上國이건— 이 지역의 石油에 더욱 더 의존하고 있다. 西歐의 石油輸入량의 약 3분의 2와 日本의 石油輸入량의 약 4분의 3이 페르시아灣으로부터 도입된다. 또 우리는 우리의 經濟的 健全성이 이 나라들의 經濟的 健全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利害관계는 단순히 石油 뿐만이 아니고 經濟的인 문제만이 아니다. 이 지역의 平和와 安定은 그 지역 내 우리 友邦들의 未來에 대해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우리가 그들의 독립을 지원함에 있어서 보여 주는 힘과 슬기는 그들에게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게 우리의 목적이 不變함을 보여 줄 것이다. 이는 우리의 同盟관계의 성격에 대해 세계 모든 지역의 友邦들과의 유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對소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美國의 중요한 利益, 아니

세계 많은 부분의 중요한 利益이 이 지역에 걸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확한 말이다. 외부 세력이 페르샤灣 지역을 장악하려 든다면 그것은 이 중요한 利益들에 대한 「습격」이 될 것이다. 大統領이 말했듯이 이 『습격은 軍事力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方法으로 격퇴될 것』이다.

가장 통찰력있는 分析마저도 이 地域에서의 소련의 意圖 즉,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의 動機가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혹은 보다 큰 戰略의 일부인지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다. 수만명의 소련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駐屯하고 있음은 사실이며, 소련의 행동이 이 地域 國家들의 安保와 그리고 긴요한 資源 및 海上通路들에 대한 세계의 자유로운 接近과 利用에 대한 잠재적 威脅을 造成한 것도 事實이다.

이러한 잠재적 威脅에 단호히 對應하는 일은 默示의 이어서는 안 되며, 다만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이러한 情勢 속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 盟邦들과 그리고 소련지도자들은 美國이 이 危機에 대처하여 취하는 조치 뿐 아니라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理由도 理解해야 한다.

2,3일전에, 나는 大統領의 요청으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侵攻에 관해서 몇몇

우리 盟邦들과 協議하기 위해 유럽으로 갔었다. 우리는 우리의 共同關心事와 共同責任을 토의했다. 나는 美國의 행동이 關鍵적인 5개 목적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설명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강연장 밖의 더 큰 청중들을 위해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의 첫째 목적은 이 侵攻에 대해 무거운 代價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加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嫌惡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기타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소련지도자들은 侵略에 대한 國際的 反應이 신속하고도 斷乎할 것임을 理解해야 한다.

곡물, 공업기술, 올림픽大會, 漁撈 및 기타 분야에서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우리의 決意를 극히 명백하게 진해 준다.

이러한 조치들은 홀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광범위한 바탕을 가진 아프가니스탄人들의 완강한 抵抗에 직면하고 있고 또 세계의 압도적 多數국가들로부터 규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우리의 농민들, 實業家들, 운동경기자들, 과학자들, 실로 우리 모두의 희생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 국민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平和를 위해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또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蘇 聯 軍의 撤收라는 우리의 둘째 목표를 성취하도록 構想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소련의 侵略에 대해 우리가 加해 온 制裁들은 모든 소련 軍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撤收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斷言하겠다.

또 나는 이러한 행동들이 멈추어질 때까지, 소련 軍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완전 撤收했을 때,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侵略 이래 우리가 加해 온 制裁들을 철회할 意圖라는 것도 아울러 명백히 하겠다.

그 撤收를 촉구하기 위해, 우리는 大統領이 말했듯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소망에 부응하게 될 中立 非同盟의인 아프가니스탄 政府를 되살리려는 國際社會의 노력을 뒷받침할 준비가 또한 되어 있다. 소련 軍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신속하게 撤收함과 동시에 美國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웃 나라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진정한 中立性과 內政不干涉을 保障하는 조치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政治的 解決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殘虐行爲와 流血사태를 종식시킬

것이다. 이러한 政治的 解決은 어느 나라의 利益도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나라의 利益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現時點에서는 소련이 撤收할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어느 편인가 하면, 요즘의 징후들은 그 反對를 가리고 있다. 소련 軍의 增強은 계속되고 있으며, 恒久的인 시설들이 건설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 목적을 더한층 중요하게 만든다. 즉 필요한 期間 侵略에 대한 懲罰을 계속해 나가면서 한편 東西關係의 本質的인 기틀을 保存하게끔 東西關係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 美國과 우리 同盟國들에게 무한히 큰 이익이 된다.

우리의 對蘇關係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競爭的인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兩者의 근본적인 價値들은 서로 다르며, 우리의 利益들은 번번히 서로 어긋난다. 우리는 우리의 利益과 價値를 증진시키고, 侵略을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競爭은 自制와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主要한 利益에 대한 敏感性에 의해 制約을 받아야 한다. 兩超強大國間의 이러한 關係는 平和에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往年의 冷戰과 무분별한 對決로의 복귀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SALT(戰略武器制限會談)과 정에서, 유럽內 在來式 및 地域核軍에 관해서, 核武器實驗禁止에 관해서,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 체결될— 균형되고 확인 가능한 武器統制協定들을 통해서, 우리의 國益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특히 유럽內 地域核軍制限協定을 협상하자는 提議는 아직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련은 우리와 함께 이 協定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美國은 우리가 이룩한 武器統制協定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1963년 우리는 有毒한 大氣圈 核實驗을 중지했다. 제1단계 SALT 감정협정은 攻擊用 戰略誘導彈의 數를 동결시켰는데, 당시 소련은 이 분야를 增強시키고 있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彈道誘導彈 邀擊用미사일 協定은 높은 支出과 安定과 公적 잠재성을 지닌, 이들 防禦用武器들의 軍備競爭을 방지했다.

우리가 협상해 온 제2단계 SALT 條約 역시 美國의 安保利益에 도움을 준다. 이 條約은 1985년까지 소련의 戰略計劃들을 抑制할 것이다. 이 條約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장래의 위험을 制限시켜 주며, 따라서 우리 자신의 國防計劃을 보다 확고하게 해 줄 것이다. 이 條約은 소련의 戰略武器開發을 감시할 수 있는 우리의 能力을 保存시켜 줄 것이다. 그

리고 또한 우리의 現代化 努力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제2단계 SALT 條約은 회유책도 아니고 강경책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國家 安保政策의 필수적인 一部로 자체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兩大 強國 間に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時期에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 條約批准을 위해 힘쓰기로 깊이 公約하고 있다.

이 條約의 安保的 利點들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 되지 못한다. 20여년에 걸쳐 구축해 놓은 東西關係의 體制를 긴장이 고조된 時期에 해체시킨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 體制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는 國際法을 준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련과의 정식協定들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금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럽 安保 및 協力에 관한 차기 評價會議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東유럽 國家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수립한다는 우리의 政策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상황이 허용한다면, 소련과도 보다 安定된 관계를 수립할 勇을 계속 갖고 있다.

우리의 次期 목적은 西南아시아 地域

의 安保, 安定 및 獨立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地域의 국가들…… 및 기타 국가들…… 과 協力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地域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地域의 資源은 이 지역국가들과 국민들에게 속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독립은 美國에 아무런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 위협은 그들이 독립을 상실하는데 있다.

우리는 우리의 증대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 중에 있다. 우리는 印度洋에 있는 우리의 海軍力을 증강시켜 놓았다. 우리는 空軍 및 海軍施設을 美國이 이용하는데 관해서 이 지역 국가들과 긍정적인 토의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軍事準備態勢는 우리의 이 地域戰略의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 이 地域에 安保協力體制를 구축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協調的인 노력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이 地域國家들이 자신들의 독립을 지키며,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다질 수 있는 자체 능력을 강화하는 일임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가 이들 국가들과 협력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 지역국가들 사이…… 특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아랍인접국가들 사이……의 긴장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공통된 이해의 바탕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이 지역 모든 곳의 국가들과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의미한다. 美國은 回教圈 世界의 벌어나는 活力을 환영하며, 그 속에서 多樣性과 自主性을 토대로 하는 世界를 위한 창조적인 공헌을 발견한다.

우리의 다섯째 목적은 이러한 사태들을 고려하여, 美國의 기본적 軍事 및 經濟的 力量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決意를 다짐하는 일이다.

우리의 국가는 10년 간에 걸쳐, 우리의 방위부대들의 가장 포괄적인 현대화를 추진해 왔다.

우리는 美國의 戰略軍을 구성하는 各軍部隊을 현대화하고, 유럽내 地域 核武器에 관한 작년 12월의 NATO(北大西洋條約機構) 決定을 이행하고, 또 우리의 在來式 兵力을 提高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計劃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은 그러한 長期防衛投資의 중요성을 날카롭게 浮刻시키며, 또

우리의 軍事的 機動性을 증가시켜야 할 必要性을 새로이 浮刻시킨다.

이러한 계획들은 금년과 豫見할 수 있는 未來에 防衛豫算의 增加를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는 美國과 그 盟邦들의 安全과 安保에 요구되는 條件들을 충족시키려는 우리의 決意를 분명히 해야 한다.

西南아시아의 사태 또한 미래의 에너지 制את을 사전에 막으려는 우리의 決意를 강화해 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直面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에너지 依存의 代價, 그리고 그 危險을 우리에게 想起시켜주는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에너지 依存은 우리의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한다. 그것은 달러를 압박한다. 그것은 우리의 國際收支를 악화시킨다. 그것은 脆弱點을 증대케 한다.

그 뜻은 분명하다. 에너지 政策은 우리 外交政策의 핵심인 것이다. 長期的으로 보아, 우리는 外國産 에너지에 크게 依存하면서 동시에 獨立되고, 強大하고, 自由로울 수 없다.

지난 수 년 간에 우리는 몇가지 進展을 이룩했다. 우리의 石油消費 總量이 1979년에 줄어들었다. 휘발유 소비량 역시 그러하다. 大統領 領導下에 우리는 에너지 安保의 強化를 위해 중요한 조치

를 취했다.

그러나 大統領이 말한 것같이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해야 한다.

우리의 에너지 將來를 장악한다는 것은 西南아시아의 현 사태에 신중히 대처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모든 소聯軍을 철수케 하고, 또 소聯의 새로운 侵略을 沮止하고, 緊張 高潮期의 美·소關係를 분명있게 다루고, 이 지역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그리고 美國의 國力を 증강하는 등의 이 모든 목표들의 하나 하나는 美國 뿐 아니라 세계의 平和와 安定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들의 利益을 위해 유용하며, 우리 자신의 노력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노력도 필요로 한다.

우리가 舍心하여 前進해 나갈 때 우리 盟邦들은 美國이 계속 強力할 것임을 認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계속 강력할 것이다.

우리 盟邦들은 美國이 共同防衛에 信任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美國이 그 자신을 위해 소련과의 보다 安定된 關係를 환영하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盟邦들에게 東西關係의

기들을 해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소련軍 撤收를 실현하고, 또 새 危險을 조성하게 될, 소련에 의한 또 다른 危險을 사전에 沮止하려는 措置를 취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베탕트는 抑止力과 분리시킬 수 없다. 현재의 侵略 反對는 미래의 평화증진 즉 東西關係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抑止力을 소홀히 하면서 베탕트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假定은 근시안적이며, 또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他國과 協동하면서, 내가 지적한 목적들을 뒷받침하는 美國民의 이해와 지지를 추구한다.

美國의 힘은 우리의 무기와 실험실과 공장과 농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한 공동목표 아래 단결할 때의 그들의 決意와 良識에도 뿌리박고 있다.

우리의 미래 운명은 우리의 意志와 지혜, 즉 侵略에 대해 國力을 가다듬어 대처하려는 意志, 그리고 눈 앞의 危機에 대처하면서 미래에 대비하는 美國外交政策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國民團結을 이룩하려는 지혜에 달려 있다.

이제 마지막 점에 언급하겠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侵攻은 우리 外

交政策에, 즉 美·소關係와 우리 盟邦들과의 共同政策과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계에서 우리가 追求해 온 根本目標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며, 또 벗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계속 우리의 國益과 깊이 관계된다. 地域的 緊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協商에 대한 美國의 전면적인 지원은 우리의 國益이 된다.

地域紛爭의 악화는 절실한 人間的 필요로부터 자원을 뺏아가는 국부적 軍備競爭을 부채질한다. 그것은 外國에 의한 干涉과 착취의 기회를 제공하며, 또 공공연한 전쟁으로 폭발하게 하여 擴戰 威脅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수 개월 동안에 世界가 보다 危險스러운 곳이 돼버린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그 危險의 『信管』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계속 강화하고, 中國과의 경우처럼 새 國家關係를 수립하고, 또 開途國들과의 협조적 관계를 구축하는 길을 堅持하는 것은 우리의 國益이 된다.

제3세계에 대한 소련 干涉을 좌절시키는 最善의 길은 제3세계에 대한 우리 자신의 肯定的 政策, 즉 開途國들의 自由, 말하자면 外國 支配로부터, 人權的 不公平의 아픔으로부터, 지역 분쟁의 낭비로

부터, 貧困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自由를 위해 우리들이 共有하는 현실적인 利益을 도모하는 政策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같은 戰略은 우리가 開途國들을 상대로 한 異見을 은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開途國들이 그들의 政治的 獨立과 經濟的 正義의 目標을 우리도 같이 共有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극히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가장 효과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다.

이 接近策은 우리의 힘을 바탕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들이 그들의 경제적, 安保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西方 世界에서 援助를 바라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接近策은 효과가 있다. 세계에는 중대한 問題地區가 있다.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 및 中南美의 대개의 국가들과의 우리의 關係가 오늘날, 최근 수년 간에 비해 보다 強力해진 것은 사실이다.

끝으로, 自由에 대한 우리의 獻身은 他國들에서의 人間自由에 대한 實際的 支援으로 行動하는 것은 우리 國民들의 특성일 뿐 아니라, 우리의 國益과도 깊이 관련된다.

市民들의 權利를 존중하고, 서로 相反되는 견해와 이해관계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고 融和할 수 있는 국가들은 국가적 균형과 국가 독립을 유지하는데 보다 강력한 立場에 선다.

우리는 속으로 굶아들어간 挫折感은 美國利益을 害치는 急進主義와 暴力로 毒발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

다. 그러나 오늘날 變化가 평화리에 일어나서…… 이 變化가 人間自由를 指向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해졌음이 사실이다.

그러한 潮流의 일부가 됨은 우리의 이익이 된다. 그리고 人權이 위협당하고 있을 때 그 人權을 옹호하는 것은 우리의 利益이 된다.

사실상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세계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核心的인 문제는 人權에 관한 것이다.

自身の 정부를 결정하는 權利.

宗敎的 自由의 權利.

平和롭게 사는 權利.

우리는 억누를 수 없는 人間의 自由權을, 우리 자신의 制度를 강요함이 없이, 他國이 각자 자기들의 방식으로 제도화함을 돕기 위해 계속 힘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 外交政策의 목적…… 그리고 施策은 우리 국민, 그리고 他國民의 生活에 대한 영향력에 있다.

200년에 걸쳐, 美國은 自由와 進歩의 편에서 왔다. 우리는 世界가 우리의 힘과 경계를 필요로 하는 危險한 곳을 인식하는 한편으로, 世界가 敵對的인 곳이 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人間條件이 개선됨에 따라, 즉 모든 곳의 인민들이 보다 낮고, 보다 안전한 生活을 갖게 됨에 따라, 世界는 美國에 게 보다 안전한 곳으로 될 것이다.

이같은 信念은 우리 共和國의 全歷史를 통해 美國人의 特性이 되어 왔다. 그같은 우리의 信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공·군·만·상

鄭 雲 燮

<제 헌 절>

준법정신으로 민주 안정 이룩하자



공·군·만·상

<이 땅에 다시 비극은 없으리>

네놈이 오관하여 제 2의 6·25를 도발한다면……



太平洋에서의 美國의 立場

民主클럽에서 행한 연설 全文이다.
드 홀브루크氏가 3월 27일 워싱턴에 있는 全國女性
다음은 東아시아 — 太平洋담당 美國務次官補 리차

편
집
실

오늘날 세계는 본인이 이 자리에서 16個月 전에 이야기했을 때 보다 덜 안정되어 있는 것 같다. 특히 西南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挑戰은 더욱 격렬하다. 카터大統領은 西南아시아와 印度洋에서의 우리의 행동에, 그리고 우리의 對蘇관계에 焦點을 두고서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侵攻에 대한 우리의 對應策을 제시했다.

이 분쟁 지역의 東쪽에 東아시아와 太平洋이 있는데, 그곳은 美國의 역할이 '過多介入'과 '소홀'의 사이를 넓게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썽을 일으키면서 오고 갔던 지역이다.

그리하여 만약 1975년에 누군가 우리의 오래 끌은, 그리고 상처를 안겨준 印支戰爭 개입이 종결되고 나서 5년 이내에 太平洋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오늘날만큼 튼튼해지리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면 樂觀主義者건 悲觀主義者건, 그 누구도 그 예언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美國의 적절한 역할을 再定義해 왔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로 중요한 지역에서의 우리의 國家安保를 절대로 중요한 시기에 強化해 왔다.

본인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연설하면

서 東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劇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했었다. 그때 美國은 그 對아시아 역할에 대한 淸楚와 토론의 시기에서 바야흐로 벗어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의 긴장의 근본 원인은 共產主義者들 간의 경쟁(敵對) 관계가 되었던가. 아시아의 非共產國家들은 옛 冷戰의 分열로 야기된 여러 가지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유례 없는 經濟的, 政治的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우리는 太平洋에서의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었다.

백스國務長官은 아시아學會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의 政策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日本과의 동맹관계 강화.

○ 中國과의 완전한 正常化 성취.

○ 우리의 安插지盟邦인 濠洲 및 뉴질랜드와 모든 공동 관심사에 대해 긴밀한 협의 유지.

○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會員國들과의 우리의 유대 강화 및 그 기구 자체와의 우리의 새로운 관계 형성.

○ 韓國에 대한 우리의 安保公約의 유지와 韓國의 自衛능력 향상을 위한 원조.

○ 아시아 및 太平洋에서의 새로운 共同體 의식의 형성.

오늘날 美國은 北으로는 日本과 韓國

으로부터 南으로는 濠洲와 뉴질랜드에 이르는 이 지역에 걸친, 그리고 이 지역의 연결을 돕는 일련의 政策 이니셔티브를 취함으로써 東아시아에서의 그 역할을 再定義했다.

西南아시아에서의 위기는 우리의 東아시아에 대한 입장의 힘이 시험되는 하나의 큰 試驗을 자아냈다.

그러므로 먼저 지난 3년 동안 美國이 東아시아에서 이룩한 7개 주요 업적을 검토해 보겠다.

첫째, 美國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盟邦인 日本 간의 政治 및 戰略관계가 두드러지게 그리고 꾸준히 성장했다.

美國에서는 이러한 성취가 빈발하는 貿易上の 마찰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집중으로 해서 가리워졌다. 그러나 역시 그러한 성취는 하나의 현실이며, 美·日兩國의 미래의 힘을 위해서 중요하다.

太平洋 전역에서의 우리의 戰略的, 政治的 입장은 美·日兩國 간의 끊을 수 없는 유대로 시작되어야 한다. 근년의 經濟문제에 의한 긴장은 이 관계를 심히 약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카터大統領과 日本의 두 首相의 강력한 영도하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東아시아 및 그 지역 밖에서의 우리 두 나라 간의 엄청나게 증가된 調整은 그다지 더듬직한 뉴스가 되지 못한다. 또한

1978년에 채택된 새로운 共同防衛지침 역시 그러하다. 이 공동방위지침은 우리의 對日 同盟관계에 作戰信賴도와 효율을 더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同盟관계가 성숙하였음을, 또 그 동맹관계가 소위 카터大統領과 大平首相이 말하는 우리의 “生産의인 제휴관계”로 발전하였음을 중요하게 시사해 주는 것이다.

둘째, 1978년 12월 美國은 中華人民共和國와의 관계를 정상화했고, 이어 美·中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것이 카터行政府의 주요한 外交정책상의 업적의 하나로 간주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美·中관계 정상화후의 15개월은 3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中國과 정상적인 外交 및 政治 관계를 수립하고, 臺灣과의 公式 관계를 질서있는 방식으로 종결시키고, 臺灣 국민과의 관계를 非公式의 방편으로 유지하는 일, 등소평 副首相의 워싱턴 방문은 이 단계에서의 特記할만한 사항이었다.

제2단계—이 단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3단계와 겹친다. 이 단계에는 美·中관계를 모든 면에서 참으로 “正常的”인 토대위에 올려놓게 될 貿易, 경제적, 商業的, 文化的, 領事的 및 기타 유대를 발전시키는 일이 포함된다. 위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거의 30년 동안 지속되어온 連絡斷絶, 官僚政治的 잔재, 그리고 法律上 및 心理的 장애를 척결해 나가기 위해 대단한 속력으로 일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몇 가지 필수적 요소의 완결을 기다리고 있다. 먼데일副統領의 中國방문은 이 단계에서 중요한 성과였다. 먼데일副統領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우리는 다음 행동을 완결지었다. 즉, 議會의 美·中 貿易協定 승인(最惠國 대우 포함) 中國에 대한 輸出 入銀行 용자 제공(현재 이 문제는 兩國에 의해 원치적인 合意를 보았음), 海外民間投資公社의 保證을 中國에 제공, 中國이 상환가능한 기술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中國을 法律로 “友好國”으로 지정, 中國이 우리 자신의 安保를 위태롭게 함이 없이 우리의 제품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中國에 先進 기술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정책을 개정, 文化協定の 조인, 우리는 또한 오래 끌어 온 資產 請求문제를 해결했다. 아직 未決상태로 있는 문제들 중에는 民間航空협정, 海上협정, 織物협정 및 領事협정 등이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있다.

제3단계—이 단계는 지난 1월 해롤드 브라운國防長官의 中國訪問으로 시작되

었다.

우리는 세계적 및 지역적 상호 관심사에 관해 中國 정부와 대화를 넓히고 또 심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관해서 브라운長官은 中國과 진해가 비슷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次官級 會談을 열 것을 제의했다. 지난 週 中國 副外相(外交部 副部長), 章文晉과 워싱턴에서 열린 이 會談으로 쌍방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형식의 접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協議는 워싱턴과 北京에서 1년에 두 세번 정도 여러 次官級 수준에서 행해 질 것이다. 이와같은 접촉은 우리의 상호 이익을 개선하는데 부합히 소중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對中國 關係는 보다 정상적인 步調로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우리의 世界政策과 일치하는 확고하고도 건설적인 關係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北京과의 國交正常化가 臺灣의 안보, 번영 혹은 안정을 危殆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 사람들은 그러한 우려의 根據를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臺灣海峽의 긴장도는 현재 역사적으로 기록될만한 낮은 상태에 있다.

東아시아에서 이룩한 세번째의 주요 업적은 필리핀基地協定の 修正 협상이었으며, 그것은 1984년에 同協定을 재검토

하기로 하고, 1991년까지 이 중요한 基地의 美國 사용을 보장한다. 빈번히 絶望의으로 보였던 10년 간의 協商을 종식케 한 새 協定은 우리의 戰略的 利益을 보호하는 한편으로, 필리핀의 정당한 長期的 關心을 충족시킨다.

太平洋과 印度洋에 대한 美軍의 實戰 配置에 있어서 이 基地와 그 시설이 갖는 중요성은 명백하다. 만약 우리가 東南 아시아의 현 위기에 상당히 앞서 이 協商을 종결시키지 못했더라면 基地使用에 관한 不確實性은 지금쯤 우리 軍事計劃者들을 괴롭히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도달한 이 協定은 양국에게 公正하며, 또 우리는 行政府가 1981會計年度用으로 요청했고, 또 本人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安保援助에 대한 議會의 완전 승인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全面的 노력을 포함하여 이 協定을 위해 全力을 경주하고 있다.

베트남, 포괄적인 對아세안政策의 개발이다. 아세안을 형성하고 있는 5개국, 즉 泰國,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싱가포르를 우리가 1977년 이래 재건해 온 東南아시아政策의 核心體가 된다. 이 나라들은 많은 문제들에 대한 統攝된 見解를 갖고 發言함으로써 각 회원국의 힘을 발휘할 수 없이 크게 強化해 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국가들의 欲求 및

開發에 맡겨두어서 아세안과의 우리 관계를 확장해 왔다.

다섯째로, 美國은 泰國 安保에 대한 支援을 새로이 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 地域에서 아직도 어떤 발언을 만들 用意가 있고 또 만들 수 있음을 분명히 立證한다. 예를 들어 本 行政府가 이어받은 1677년도 豫算에서 泰國에 대한 經濟援助는 4백만 달러로 줄었고 또 完全中斷을 示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東南亞 지역을 베트남처럼 “喪失” 했고, 또 美國은 이 지역에 주요한 利益을 걸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그러한 경향이 反轉되어 왔다.

오늘날 議會는 泰國을 우리가 특별한 우대와 關與를 유지하고 또 유지해야 하는 나라로 認定하고 있다. 우리는 泰國에 대한 經濟援助와 軍事借款을 확장해 왔고, 泰國-캄보디아 國境에서 베트남 壓力에 대처하는데 긴급히 필요한 軍事裝備 引渡를 추진해 왔고 또 계속 밀려 들어오는 피난민들에 대한 주요 구호원조를 제공해 왔다. 우리는 베트남이 蘇聯 원조 없이는 감행할 수 없는 泰國에 대한 공격이 바로 이 지역너머로 확장되는 큰 危機의 原因이 된다는 高位層聲明을 발표했다.

여섯째로, 大統領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傳統에 따라, 매년 16만 2천명의

東南아시아 피난민들을 美國에 定着시키기로 決定했다. 많은 국민들과 나라들이 하노이 政策 때문에 희생되고 있으며, 특히 印度支那 주민 자신들이 그러하다. 그리고 泰國,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香港 같이 첫 피난처가 되는 국가들이 피난민의 물결에 正面으로 부딪치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카터大統領夫人에 의한 작년 11월의 특별한 泰國訪問은 사태를 劇化하고 구호 노력을 活氣지게 하는데 힘이 되었다. 再定着에 관한 大統領 決定과 아울러, 프랑스, 캐나다, 瀛洲 및 그 밖의 국가들에 의한 비슷한 조치들로 인해 첫 피난처가 되는 국가들의 난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나라들의 政治的 安定과 경제적 번영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고 있다. 이 定着計劃에 대한 美國民들의 지원, 그리고 印度支那 난민들을 給食하고 돌봐주기 위해 우리가 행한 거창한 寄與는 人道的 및 財政的 면에서 커다란 國家的 노력에 되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고 또 계속해야 하는 노력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일곱번째로, 본인은 南太平洋의 신생 독립국가들, 그리고 그 국가들이 그 지역의 平和와 進歩를 보장하기 위해 같이 일하고 있는 機關들과 함께 발전시킬 協

力關係를 들고자 한다. 최근 수년간에는 南太平洋에서 약 10여개의 小國家들이 植民地로부터 自治 및 獨立國家로 平和의 으로 전환한 것 이상으로 고무적인 발전이 별로 없었다. 이러한 過程에서 美國은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美國 領土들과 우리의 유엔信託統治領인 미크로네시아群島에는 이미 국민들이 선정한 政府들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美國 領土들과 信託統治領들에 대해, 어떤 基礎 위에서 美國과의 계속적인 關係유지를 바라는지를 그들 스스로가 決定해야 함을 明白히 했다. 최근에 우리는 미크로네시아 주민들과의 새 關係를 수립하려는 協商에서 중요한 進歩를 이룩했다. 이러한 협상들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美國 領土들과 미크로네시아는 자기들의 지역문제들에 관해 인접 南太平洋 독립국가들과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아시아關係의 힘과 그것이 세계 다른 地域들에 대해 갖는 漸大하는 聯關性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 6週間に 추진한 아시아盟友邦들과 가진 일련의 集中的인 協議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濠洲의 프레이저首相과 韓國의 李漢彬 副總理가 2월에 협의차 워싱턴을 방문했다. 앤저스(ANZUS) 理事會는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侵攻에 대한 共同對策을 개발하기 위해 그 회의를 앞당겨서 워싱턴에서 밴스國務長官 司會下에 회동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난 주에는 中國 外交部 副部長 章文晉이 우리가 주최한 최초의 美·中 兩國政府 實務級 會議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日本의 오키다外相은 워싱턴에서 일련의 중요한 協議를 방금 끝마쳤다. 그리고 본인은 東아시아 駐屯 美國大使會議를 사회한 후인 2월 중순에 5개 아세안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현사태에 대한 그들의 見解에 대해 논했다. 이러한 협의에서 雙務의 問題들이 과거의 경우처럼 支配的인 것이 아니었음은 注目할만하다. 그 대신, 그 협의에서는 國際問題들과 西南아시아 및 東南아시아에서의 안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協調 努力을 발전시키는 일이 주요한 焦點이 되었다.

또한 본인은 우리의 아시아太平洋政策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多幸스럽게도 議會 兩院으로부터 계속적이고도 강력한 支援을 받아 온 사실을 強調하고자 한다.

우리가 최근에 얻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치지 않는 한 가지 教訓은, 議會의 支持를 갖지 않는 政策은 실사 그 政策 자체가 健全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議會와 行政府 사이의 意見不一致라는 간단

한 사실로 인해 파기되지는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크게 弱화된다는 점이다.

東아시아에서 우리와 우리 友邦들이 아직도 직면하고 있는 挑戰은 만만치 않다. 그 중에서 가장 重大한 것은 분명히 베트남의 領土의 野心과 베트남과 蘇聯關係에 관련된 挑戰이다.

印度支那에서 30여년간 전쟁이 계속된 뒤인 오늘날에도 베트남은 계속 이 지역의 불안정과 인간의 고통을 전연시키고 있다. 印度支那 전체의 정복을 노리는 베트남사람들은 “船上難民”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게다가 1978년 말에 베트남은 蘇聯의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를 침공, 프놈펜에서 약명승고잔인한 폴포트 정권을 축출하고, 행사린이라는 前 캄보디아 공산군 지휘관이 이끄는 國民代表權이 없는 정권을 세워 놓았으며, 이 정권은 근 20만명의 베트남軍의 駐屯에 그 생존을 의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약 5만 내지 7만의 베트남軍이 泰國 國境에 밀려들면서 泰國에 難民의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그 나라의 안정과 안보를 위협해 왔다.

베트남의 행동이 아시아의 안정에 제기하고 있는 挑戰은 실로 심각한 것이다. 그것은 특히 美國에 대해서 우리의 印度支那 悲劇이 종식되지 채 5년도 되

지 않아 고통스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東南아시아에서 캄보디아를 포함하는 민족국가들의 안정된 體制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時急한 일은 캄보디아 국민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출하고, 泰國의 영토권 보전과 안보를 보호하는 일이다.

우리의 전반적 목표는 印支 주둔 蘇聯軍을 감축시켜 궁극적으로 철수케 하며, 캄보디아로부터의 베트남軍의 철수를 모색하며 그리고 캄보디아 국민들의 自決權과 中立性을 보장해 줄 정치적 타결책의 추구를 지지, 권장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같이 어렵고 다각적인 목표들을 難民救濟활동을 통해서,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이미 언급한 바 있는 泰國에 대한 원조의 증가를 통해서 추구하고 있다.

잠재적 불안을 계속 안고 있는 또 다른 지역으로 韓半島가 있다. 이 분단국에서 전쟁이 발발한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방대하고 잘 裝備된 군대들이 세계에서 가장 긴장되고, 가장 강력하게 要塞化된 軍事線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다. 北韓은 자기들의 方式으로 韓半島를 재 통일하겠다는 그들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現 行政府는 美國의 對韓 안보공약을 재 확인해 왔으며, 또한 카터大統領

은 韓半島의 군사력 균형을 직접 점검토한 후 美地上戰鬪部隊의 점진적 철수를 최소한 1981년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같은 결정은 우리의 강력한 對韓公約을 과시하기 위한 美國의 즉각적인 조치들과 함께 몇 달 후, 韓國의 朴正熙大統領이 그 자신의 情報責任者에 의해 해피었던 韓國 역사의 미묘하고도 어려웠던 순간에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朴大統領의 서거 이래, 韓國의 민간지도자들은 광범위한 기반과 대중적 지지를 받는 政府를 指向해서 신중한 속도로 착실한 진전을 이룩하고 있다. 개정헌법이 起草 중에 있으며, 개인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특히 韓國社會에서 가장 저명한 수 명의 인사들을 포함한 600여명의 인사들에게 주어진 최근의 정치적 복권에 만족하고 있다. 발전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韓國의 軍部가 민간정부를 계속 지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 韓國國民들의 여망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韓國은 동시에 두 가지의 다른 중대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 하나는, 10년 동안 극적인 10여 퍼센트의 실질성장을 계속한 끝에 어려운 해를 맞고 있는 경

제이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긴박한 경제적 문제들에 처해 있는 이 시기에 韓國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둘째로, 韓國은 새로운 政治構造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도 공식적으로 승인된 政府級 수준의 직접 대화를 위한 北韓으로부터의 잠재적 유망성을 지닌 提議에 호응하고 있다. 이 잠재적이고 미묘한 노력은 과거의 그 많은 "평화탐색"이 그러했듯이 하나의 幻想 내지 기만인 것으로 판명될지 모른다.

이는 지난 주 北韓이 감행한 4건의 중대한 침투사건으로 극적으로 뒷받침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어제 일상적인 韓國의 순찰대가 北韓 침투병들과 遭遇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에게서 北韓側의 이 같은 행동을 南北會談에 대한 성실성과 합치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그와 같은 對話에는 오로지 조심성과 경계심을 갖고 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北韓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을 여러 가지 최근의 사태발전에 뒤이어 있는 현재의 對話는 그들에게는 부언가 좀 다른 특색을 갖고 있을 것으로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으로 본인은 美·中 관계정상화, 韓國政府內의 변화, 그리고 北韓과 마찬가지로 蘇聯의 침공 등을 듣고 싶다. 만일 北韓(공식명칭사용)

과 大韓民國 간의 현재의 대화가 특히, 세계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東北아시아에서 긴장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서슴치 않고 환영하고, 권장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民主主義를 향한 韓國의 계속적인 발전을 지지할 것임과 꼭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韓國을 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외부의 간섭 내지 모험주의에 대하여서 한국의 安保를 뒷받침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東아시아 지역에서 蘇聯의 군사력 확장시도에 대하여 보다 전반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수년동안 우리는 太平洋 지역에서 蘇聯 海軍力의 점진적인, 그러나 뚜렷한 增強을 목격해 왔다. 소련 地上部隊들은 2次大戰 종료시 日本으로부터 탈취한 北方道서로 다시 이동해 왔다. 이 지역 내 다른 곳에서 성공을 못한데 대한 대항수단으로 蘇聯은 베트남에 발판을 굳혀 놓으면서 蘇聯軍에게 印度洋 군사배치를 위한 전략적 지점에 있는 海軍 및 空軍 施設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또한 太平洋에서의 그들의 감시능력을 향상시켰다. 우리는 이 지역 내 세력 균형에 대한 이같은 위협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본인이 이미 간략히 말했듯이 이러한 挑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太平洋에

서 강력한 戰略태세의 중요성은 太平洋에서의 우리의 이익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印度洋과 西南아시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에 기인한다.

太平洋과 印度洋間에 人爲的인 구별을 짓는다는 것은 과거는 몰라도 지금은 이미 정확하지 않다. 太平洋과, 印度洋은 지구 둘레의 절반이상에 걸쳐 있는 하나의 不可分의 바다이다. 아시아의 일부 지역의 불안정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西南아시아에서의 共同的 利益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유럽 防衛를 뒷받침하고 돕는다.

이것은 美國의 아시아 및 太平洋정책에게 어떠한 意義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印度洋에서의 새로운 요구는 물론, 太平洋지역에서의 우리의 安保公約에 대처하기 위해 太平洋에서 계속 강력하고도 융통성 있는 軍事力 構造를 유지해야 한다.

現 국제정세에 비추어 美·日 兩國이 각각 防衛노력을 보완하는 가운데 우리는 日本과의 安保협력을 계속 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 太平洋 및 기타 지역에서 日本과 더불어 우리의 外交행동의 조정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와 더불어

어 東南 및 西南 아시아의 安定에서 생기는 우리의 장기적 상호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계속 탐색할 것이다. 우리는 아세안 각국과 그리고 그들의 地域機構와의 우리의 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이다.

우리의 中華人民共和國과의 관계는 또한 東아시아를 넘어서 계속 중요성을 띠어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우리에게 다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태에 관해 이미 토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美·中 양국 간의 價値와 構造에 있어서의 差異가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양국은 友邦이지만 동맹국은 아니다. 우리는 中華人民共和國과의 通商을 확대시켜 군사지원 장비도 일부 포함하는 공업기술의 새 분야에 까지 진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中華人民共和國에 대한 武器판매 決定을 뜻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決定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음을 강조하겠다. 우리의 中華人民共和國과의 빠른 關係改善은 美國이 그의 전통적인 아시아 友邦들 보다도 中華人民共和國을 優先시키기로 결정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가끔 다른 나라들의 首都에서 表明되었는데, 이것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對中 및 對日關係와 그리고 日·中 相互關係를 어떤 다른 강대

국을 겨냥한 것으로가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要因들로 보고 있다. 그러나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侵略이 다른 나라들의 우려를 자아냈듯이 蘇聯이, 東南아시아의 불안정을 助長하고 더욱 심하게 만들면 이러한 蘇聯의 행동에 반대하는데 대한 공동관심이 필연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우리는 蘇聯의 모험주의에 대한 最善의 방위책은 이 지역에서 美軍을 계속 주둔시키고 그리고 東아시아全域에서 강력한 政治基盤을 뒷받침하는 일일 것이라고 믿는다.

印度洋을 포함한 이 지역에 대한 美軍의 持續의인 주둔은 또한 장기간에 걸쳐 太平洋司令部 내의 美國海軍資產의 迫加를 필요로 한다. 太平洋에 駐屯하는 우리 海軍을 보강하고 그럼으로써 印度洋에 보다 가까운 곳에 더 많은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컨대 고려되고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해외에 아마도 西太平洋에 항공모함 1隻을 추가 주둔시키는 것이다.

21세기 초에 이르면 우리는 세계의 政治의 균형은 아니라도 經濟的 균형이 太平洋 쪽으로 기울어지는 중요한 변화들 목격할 것 같다. 이 지역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2,3년 동안 세계의 어느 단일 지역도 對抗할 수 없는 經濟的 活力을 과시해 왔다.

우리의 東아시아와의 總交易高는 유럽과의 總交易高와 대체로 맞먹는다. 이 지역은 점점 중요한 原料源일 뿐 아니라 民間投資를 위해 유망한 장소가 되었다. 이 지역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美國에게는 이 지역에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된 것이다. 아시아 및 太平洋지역에서의 우리의 기본적인 이익은 아직도 獨立國家들 사이의 안정되고도 평화로운 체제의 확립과 유지를 권장하는 데 있다.

우리 歷史에 있어서 최근 40년간 많은 美國인들이 우리 本土에서 그렇게도 멀

리 떨어져 있고 전혀 다른 땅과 바다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개입해야 했는지 의문을 품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歷史, 地理 그리고 經濟의 利益面에서 大西洋 세계의 일부임과 마찬가지로 新興 太平洋지역사회의 일부임을 특히 축복된 것으로 느껴야 한다. 歷史의 추세가 사실 우리가 과거에 極東으로 알고 있던 세계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시아의 옛 우방 및 새 우방국들과 전면적으로 제휴하여 이러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참여해야 한다.

근로와 휴식

▲ 의심할 여지가 없는 순수한 기쁨의 하나는 근로(勤勞)후의 휴식이다.

— 칸트<독일의 철학자>—

인간은 단지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다. 한가한 시간을 메우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한마음으로 어떤 일에 몰두하여 시간가는 줄을 모르다가 일을 끝냈을 때나, 피곤할 때, 잠시 휴식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기분좋은 안식과 기쁨을 느낀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아쉬움 없이 다했다는 안도감과 만족감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며, 이런 기쁨을 맛보는 데에 인생의 묘미(妙味)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의 어려움이나 고달픔을 모르는 사람은 휴식의 기쁨도 맛보지 못한다. 근로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필수조건이며 휴식의 기쁨은 근로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다.

美·蘇의 防空網에 對한 評價

戰術 防空

윤 쾌 환 역



AAA

蘇聯의 Planner들은 월남전에서 미국의 경험과 第四次 中東戰에서 얻은 교훈을 조심성 있게 研究 分析하여 왔다. 이와 같이 성격상으로 다른 두 전쟁을 통하여 SAM과 같이 작전하는 AA gun은 전방지역의 아주 効果的인 AD팀이었다는 명확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다.

蘇聯은 12.7mm 기관총에서부터 130mm AAA gun에 이르기까지 많은 무기를 생산하여 왔다. 각종의 12.5mm, 14.5mm 및 23mm 기총이 각 부대에 증가되었으며, 이들 무기들은 단신, 양신 또는 4연신 형으로 견인식으로 되어 있거나, 기갑차량 및 전차에 장치되어 있고 일부 100mm 및 130mm gun은 예비대와 동구라과 사단급에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AAA체제는 S-60과 제4차 중동전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던 ZSU-23-4 무기체제이다.

제4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航空機가 격추된 전체 격추대수 중에서 약 절반이 소련의 ZSU-23-4에 의하여 격추되었다고 평가한다. 완전한 자동식 체제로서 개량한 PT-76 차량에 23mm Cannon, 4문이 적재되어 있으며, 분당 4,000발까지 발사할 수 있고 유효사거리는 2.5km이다. 目標物 捕捉과 火力操縱은 레이더로 하며 ECM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방보조장치가 장치되어 있다.

ZSU-23-4는 25KPH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사격을 할 수 있다. 높은 화력을 갖고 있는 ZSU-23-4는 7km의 최대 유효사거리에 대하여 직접 사격임무으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 무기체제는 SA-6의 “사각지대 (Dead Zone)”을 엄호한다. ZSU-23-4와 SA-9은 전차 및 차량과 소총연대에 조직될 것이 확실하다.

소련은 ZSU-57-2 체제를 점점 폐쇄하여 왔으며, 동 체제는 전차사단에서 사용하여 왔고 유효사거리는 4km이었다.

견인식 57mm gun(S-60)은 소련의 전차 및 소총사단의 표준 AA gun으로 사용하여 왔다. S-60은 AA기능 외에도 직접 화력무기로써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협적인 레이더로 조종하는 gun이다. S-60은 SA-6 및 SA-8과 대치 중에 있으나 후방지역의 정적 방공임무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2연선의 40mm Duster gun체제가 점차적으로 패쇄됨에 뒤이어 美陸軍은 사단을 위한 自動武器지원을 提供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서 Vulcan gun體制를 展開시켰다. Vulcan은 견인식 자동형에 장치되어 있으며, 그의 20mm gun 체제는 분당 3000발을 發射할 수 있다.

그러나 발칸포는 사거리가 크게 제한을 받으며, AD 任務시에는 그 효과가 1,200mm에 불과하며, 화력조종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지가 못하다. gunner들은 거리측정용 레이더의 도움을 받으나 目標物을 육안으로 捕捉하여야만 하고 양호한 기상조건에서만 동체제가 効果가 있다.

Vulcan포는 유효사거리, 正確度 및 命中率이 크게 制限을 받는다. 또한 同體制는 ECM에 극히 취약성이 있으며

迅速하게 기동하는 目標物에 對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보통 Vulcan포는 Chaparral과 같이 展開되나 重要하고 고정된 군사장비를 방어하기 위하여 Chaparral이 이동할 때에는 기동성이 있는 部隊과 같이 移動을 한다.

미육군은 Vulcan gun 체계의 性能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ZSU-23-4가 과시하였든 방어의 우수성에 크게 자극을 받았다. 1974년의 研究의 結果에 따라 새로운 저고도 전방방어용 gun체계(LOFAADS)가 必要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으며, 현재 美陸軍은 수단 防空用 gun體制(Divad)에 대한 開發計劃을 추진 중에 있다.

同 體制는 자동추적, 데이터조준, 중구경, 전천후체제로서 분당 4,000發을 發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련의 ZSU-23-4보다 우수한 체계가 될 것이나 1980년대 중반 전에 야전배치 될 수 있을 것이냐가 의문시 된다.

展開大形 및 戰術의 利用

전술 AD체제의 이용에 대해서는 소련의 고리는 기동성, 대량성, 혼합성, 체계의 다원화, 집중화력조종 및 소극적 방공 수단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방공망이

실용적이 되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어떠한 고도에서나, 먼거리에서 그리고 어떠한 視界條件에서도 敵航空機와 交戰할 수 있는 보완체제가 혼성되어 있어야 한다. 敵의 ECM의 조작사가 여러 면에서 재밍을 받게 하고 그 결과로서 출력의 손실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같은 體制내 일지라도(예 SA-2의 여러 모델)다중 주파수 能力이 必要하다고 간주된다.

한 지역에서 불충분한 軍裝備가 重要한 모험의 재연을 실현하도록 蘇聯의 Planner들은 AD체제를 대량으로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Gap-filler와 보조 방공임무에 노후된 裝備를 使用하여 중심 및 측면지역에 대한 防空을 실시 한다.

이와 같은 잉여장비가 使用됨으로써 작전지역에 대한 영공이 수평 및 수직으로 점차 포화되고 있음이 확실하다. 과거 10년동안에 전개된 蘇聯의 모든 AAA 및 SAM 體制가 자동적이므로 AD체제가 보충된 장비의 기동성과 동일한 기동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성취 중에 있다.

소련은 훈련을 반복해서 철저하게 실시하며, 일부는 기계적으로 실시한다. 蘇聯의 Air defender들은 攻擊헬리콥터,

Figure 1. Tactical air defense assets available at comparable U. S. and Soviet echelons

Soviet Echelon		U. S. Echelon	
Major Subordinate Tactical Units	Air Defense Assets	Air Defense Assets	Major Subordinate Tactical Units
Front		Army Group/Major Air Command	
4/5 CAAs	1/2 SA-4 brigade	Nike-Hercules	4/5 corps
1/2 TAs	0/1 SA-2 regiment	group	
1 TAA	MIG-21, MIG-23 SA-3s, S-60s	F-15, F-16, F-4	2 tactical air forces*
Army		Corps	
CAA-3/4 MRDs	1/2 SA-2 regiment	1 Hawk battalion	2/4 divisions
1TD	1/2 SA-4 brigade	(GS)	
TA-3/4 TDs	1/SA-6 regiment	1C/V battalion	
1MRD			
Division		Division	
TD-3TRs	1 SA-6 regiment or	1 Hawk battalion	3 brigade
1 MRRs	1 SA-8 regiment or	(DS)	
MRD-3 MRRs	157mm AAA	1C/V battalion	
1 TR	regiment		
Rigiment		Brigade	
TR-3 tank battalions	1 SA-9 platoon	none	3/4 battalions
MRR-3 MR battalions	1 ZSU-23-4 platoon		
Maneuver Battalion		Maneuver Battalion	
3 Commanding Officers	SA-7s	Redeye	3 Commanding Officers

CAA-combined arms army
TA-tank army
TAA-tactical air army
MRD-motorized rifle division

TD-tank division
MRR-motorized rifle regiment
TR-tank regiment

Smart폭탄 및 방사성 추적미사일을 사용하는 近接支援航空機, Wild Weasel 항공기의 位置 및 攻擊用 航空機, Stand-off Jamming Airborn Platform 체계에 대하여 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위장, 지형공격준비사격(Terrain Preparation) 보강장소(Hardened sit), 비전자포착 및 추적방법과 같은 피동방어 수단을 강조하고 있으며, 집중화력조종 및 정밀사격훈련을 必要로 하고 있다.

美國의 防空戰術은 실질적으로 蘇聯의 防空戰術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방공 장비체제의 數가 蘇聯에 比하여 부족하고 기술이용에 대한 Gap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방공노력에 핸드캡이 되어 왔다. Figure 1에는 동일한 전술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공장비를 比較하였으며 소련이 압도적으로 우세함을 알 수 있다.

蘇聯의 “前方部隊”는 대략 美軍의 전구육군부대나 또는 NATO陸軍의 Group에 해당하는 部隊이기는 하지만 전술적으로 가장 攻擊目標가 되는 部隊로서 그 조직은 일정하지가 않다.

防空裝備은 편제상 戰鬥遂擊機와 장거리용 SAM으로 구성되어 있고 Point

defense 임무용으로 AAA를 追加시켰다. 모든 항공기가 多目的 항공기이며 소련비행연대에 주임무가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MIG-21 및 MIG-23이 공중우세 임무용으로 사용될 것인가는 확실하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TAA의 항공기 약 40%가 전쟁초기에 防空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추측된다.

앞으로의 지상기지방공은 현재 기동성이 낮은 SA-2/Guideline과 대치 중인 SA-4/Ganef, 1~2개 여단(각 여단에 발사대 27개)으로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SA-4가 점차 확대 전개됨에 따라 SA-2는 후방지역 고정 방공임무용으로 전환되며, 교량, 철도분기점, 飛行場 등과 같은 目標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 외에도 후방지역의 저고도 Point defense용으로는 SA-3을 사용할 것이며 S-60 및 기타 AA gun은 Gap-filler와 지원 AD체제로 사용할 것이다.

미전구 육군(Theater army)에 대한 기구 및 장비표가 없으므로 가능한 한 AD장비에 관하여 숙고할 必要가 있다. 만약에 CENTAG(NATO 지휘체통의

일부)가 대표부대로서 사용된다면 이제 대(Echelon)는 많은 미군 및 연합군 F-15, F-16 및 F-4 비행단의 지원을 받는 Nike-Hercules 4개 대대를 보유할 것이다.

후방지역 방공사령관은 전쟁초기에는 대부분의 항공기를 대공작전에 使用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航空機는 蘇聯전선 空軍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상군사령관(CENTAG)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일부 Hawk 및 심지어는 Chaparral-vulcan(C/V) 장비까지도 후방지역의 AD belt를 형성하기 위하여 군단지원 임부에서 철수할 것이나 위협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미군의 군단/소련의 Army급 부대가 예속될 것이 확실하다. 미군의 군단은 예속된 사단의 지원을 하는 기타 부대의 지원을 받겠지만 1개 Hawk대대(발사대 24~27개)와 1개 C/V대대(발사대 24개)를 보유하여 전반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에 소련육군은 SA-2를 보유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후방지역 방공용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앞으로 Army을 위한 방공부대는 SA-4, 1~2개 여단과 1개 SA-6연대(발사대 20개)

로 구성될 것이다.

사단을 위한 방공은 57mm gun이 폐쇄됨에 따라 소련군에는 긴급한 변화를 하는 과정에 있다. 앞으로의 사단방공 장비의 혼용문제는 논쟁 중에 있으나 전차사단(TD)이나 차량화소총사단(MRD)은 편제상 SA-8 연대(화기대대 4개)나 또는 SA-6연대 또는 가능한 한 SA-8/SA-6 혼성연대를 보유할 것이다.

57mm gun은 철수되고 있기는 하지만 취약성이 있는 견인식 S-60은 중요한 군사지지의 近接防空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사용될 것 같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군의 사단방공을 할 때에는 편제상 1개 C/V대대(Vulcan 24개 Chaparral 24개)나 또는 Vulcan 1개 대대를 공수 및 공정부대에 제한을 하고 있으며 사단이 위탁되었을 때에 직접 지원을 하도록 Hawk 1개 대대를 증가시켰다.

美軍의 여단은 기구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편제상 AD장비를 保有하고 있지 않고 사단만을 지원하도록 制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反面에 蘇聯의 연대는 防空에 극히 강한 部隊이다. 소련의 자동소총연대(MRR)는 最近에 와서는 견인식 14.5mm, 23mm AA gun 및 ZSU

-23-4, 4~8문으로 구성된 혼성 AAA포대를 保有하고 있으며 전차대대 (TR)는 ZSU-23-4 및 ZSU-57-2 부대를 혼성하여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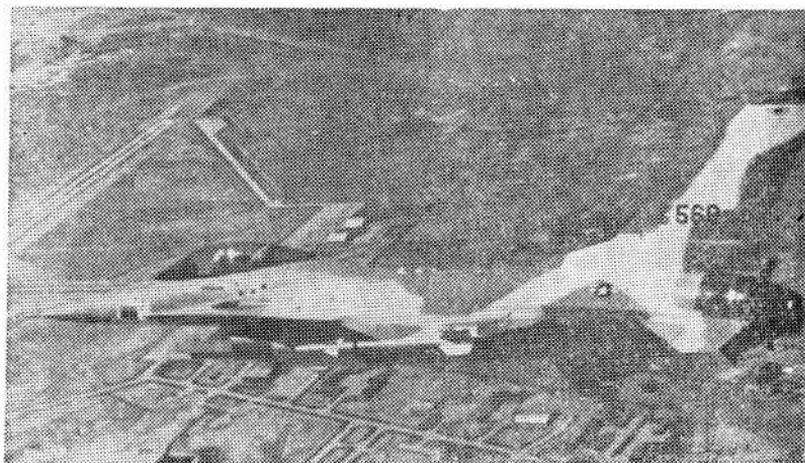
MRR 및 TR에 대한 앞으로의 연대급 AD 청사진 상에는 SA-9 소대가 보충된 ZSU-23-4 gun 4문을 보유한 소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結論적으로 기동부대 수의 규모에 있어서는 현재 美軍은 사단급(팀당 6개 무기 보유)의 대대에 편제상 73개의 Redeye 팀을 보유하고 있고, 蘇聯은 SA-7/Graill 미사일을 이와 유사한 수(約400個)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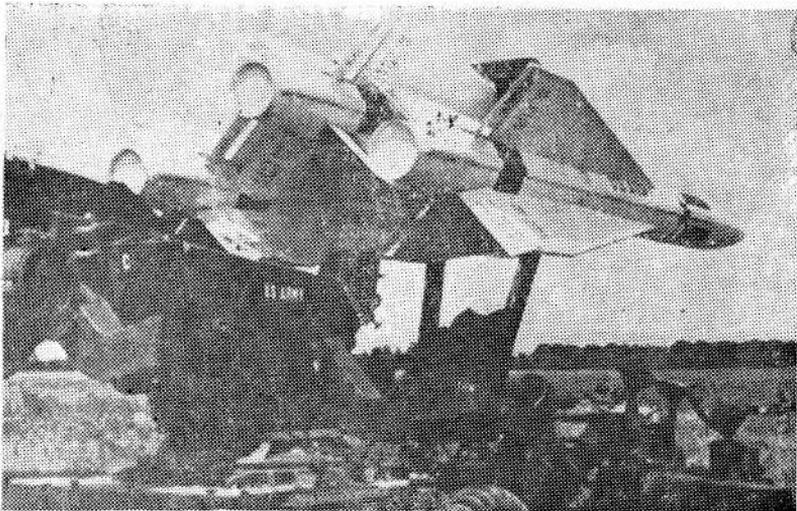
보유하고 있으며 사단의 기동부대에 이를 전개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소련의 사단들은 14.5mm 및 23mm AA gun을 혼성해서 보유할 것이다.

美國 및 蘇聯의 Planner들이 戰術防空의 相對的인 比較를 強調하고 있음은 아주 重要한 사실이다. 미·소의 戰場防空體制間의 Gap은 3:1로 소련이 우세하며 소련이 이들 체제를 계속 展開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그 Gap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 보다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전의 소련의 수적인 우세를 상쇄시킬 수 있었



美國의 最新에 輕량 전투기 F-16



미군의 Hawk 미사일체제, 기동성 반응시간 및 다중 목표물과의 교전능력이 제한되어 있음

던 미국의 기술상의 우세를 소련이 기술적으로도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중우세임무를 강조하여 왔던 소련공군이 대지공격 및 후방차단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 주안점을 바꾸고 있으면서 점점 보다精巧해져 가고 있음으로 미군의 전술공군능력과 비교하기에는 더욱 곤란해지고 있다.

戰鬪機는 각종 전자장비와 항속거리, 무장 및 침투능력을 改良 및 向上시켜 展開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새로운 攻

擊 및 헬리콥터(Hind A/D 및 Hip E)가 추가 배치되었으며, 따라서 소련의 공중 위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 외에도 신형 攻擊헬리콥터(Hind A/D 및 Hip E)가 추가되었으며, 따라서 蘇聯의 공중위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美國의 Defense planner들은 對空戰場에서 보다 效果的으로 敵의 도전에 對處하여 왔다. F-15, F-16과 같은 방공임무용의 미국의 신형 戰鬪機는 가장 최신의 기술을 이용한 航空機로서 소련의

Counterpart 항공기 보다 우세함이 확실하다. 전술기는 실제로 소련보다도 예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미국의 최근 국방예산의 유일한 항목이다.

SAM과 AAA에 대해서는 똑 같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군의 Hercules 및 Hawk미사일체제는 구식技術을 사용한 미사일로서 기동성과 反應時間 및 다중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는 能力이 제한되어 있다. Chaparral과 Redeye체제는 호친 후에서 단 사용할 수 있으며 고성능 目標物에 對하여는 약간 비효과적이다.

Vulcan포가 여러 가지의 결점을 갖고 있으므로 미국방성은 보다 效果的인 전방지역 AD gun으로서 使用할 수 있도록 研究를 하고 있다. SA-4/Ganef, SA-6/Gainful 또는 SA-8/Gecko와 같은 소련의 보다 신형인 SAM과 比較해 볼 때 美軍의 SAM體制는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다.

위력을 과시하였던 ZSU-23-4는 수년 동안 야전에서 使用하여 왔으며, Divad gun이 展開될 때까지 미군이 保有할 어

면 부가 보다 우수한 대공포입이 확실하다.

그러나 戰術防空은 재래식 군 병기에 서 重要的 한 분야로서 소련은 그 開發을 미국 보다 급속도로 빠르게 開發을 하고 있다. 현재 蘇聯은 포부기에 있어서는 미국 보다 3:1로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생산면에 있어서도 미국 보다 약 8:1의 比率로 능가하고 있다.

또한 蘇聯은 戰車의 數에 있어서도 미국 보다 4:1로 우세하며, 기갑전투차량에 있어서도 2:1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攻撃 및 화학장비에 있어서도 크게 우세하다.

이와 같이 불균형한 입장에서 볼 때 추 가적으로 戰術防空武器를 開發하는데 必要的 資金을 미국은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蘇聯이 戰闘機와 헬리콥터 장비수를 迅速하게 확대하고 있으므로 美國은 불가피하게 能力 있는 전장광공망으로 이에 對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必要的 武器의 開發이 시급하게 되었다.

×

×

×

中共空軍은 「종이 호랑이」
身勢를免치 못할 것인가?

— 中共航空産業의 어제와 오늘 —

李 建 淳
譯

지금 中共內部에서는 지금까지 中共이 保有하고 있는 航空機보다 좀더 精巧한 새로운 航空機 開發努力이 틀림없이 繼續적으로 進行되고 있는듯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듯, 홍콩發 消息通을 引用한 未確認 報道들이 지난 75年 12月 發表된 바 있는데 그 內容은 中共의 國營技術輸入公司와 英國 Rolls-Royce社와의 約 8千萬파운드 相當의 契約締結 內容으로서 이는 同社製 Rolls-Royce RB 169 ~25E 強化型 Turbopan 엔진을 導入, 西安에 位置하고 있는 國營航空엔진工場에서 라이선스生産과 이에 따르는 技術支援으로서 極히 限定된 數의 엔진生産 計劃과 더불어 이 엔진과 關聯된 F-12라는 新銳戰闘機 開發計劃이 그 重要報道內容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西安工場에서는 만일 中共側이 多年間에 걸쳐서 協商을 끌어 오고 있는 英國 British Aerospace Harrier社와의 購賣 및 라이선스生産 契約이 成立될 경우에는 Rolls-Royce Pegasus Vectored-Thrust Turbopan 엔진에 對한 라이선스生産에도 參與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英製 Harrier機의 購入問題는 多年間의 協商 끝에 機內航法 및 攻擊用裝備, 레이저 距離測定機 및 其他 武器發射用 補助



中共空軍은 「종이호랑이」 身勢를 뚫지 못할 것인가?

裝備品들이 除去된채 中共이 사들에게 되었는데, 이들 裝備品들은 두말할 것 없이 國家安保上 除去되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이들 裝備品들이 除去된 狀態下에서 이 航空機가 과연 어느 程度의 價値性을 發揮하게 될 것인지가 疑問이며, 이러한 除去된 電子裝備들을 中共自力으로 補充해 나아간다는 것은 現 中共의 技術水準으로 보아 매우 漠然한 形便이다. 또 한편 中共人들은 西方製 武器類 購買對象目錄에 對해 繼續 評價는 게울리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아직 具體的인 購買行爲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中共은 最近 最小限 2個種의 輕量級 多用途 H-1機를 中共自力으로 開發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오늘 現在 이에 對한 進行狀況은 確實치 않다. 그 밖에 그들의 初級練習機인 BT-5(YAK-18A) 機의 代替機가 約 2年前부터 中共空軍에서 就役하고 있다. BT-6라고 불리우는 이 初級練習機는 260HP의 “Sinshiliyu Housai”라는 엔진을 装着시키고 있는데, 이 엔진 역시 蘇製 YAK-18用 M-11FR 엔진을 많이 모방하여 만든 것이나 中共內에서 再設計 製作한 것이다. 이 엔진 보다도 出力을 좀더 增加시킨

300~350HP를 C-11 輕輸送機에 装着시켜 1975년에 試驗비행, C-5(AN-2) 複葉 輕輸送機의 代替機로서 1977년부터 量産 體制에 들어가고 있다.

中共航空産의 規模가 많이 커지고 또 지난 10年間을 前後하여 相當한 前進을 보았다고는 하나, 아직도 이 産業을 뒤받침 해 줄만한 研究, 開發基盤이 弱할 뿐만 아니라, 그 生産方法도 아직 “中世風”의 領域을 벗어 나지 못하고 航空機 製作工程의 大部分이 西方陣營에서는 이미 普遍化되고 있는 工業標準化規格의 許容値에 未達되는 結果를 빈번히 빚어내는 手工業의 製造方法을 쓰고 있음으로써 그 結果 豫備部品들 相互間의 互換性 維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現代의인 精巧한 航空機 製作을爲해 中共의 航空産業을 再編하는데 있어서도 西方陣營의 高度化된 設計技術만을 導入한다 해서 問題解決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實情에 있다. 卽 여기에는 現代化된 最新 製作技術의 導入은 勿論이거니와, 이렇게 製作된 航空機에 装着시킬 推進機를 비롯하여 主要裝備部品 및 航空電子裝備工場들의 開發이 時急히 뒤따라야 한다. 現在 中共은 年間 約 100~

120臺 끝의 初期 50年代 所産인 F-6 (MIG-19)級 航空機를 生産해 오고 있다.

忘却 속의 中共空軍

現在 中共空軍의 司令官職은 張廷發이 맡고 있고 이는 中共共産黨 中央軍事委員會로부터 黨의 統制를 받음과 同時 行政府인 國務院 밑에 國防部 隸下 總參謀部에 配屬되어 있는 中共人民解放軍 空軍司令部는 그 數的으로 보아 世界 第三位라고 稱할 수 있겠지만, 그 保有裝備面에서 廢物을 주어 모은 空軍으로서도 역시 손 꼽히고 있다. 이 後者에 對해 最近 世人들에게 그들의 虛弱性을 如實히 들어낸 것이 얼마前 中共이 큰소리 치며 쳐들어 갔던 越南 땅에서 早期 撤收를 強要 當했다는 데서 이 事實을 充分히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中共은 現在 各種 航空機를 包含하여 約 4,500臺의 航空機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지만, 近間에 와서 各種 部品供給上 問題點 등으로 이들 裝備品 運用上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전히 그들의 命脈維持만 있을 뿐 이미 廢物화된지 오래된 F-6

및 F-6Bis機 만으로서 完全히 쓸모 없이 되어 버린 F-2(MIG-15Bis)와 F-4(MIG-17F)機와 繼續的으로 꾸준히 前進的인 機種 交替作業을 이루고 있을 뿐 最近 近 10年 以上 동안 아무런 새로운 戰鬪機 機種에 對한 導入 내지 供給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航空裝備品들의 廢物化 過程으로 必然的으로 그들 保有 SAM 基地中 極히 制限된 數단을 運用하지 않으면 안 되는 運命에 處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中共空軍을 오래 前부터 古物화된 軍隊로 轉落, 認識시키게 하는 主要 要素로 看做되고 있다. 그들은 中共 全域을 戰略的 重要性에 비추어 10個 航空軍區(Military Air Regions)로 分轄하고, 이에 따른 軍區空軍司令部(District Air Force HQs)들이 北京, 瀋陽, 濟南, 南京, 福州, 武漢, 成都, 昆明, 蘭州 및 廣州에 位置하고 있으며, 이들 中共空軍은 소련의 50年代 後見物들을 相續받아 組織 編成되고 있고, 組織目的에 따라 매우 巨大한 規模의 비행師團을 運用하고 있는데, 이들 師團은 3個의 聯隊, 每 聯隊는 3個 내지 4個의 비행大隊로 編成되어 왔다. 空軍 兵力數는 約 40萬, 여기에 追加하여 約

中共空軍은 「종이호랑이」 身勢를 뚫치 못할 것인가?

10萬名의 防空部隊員들이 勤務하고 있고 그 중 조종사數는 15,000名에 達하고 있다.

이들 戰鬥機部隊들의 基幹을 이루고 있는 戰鬥機들은 遠擊 및 空對空 戰鬥任務가 第1次의 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戰術偵察, 戰鬥地域攻擊, 近接支援 및 對空任務를 擔當하는 F-6 系列의 各種型의 戰鬥機들이 그 主幹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屬하는 約 1,800臺의 戰術機로서 約 40餘個의 聯隊들의 一線裝備로 武装시키고 있다. MIG-21機를 본래 複製한 F-7 戰鬥機로 武装된 聯隊는 2個聯隊에 不過하고, MIG-17機를 바탕으로 製作한 F-4 및 F-5 改良型의 舊式戰鬥機 約 1,000臺 以上の 戰鬥機로서는 20個以上の 聯隊를 構成하여 空對空 및 戰鬥爆擊의 두 가지 飛行任務를 擔當시키고 있는데 그 밖에 數百臺에 達하는 歴戰의 勇士機로서 尊敬을 받고 있는 F-2機 (MIG-15)가 아직은 現役勤務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相當數의 航空機들이 韓國動亂中 功을 많이 세운 베테랑으로 자랑하고 있다. 聯隊級의 비행訓練部隊에서 基本 및 作戰訓練이 實施되고 있는데 이들 部隊에서는 複製型 F-2, F-4 및

F-6機들이 利用되고 있다.

中共空軍은 基本的으로 그들의 空軍力을 防禦 및 戰術目的의 遂行에 置重되고 있고, 여기에 小規模의 이긴 하나, 戰略空軍이란 것을 維持시켜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約 60臺의 B-6(Tu-16) 및 적은數의 30年 以上된 Tu-4 爆擊機를 保有하고 있고 이들은 2,000NM(3,220km) 前後의 作戰半徑을 갖는 것으로서 이들 航空機들로서 4個의 聯隊를 構成 運用하고 있으며, 그 밖에 約 400臺 以上の B-5(IL-28) 輕爆擊機로서 12個의 聯隊를 維持하고 있는데, 以上の 航空機들이 모두 50年代 初盤 産物로서 많은 脆弱點을 갖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들에게는 相當히 重要な 武器目錄으로 看做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中共은 지금 B-5機의 作戰이 可能한 비행장을 最小限 100個를 運用하고 있는데, 이들 비행장들은 거의가 소련을 비롯하여 韓半島, 南部越南一部 및 印度等과 接하는 國境地帶에 配置시켜 이들 航空機의 戰略作戰을 可能하게 하고 있다. 한편 前方一線部隊들에 對한 空輸支援業務에 있어서도 輸送機事情으로 매우 어려운 事情에 있어 上級重要部隊에만 局限시키고 있는 形便에

있고 이에 動員되고 있는 機種으로서는 2次大戰時 使用된 바 있는 約 100臺의 Li-2(DC-3)機와 約 30臺의 IL-14M 輸送機를 비롯 數百臺의 C-5(AN-2) 輕輸送機를 動員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18臺의 英國製 Trident 輸送機로서 政府要員을 輸送任務에 臨하고 있으나, 大型輸送物 空輸에는 極히 制限을 받고 있다. 그 밖에 300~350臺의 H-5(Mi-4) Hel機, 여기에 13臺의 Aerospatiale社製 SA-321 Super Frelon Hel機를 包含하여 巨大한 規模의 Hel機部隊을 運用하고 있다.

中共에는 空軍 外에도 海軍航空隊를 構成 運營하고 있는데, 이들 部隊들은 北·南 및 東海艦隊로 分轄運用되고 있고 그들이 保有하고 있는 航空機 臺數는 450~500臺에 達하며, 兵力數는 約 30,000이다. 이들 中共海軍航空隊의 基本任務는 海軍基地防禦, 上陸作戰支援, 海上哨戒, 對艦攻擊 및 對潛戰 遂行이며, 이들이 保有하고 있는 機種은 基本的으로 空軍의 것과 同一한 約 300臺에 達하는 F-4와 F-6戰闘機 外에 約 100臺의 B-5 爆撃機 그 밖에 적은 數의 舊式 Beriev Be-6 海上哨戒飛行艇, 約 50臺의 H-5

對潛 및 海上救助用, 輕輸送 및 海上通信支援用으로 利用되고 있다.

全體 中共空軍力의 大部分이 그 重要性에 비추어 中·蘇 國境地帶에 配置되어 있으며, 그 밖에 最小限 6個 飛行師團以上의 東區 空軍管區內에 配置되어 臺灣과 對峙하고 있다. 南部空軍管區에서는 越南과 라오스國境을 지키고 있고, 또한 티베트, 印度 및 파키스탄 國境地帶 警備任務도 兼하여 擔當하고 있다. 大部分의 飛行訓練은 몇 個의 매우 規模가 큰 飛行學校가 位置하고 있는 滿洲東北地方 空軍管區內에서 實施되고 있고, 初級訓練過程에서는 BT-5 및 BT-6 파스톤 往復型 初級練習機들을 쓰고 있고 이 過程이 끝나면 바로 F-2 또는 F-4 縱列複座訓練機로 機種轉換하여 訓練을 받는다.

現在 中共空軍의 裝備保有目錄上 그 所要에 미치지 못하는 數量은 各 機種에 걸쳐 있어, 向後 10年 그 後半期까지는 그들이 世界先進國 水準으로 끌어 올리고야 말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에 所要되는 天文學의 所要資源을 中共이 어떻게 調達해 낼지 疑心스럽지 않을 수 없다. 中共側이 最近에 와서 무척 大大

中共空軍은 「중이호람이」 身勢를免치 못할 것인가?

의인 現代軍事科學 導入에 熱을 올리게 된 것은 그들이 近間 越南을 혼안하면서 侵攻하였을 때, 越南軍이 소련으로부터 導入한 最新型 防空미사일體系와 1975年 美國이 越南에서 撤軍하면서 남겨둔 最新 美製 裝備들과 直面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最新軍事科學技術의 早速 導入을 痛感하게 된 것이다. 이들 越南軍이 函獲하여 使用中에 있는 美製 航空機中에는 F-5 戰爆機를 비롯하여 UH-1H Hel機 및 C-130 Hercules 輸送機들이 있는데, 特別히 이 C-130 輸送機는 今般 中·越紛爭期間 동안 越南軍의 攻擊輸送戰에 있어 큰 役割을 遂行한 바 있다. 紛爭初期 中共의 空軍力은 美國製 航空機와 對電子戰裝備로 強化된 越南軍 防空體系에 直面하여 初期에 決定打를 얻어 맞고 急激히 그 勢力이 減退되어, 이후부터는 아주 近거리의 自軍 地上支援任務에 발을 묶이지 않을 수 없는 窮地에 몰리고 말았다. 中共이 最近에 와서 外國과의 航空機 導入에 따른 商談을 進行시키고 있는 것으로서는, 民間用으로서 英國製 BAe 146 4發 Tuvofan 輸送機(70~90座席)와 Airbus A 300 輸送機의 導入, 그리고 航空機엔진의 合作生産 等の 導入計

劃의 一環으로서 向後 3年半에 걸쳐서 約 70臺의 英國製 Harrier 戰闘機 導入計劃이 今年末쯤 그 契約이 成立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以上の 商談들이 그 結實을 본다하더라도 그 導入되는 大部分의 現代의 最新技術이 全의으로 그들의 舊式화된 既存 航空産業施設에 適用하게 될 것이고, 또한 中共의 現處地가 外換使用을 強力 統制해야 하는 切迫한 事情에 處해 있는 現 中共의 外換形便으로 보아 이러한 商談에 많은 부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본다. 더우기 中共의 現國內事情은 軍裝備의 現代化를 내세우는 反面 野心的인 經濟開發計劃을 同時에 追求하고 있어서, 現 中共의 餘力으로 보아 이들 中 그 어느 하나를 取하면 또 다른 하나는 餘地없이 犧牲되어야 하는 冷酷한 現狀下에서 그 갈피를 못잡은 제 끊임없이 그 投資優先順位가 갈광 질광하고 있는 形便이다.

앞으로의 英·中間의 商談 合意內容이 무엇이 되던 間에 또한 이것이 中共 航空産業에 如前히 長期的인 功獻이 이루어지던 間에 中共이 西方陣營과 어떤 信用關係를 維持시킬 수만 있다면, 中共空軍은 萬事を 제쳐 놓고 火急히 現代式

戰鬥機를 導入하지 않으면 안 될 緊迫한 處地에 놓여 있으며, 또한 이와 못지 않게 緊急한 것은 現代式 海上哨戒機와 重空 輸用 航空機들의 輸入事件이다. 이에 關聯된 일로서 最近 中共은 Lockheed P-3 Orion機와 Lockheed C-130 Hercules 輸送機 購入에 對한 關心을 表明한 바 있다. 이러한 中共側의 關心事에 對하여 購買對象 航空機의 選定과 이에 關聯되는 諸般 技術的 要求事項들을 早速히 中共側이 具體化해 줄 것을 美國政府에서 期待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美國의 카터 行政府가 美國製 武器類를 中共과는 去來하지 않을 것이라고 丙外에 公表한 事實이 있는 뒤이기 때문에 中共側이 美國과 直接的으로 武器를 去來한다는 것은 지금 現在로서 매우 기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에 이러한 中共側의 要求가 美國에 依해 拒絕될 경우, 兩國間은 오래간만에 서로 成立된 國交 關係에 相當한 害毒作用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와 反對로 만일 이 要求가 承認될 경우, 이와 같은 무게의 反射作用이 소련과의 대탕트席上에서 빚어지게 될 것은 自明한 노릇이다. 앞으로 中共의 航空勢力이 어떠한 形態로, 어떤 水準으로 形成되어 갈지는 매우 流動的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疑心한 여지가 없는 것은 80年代 中盤까지 그 어느 外國機가 中共 領空을 侵犯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여지 없이 “Farmer機(MIG-19)”의 邀擊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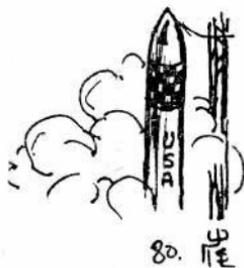


77 圖

美國의 戰略優位權의 喪失과

西歐에 미치는 影響

金 榮 漢 譯



西方側의 軍事的으로 困難한 處地가 現實化되어 이제는 切迫한 運命에 다달았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發表라고 많은 西歐人들이 初期에는 생각했을 것이다. 1981년부터 美國은 蘇聯의 戰略的 優位權을 認定해야만 할 것이고, 蘇聯이 大陸間 彈道彈(ICBM) Silo(地下發射臺)를 攻擊할 境遇, 美國이 核反擊을 할 수 없을 것이다. 蘇聯의 奇襲攻擊에 對한 核報復으로서 核反擊으로 蘇聯을 荒廢化시키기 爲해 「NATO」가 採擇한 防禦姿勢는 戰略武器分野에서의 蘇聯의 絕對的인 優位에 直面해서 無意味한 것이 되고 있다. 1981년부터 蘇聯은 地上基地大陸間彈道彈의 一部分만을 使用하여 美國의 都市와 產業中心地를 威脅하지 않고도 美國의 「Minuteman」미사일을 大部分 無力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美國의 反擊이 試圖될 境遇, 美國의 「ICBM

ilo가 破壞된 後에도 美國의 都市와 産業中心地가 蘇聯이 全滅시켜 버릴 수 있는 再攻擊의 目標物로서 남겨져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美下院의 軍事調查小委員會(the House Armed Services Investigation Sub-committee)의 議長인 Samuel S. Stratton 議員은 “最小限의 核報復理論(minimum deterrence theory)”의 確實성에 對해 強力한 疑問을 提起하는 研究를 引用하여 證言하고 있다. 이 理論에서는 核貯藏이 一定한 數의 武器를 超過할 때는 繼續되는 核武器의 增加는 더 以上の 抑制效果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戰略優勢權은 無意味하게 된다. Stratton 議員의 見解에 依하면 蘇聯은 美國이 SLBM을 保有하고 있다는 理由만으로 奇襲攻擊을 拋棄하지 않을 것이다.

“蘇聯은 여전히 數千個의 利用可能한 彈頭를 가지고 있으므로 美國이 「SLBM」을 發射한 것인가에 對한 決定은 實際的인 問題로서 美國의 主要都市를 쏘아 없애 버릴 수 있는 決定에 該當된다”고 「Stratton」議員은 말했다. “지금까지 「NATO」防禦政策에 根幹을 이루어 왔던 報復爆擊의 完全한 結論이 美大統領과

議會와 美國民에 依해 一但 承認이 되면, 「SLBM」은 전혀 發射되지 못한 것이다.” 美議會의 研究는 이러한 事實을 確認하였으며 美國防長官이 議會에서 이 問題를 놓고 討論한 바 있다. 다른 國防省官吏는 다음과 같이 主張하였다. “最小限의 防禦概念으로써 美國이 가지고 있는 것은 美國의 主要都市에 對한 攻擊을 막을 수 있는 能力인 것이며 반드시 戰略的인 部隊의 攻擊抑制에 對한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그러한 概念은 實踐力있는 世界強國으로서의 美國의 이미지를 排除시키는 것이다.”

美國人들의 솔직함은 認定할만하나 西歐에 對해 美國이 告白한 事實에 對한 영향은 너무나도 커서 여태까지는 政治的·軍事的 機關들로부터 어떠한 批評도 없었다. 西歐의 新聞은 이러한 냉정한 事實을 報道하고 있지 않지만 美國의 新聞은 西歐를 爲한 可能한 結論에 對해 1978 年初부터 이러한 問題를 討議해 왔다.

美·蘇間의 戰略武器競爭

戰略核武器分野에 있어서는 蘇聯이 完全히 優勢하다는 事實은 많은 西歐人들에게 커다란 놀라움을 불러 일으켰다.

美國의 戰略優位權의 喪失과 西歐에 미치는 影響

政治的·軍事的 當局者들은 물론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의 專門家들도 美·蘇 間에 있어서는 侵略者가 相對의 反擊으로 말미암아 敗北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兩大國이 先制攻擊을 양하려고 하는 “힘의 均衡”이 存在한다는 理論을 支持하고 있으므로 大部分은 이러한 問題를 理解할 수 없다. 美國이 戰略核戰力을 3個의 要素로 나누어(所謂 3大戰略體制) 堅固化된 格納庫 속의 地上基地 「ICBM」과 水中에서의 「SLBM」, 戰略爆擊機의 爆彈과 미사일로 構成되어 있는 反面에 西歐諸國은 美軍의 戰略核武器와 유럽에 配置된 戰術核武器, 유럽軍隊의 在來武器로 3大戰略體制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서 強調되고 있는 것은 戰略核武器의 發射命令權은 美大統領이 가지고 있으며 西歐는 이러한 武器에 對해 아무런 權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戰略武器競爭에 있어서의 最近變化는 奇變開發과 關聯되어질 수는 없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다 認定할 수 있는 範圍內에서 일어났으며 그 事實은 모든 사람에 對해 언제나 肯定的인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最近의 樣相에 對해 놀란다면 그것은 그가 利用可能한 諜報를 注視해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1963年부터 1976年까지의 美·蘇間의 武器競爭의 樣相을 보여주는 表 1을 보면 이를 確實히 알 수 있다.

表 1. 1963年과 1976年 사이의 美國과 蘇聯의 戰略武器運藏機의 數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美國	ICBM	424	834	854	904	1,054	1,054	1,054
	SLBM	224	416	496	592	656	656	656
	長距離 爆擊機	630	630	630	630	600	545	560
蘇聯	ICBM	90	190	224	292	570	858	1,028
	SLBM	107	107	107	107	107	121	196
	長距離 爆擊機	190	175	160	155	160	155	145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美國	ICBM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SLBM	656	656	656	656	656	656	656
	長距離 爆擊機	550	505	455	442	437	432	387
蘇聯	ICBM	1,299	1,513	1,527	1,527	1,575	1,618	1,527
	SLBM	304	448	500	628	720	784	845
	長距離 爆擊機	145	145	140	140	140	135	135

表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63년에는 美國이 여전히 絶對的인 戰略的 優位權을 가지고 있었다. 1969년까지 蘇聯은 美國보다 「SLBM」과 戰略爆擊機의 數는 떨어지지만 「ICBM」의 數는 거의 같았다. 美國이 自發的으로 戰略武器에 있어 그 數를 削減하는 동안에 蘇聯은 繼續 武器를 增加 配置하였으며 1972년에는 數的 優位를 차지하였다. 그러한 狀態에서 兩國은 條約을 締結하여 「SALT I」

協定에 그 數를 制限시켰던 것이다. 美國은 이러한 數的 不均衡을 多彈頭 또는 「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미사일을 配置하는 技術的인 優位로서 補充할 수 있다고 믿었다. 「CEP(Circular Error Probability, 圓形公算誤差)」와 關聯하여 생각해 볼 때에 美國의 것이 蘇聯의 第1代 「ICBM」보다는 훨씬 正確한 것이었고 小規模의 가벼운 低核力彈頭(lower

表 2. 美國과 蘇聯의 主要한 戰略武器

美 國				蘇 聯			
種 類	年	核 力	彈頭數	種 類	年	核 力	彈頭數
ICBM							
Titan 2	1962	5~10MT	1	SS-7	1961	5MT	1
Minuteman I	1962	1MT	1	SS-8	1963	5MT	1
Minuteman II	1966	1~2MT	1	SS-9	1965	20~25MT	1
Minuteman III	1970	200KT	3	SS-11	1966	1~2MT	1
				SS-13	1968	1MT	1
				SS-17	1975	KT	4
				SS-18	1975	18~25MT	1
				SS-18	1975	MT	8
				SS-19	1975	KT	6
SLBM							
Polaris A2	1962	800KT	1	SS-N-4	1961	MT	1
Polaris A3	1964	1MT	1	SS-N-5	1964	MT	1
Polaris A3	1964	200KT	3	SS-N-6	1969	MT	1
Poseidon	1971	50KT	10	SS-N-8	1972	MT	1
				SS-N-3	1962	KT	1
AGM							
Hound Dog	1961	KT	1	AS-3	1961	KT	1
AGM-28B							
SRAM	1972	KT	1	AS-4	1962	KT	1
AGM-69A							

-yield warheads)로서 目標物을 破壞할 수 있는 것이다. 美國은 技術的으로 進歩된 武器體制로서 比較的 적은 經費를 들여 要求되는 命中率을 얻으려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蘇聯으로 하여금 高核力미사일을 더 많이 配置하게끔 하였다.

表 3. 1972年 兩大國의 破壞能力

	美 國			蘇 聯		
	미사일數	彈頭數	核爆發力 MT	미사일數	彈頭數	核爆發力 MT
ICBM	1,054	2,154	1,000.5~1,720.5	1,527	1,527	7,259~10,245
SLBM	656	5,440	344.0~344.0	845	845	845~4,225
AGM	1,900	1,900	65.5~65.5	1,000	1,000	10~10
計	3,610	9,494	1,410.0~2,130.0	3,372	3,372	81,140~14,480

當時에 美國은 3,610기의 미사일을 保有하고 있었으나 利用可能한 모든 것이 活用된다면 全部 9,494個의 彈頭를 保有하고 있었으며 反面 蘇聯은 3,372기의 미사일에 同數의 彈頭를 保有하고 있었다. 當時 美國의 생각은 要求되는 命中率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적은 核彈頭의 核爆發力(最小限 1,410MT, 最大限 2,130MT)으로 充分할 것이라는 反面, 蘇聯은 미사일의 命中이 不正確하기 때문에 8,114MT에서 最大限 14,480MT의 미사일을 配置할 必要가 있었다. 이러한 것은 많은 努力과 經費, 더 強力한 로케트를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表 2는 美·蘇의 核武器의 主要한 特性에 對해 比較하고 있다.

두 强大國의 破壞能力을 比較해 보기爲해서는 미사일의 數와 核彈頭, 核力을 比較해 볼 必要性이 있으며 表 3은 1972年의 樣相을 나타낸 것이다.

最終手段으로서의 Détente

이러한 새로운 狀況은 두 나라가 偵察 衛星에 依하여 相對의 活動을 監視할 수 있으므로 相對國에는 秘密이 될 수 없다. 衛星에 搭載된 感知機들은 차례차례로 相對의 武器配置를 追跡할 수가 있다. 武器競爭에 있어 決定的인 要素는 武器의 크기가 아니라 聯合探索, 開發努力과 生産能力인 것이다. 이러한 要素들이 兩國에 있어 同等하지 않다면 한 나라가 優位에 선다는 것은 時間問題인 것이다.

蘇聯이 公開的으로 武器競爭을 한다면



戰略的 優勢는 다음 몇 世代에 걸쳐 世界 政治의 向方을 決定지을 것이기 때문에 西歐諸國의 支援을 받은 美國의 道義를 받아 危機에 處하게 될 것이다. 絶對的인 戰略的 優位權을 가지고 政治的으로 서슴없이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나 軍事的으로 全世界를 장악할 것이고 그림으로써 全世界의 政治的인 主權權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經濟的으로 다른 나라를 利用할 수도 있는 것이다.

主權權을 잡기 爲하여 蘇聯은 繼續 武裝을 強化해야만 했고 同時에 美國과의 武器競爭에 이겨야 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는 가장 確實한 方法은 미끼로서 世界平和을 假裝한 Détente를 助長하는 것이다. 結局 戰爭이 政治的인 道具로서 더 以上 使用되지 않는다면 武器의 核心

은 무엇인가?

1972年 以來의 政治的인 活動을 살펴 보면 蘇聯이 成功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一核武器의 讓渡를 禁하는 核擴散禁止條約, 戰略武器를 制限하는 協商(SALT I 協定과 그에 繼續되는 協定), CSCE會談과 MBFR會談 등을 통하여 西歐와 美國에게 蘇聯이 西歐資本主義形態의 政府를 破壞시키지 않고 世界平和을 保存하는데 커다란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 希望과 信念을 불어 넣어 주는 데 있어— 1967年 以來로 美國은 戰略武器를 量的으로 擴張시키기 보다는 質的인 面에 集中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프랑스를 除外한 西歐諸國은 美國의 防衛力에 全的으로 依存해 왔고 그 自信의 核力을 增強시키지 않았다. 西歐諸國이 저마다 利己的인 利益을 가지고 있기 때

表 4. NATO와 바르샤바 條約國間의 人口比較

	蘇 聯	東歐衛星國	바르샤바 條約國	西歐의 NATO國	美 國 캐 나 다	NATO 條約國
人口(백만)	243.6	104.35	352.95	299.14	228.80	527.94
面積(km ²)	22,400,200	990,167	23,392,367	2,714,289	19,339,262	22,053,551
人口密度 (名/km ²)	11.1	105.38	15.08	110.20	11.83	23.93

문에 政治的, 軍事的 單一體를 構成한다는 것은 美國이나 蘇聯을 非難할 수는 없는 問題이다. 두 強大國의 人口를 比較한 表 4를 보면 統合유럽이 兩大國과 똑같은 權利를 가진 相對國이 될 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西歐유럽이 統合되지 않았다는 事實은 民族, 特別히 統合유럽이 戰前의 希望이라고 생각해 온 젊은이들에 그 失敗를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1970年代 末인 오늘날은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美國의 失手

2次世界大戰 末期에 美國의 絶對的인 戰略權의 喪失은 大體로 맨 먼저 戰略武器를 保有하였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美國이 만약 日本과의 戰爭을 終結하는 데 뿐만 아니라 獨裁과 共產主義보다 自由와 民主主義를 더 높이 評價하는 美國의 同盟國이나 獨立國의 權利를 守護하는 데 使用하였더라면 歷史의 흐름



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2次世界大戰에 잇따른 蘇聯의 膨脹政策은 西歐諸國의 失手와 그들이 必要時 行動하기를 拒否했기 때문에 可能할 수 있었다. 유럽의 한 政治家가 오늘날 蘇聯武裝政策의 根本目的을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美國에 對해서는 絶對的인 戰略優位權을 그리고 英國에 對해서는 經濟의 再建設과 生活水準을 높이는 優先權을 주는 同時에 世界革命을 위한 레닌의 政治的 目的과 스탈린의 1940年代 敎示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政治的 目的에 到達하려는 計劃은 蘇聯參謀(Soviet general staff)에 依해 세워졌으며 그 事實이 美國情報機關에 依해 確認되었다. 그 以後로 蘇聯은 理論的으로는 이 計劃에 따라 行動해 왔다. 그러나 未來에 그들이 다르게 行動할 것인지에 對해서는 아무런 證據도 없다.

이 計劃은 軍需産業을 增強하는데 必要한 科學者와 技術者의 敎育과 訓練을 包含하고 있다. 이 計劃에 成功한 事實들이 「Donald Rumsfield」前美國務長官이 委任한 한 研究에서 밝혀졌으며 現在 出版中에 있다. 이러한 알려진 事實들로

부터 끌어낼 수 있는 論理的 結論은 蘇聯이 곧 美國의 水準에 到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巨大한 積載爆發力(Payload)과 몇 배의 總核力을 가진 많은 數의 「ICBM」과 「SLBM」을 蘇聯에게 許用하는 協定은, 무엇보다도 條約에 依하여 蘇聯이 重大한 技術的 增強으로 第1世代武器體制(First-generation weapon system)를 第2, 第3世代武器體制로 代置하도록 許用하였다면, 蘇聯에 絶對的인 優位權을 주어 왔던 核膠著狀態로 歸結되었다고 여겨진다.

美國이 追求한 武器制限政策의 成果는 「Vladivostok」會談 以後로 再檢討될 수 있다. 多彈頭와 核力의 相異性을 認定하면서 兩側이 同意한 미사일의 數를 比較해 보면 된다. 表 5는 1980年의 두 強大國의 破壞能力을 比較해 본 것이다. 1972年과 比較하여 蘇聯의 核彈頭數가 顯著히 增加한 것을 特히 注目해 보시오.

表 5에서 잠깐 살펴보면 美國과 蘇聯이 同數의 戰略미사일과 彈頭를 保有하고 있으나 蘇聯의 總核破壞力은 美國의 거의 7배에 達하고 있다. 美國이 蘇聯의 미사일地下格納庫에 對해 ICBM을 全部 發射한다면, 精密히 計劃된 增強策으로

表 5. 1980年 兩大國의 破壞能力

	美 國			蘇 聯		
	미사일數	彈頭數	核爆發力(最小-最大)MT	미사일數	彈頭數	核爆發力(最小-最大)MT
ICBM	1,054	2,154	1,000.5~1,720.5	1,527	7,393	7,259~10,245
SLBM	656	5,440	344.0~344.0	845	845	845~4,225
AGM	1,900	1,900	65.5~65.5	1,000	1,000	10~10
計	3,610	9,494	1,410~2,130.0	3,372	9,238	8,114~14,480

約 68%까지 空輸한다고 하더라도 蘇聯 미사일의 16% 만을 破壞한 뿐이다. 蘇聯은 이미 年間 150~200기의 比率로 미사일 代置를 始作한 反面, 美國의 境遇는 豫算도 生産設備도 「Minuteman ICBM」의 增強을 爲해 使用할 수 없는 형편이다.

蘇聯은 그들의 「MIRV」技術을 美國의 技術과 同等할 水準까지 發展시켰다. 「0.1N/M(185m)CEP」의 正確도를 가진 蘇聯의 新型 「SS-18」미사일은 「0.2N/M(370m) CEP」의 美國의 「Minuteman III」미사일보다 正確하다. 더욱이 「SS-18」의 核彈頭는 1~2MT인 反面 「Minuteman III」미사일은 단지 200KT의 核彈頭단을 運搬할 뿐이다. 이러한 狀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美國의 武器가 構想中에 있으며 빨라야 7~10年안에 作戰可能할 것이다.

美國側으로서의 結論

美國과 蘇聯의 勢力均衡의 變化는 유럽의 政治家, 軍事指導者와 分析家들을 놀라게 했을 것이다. 「Kennedy, Johnson, Nixon」大統領下에서 海軍作戰部長 (Chief of naval operations)을 지낸 바 있는 「Elmo R. Zumwalt」提督에 依하면 세 大統領이 모두 이 變化를 意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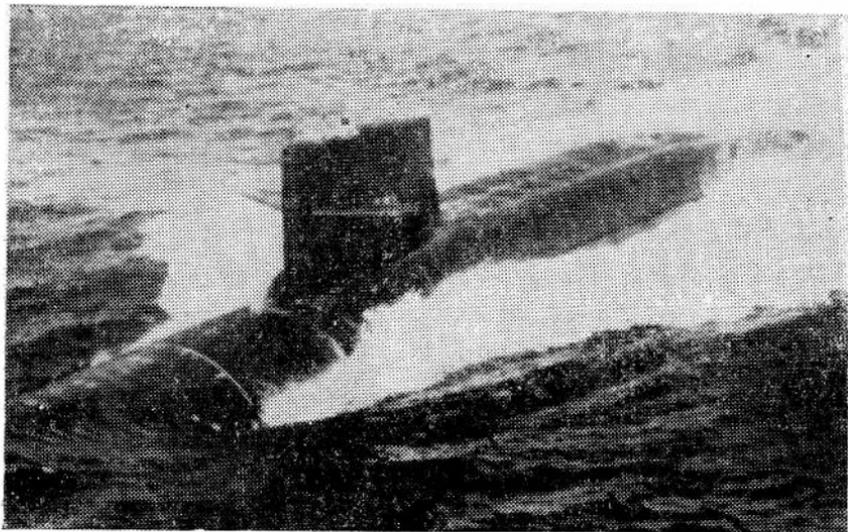
蘇聯이 단순히 西方世界와 同等하다는 것에 滿足하려 하지 않는다는 事實은 衛星偵察의 結果 明白히 드러났었다. 1974年 1月 24日 「Nixon」大統領은 議會가 蘇聯과의 競爭에 必要한 豫算에 投票하려 하지 않자 그는 美國이 戰略적으로 劣勢라는 事實을 認定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宣言하였다.

그에 따라 美國은 實際狀況에 따른 防

禦姿勢를 取할 것을 採擇하였다. 그들의 都市와 産業中心地에 對한 威脅이 深刻하면 할 수록 美國은 核武器使用을 더욱 꺼렸다. 美國에서의 戰略武器體制의 豫算水準은 同等한 戰略武器를 維持할 수 없었고, 計劃된 水準에 到達된 後에도 生産을 지연시켰다. 그와 對照의으로 蘇聯은 軍需産業을 擴張시켰으며 確實히 絶對인 優位權을 가질 때까지 生産을 繼續하였다. 蘇聯이 決定的인 優位에 到達한다는 것은 時間問題가 되어 버렸다.

西歐가 美國의 防禦姿勢를 技術의 優位の 表示로서, 더 나아가 生命을 尊重하

는 人道主義의 發展으로 여겼다는 事實은 現實狀況에 西歐인들이 어둡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變化는 全的으로 繼續되는 蘇聯의 武裝과 美國에 對한 增加되는 直接的인 威脅의 結果인 것이다. 이는 美國 「SALT」 代表團의 高문인 「Robin Beard」 下院議員에 依하여 確認되었으며 그는 1978年 3月初 카터 行政府가 美國의 防禦에 充分한 “diad”案이나 “blue water minimum deterrence option”을 받아 들이려 했다고 말했다. 이 案은 以前의 美防衛政策과는 判異한 것이다. 이것은 美國의 都市들이 攻擊을 받는다면



「SLBM」만을 사용한 核攻撃을 構想하고 있다. 反擊은 그럼으로써 受動的으로 地上基地의 「Minuteman ICBM」의 攻撃이 뒤따르게 된다. 美國의 人口를 保護하기 위해 美國內에 配置된 戰略미사일에 對한 蘇聯의 攻撃後에 核反擊이 取해지지 않는다면 西歐는 유럽이 攻撃받을 境遇에 美國의 戰略武器로부터 어떠한 保護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인가? 西歐가 軍事力을 強化하기를 바라는 美國의 要求는 未來의 戰爭에 適應시키려는 意圖가 아니며 美國의 人口가 全滅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蘇聯이 反擊하는 意圖가 이러한 데 있다면 西歐의 破壞는 어떠한 境遇에 있어서도 어떠한 方法으로도 막지 못할 것이다.

中性子彈이 西歐를 防禦할 수 있을 것인가?

中性子彈의 生産을 카터大統領이 아직까지 認定하고 있지는 않으나 西歐는 蘇聯의 탱크部隊를 破壞하는 한 手段으로서 中性子彈을 庇護하고 있으며 強力한 蘇聯의 탱크部隊로부터 西歐를 保護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中

性子彈으로도 蘇聯이 計劃하고 있는 破壞는 면할 수는 없다. 그와 反對로 表에 나타난 바는 다르다. 表 6은 프랑스나 英國의 地對空防禦를 考慮하지 않고 發射臺를 包含하여 유럽에 配置된 核武器에 對해 살펴보고 있다.

中距離有効距離를 가진 「Scud A」와 「B」 戰術미사일 만으로도 西歐를 황폐화시킬 수 있으며 數年間 그 地帶에 人間이 살 수 없는 것이다. 「Weizäcker」 教授의 研究論文인 “Kriegsfolgen und Kriegshütung 戰爭의 結果와 그 防止”에 依하면 豫想되는 破壞의 範圍를 仔細하게 쓰고 있다.

西歐의 出版物은 效果的으로 「NATO」가 中性子彈을 使用하면 蘇聯은 그들의 核武器를 使用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中性子彈을 保有하고 있지 않으므로 在來式 手段으로 攻撃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力說해 왔다.

이러한 推理는 非論理的이며 在來式 手段에 依해 軍事的인 抵抗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初期에 核武器를 使用하려는 蘇聯의 戰略과 戰術과 一致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NATO」가 最初로 核武器를 使用한다면 一中性子彈도 包含一 蘇聯

表 6. 유럽에서의 戰術核武器

NATO	바르샤바條約國
3,000個의 彈頭(1~2KT) · 300(430)基의 155mm SP曲射砲 · 1,020(1,400)基의 203mm SP曲射砲 · 150(250)基의 175mm SP曲射砲	? 彈頭 ? M-1975 152mm SP砲
1,000個의 彈頭(40~400KT) · 600基의 Sergeant 戰場支援미사일 CEP 300m · 425基의 Pershing 1A 戰場支援미사일	1,700個의 彈頭 · 600(800?) Frog 3~7 戰場支援미사일 · 300(800?)基의 Scud A/B 戰場支援 미사일 · 100基의 Scaleboard 戰場支援미사일
2,250個의 彈頭 · 1,000臺의 地上基地核攻撃機	? 彈頭 · 2,200臺의 核攻撃機
計: 西獨에 配置된 5,000個의 彈頭를 包含하여 유럽의 69個 場所에 7,000(10,000)個의 彈頭	計: 3,500個의 彈頭

은 核武器使用을 조금도 꺼리지 않을 것이다. 中性子彈을 導入한다는 것은 敵核攻撃의 威脅을 줄이고 戰爭에 있어 先制攻撃하는 從來의 段階를 短縮시키는 것이다. 美國에 依한 中性子彈의 보류는 西歐가 必然的으로 中性子彈없이도 效果的으로 防禦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在來式이기는 하나 優秀한 武器體制로 再武装함으로써 攻撃을 단념해 버릴 것인가라는 問題를 再考하게끔 하고 있다.

西歐에 있어서의 蘇聯의 戰爭意圖

蘇聯이 西歐로부터 被害를 입지 않고 (1981년부터는 그러한 危險을 考慮치도 않을 것이다) 西歐를 破壞시킬 수 있는 武器를 이미 保有하고 있다는 事實을 認定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蘇聯이 그와 같은 戰爭에서의 意圖가 무엇인가 하는 疑問이 떠오른다. 表 6을 보면 政治的, 軍事的 豫見이나 推測보다는 納得이가는 對答을 주고 있다.

蘇聯의 武裝計劃의 目的은 西歐의 經濟를 調整하고 그것을 蘇聯에 利益이 되게끔 活用하기 위한 政治的인 狀況을 만들기 위해 歐美에 對해 絶對的인 優位權을 얻으려는 데 있다. 그러한 狀況下에서 西歐의 生産品은 더 以上 資本主義體制의 價格이나 通貨體制에 따라 支拂될 수는 없으며 東歐圈의 社會主義體制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것은 短期間內에 蘇聯國民이 數世代에 걸쳐 감수해야 했던 物質的 犧牲에 對한 補償이 될 것이다. 西歐의 經濟를 調整한다는 것은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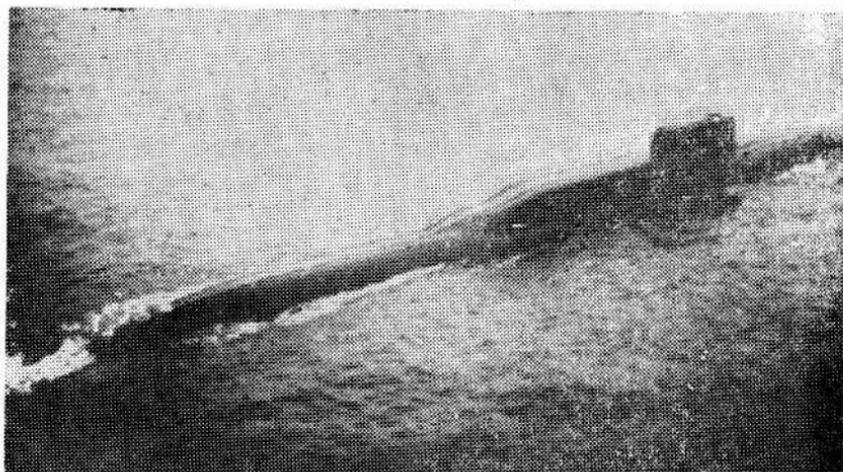
한 다가오는 數世代 동안 中共에 對해 蘇聯이 優位에 선다는 것을 意味하며 이미 蘇聯軍事力에 依해 試驗된 世界支配를 強化할 수도 있을 것이다. 表 7에서 鐵鋼, 電機, 石油와 天然「Gas」, 石炭의 1年 生産을 比較해 보면 戰爭의 被害를 입지 않고 西歐의 生産能力이 바르샤바條約國의 生産과 合해 진다면 레닌主義者의 世界革命은 達成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감히 蘇聯에 挑戰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表 7. NATO와 바르샤바 條約國간의 經濟比較

	蘇聯	東歐 衛星國	바르샤바 條約國	西歐의 NATO國	美國/ 캐나다	NATO 條約國
年間生産 :						
鐵鋼(백만톤)	131.0	46.60	177.60	130.32	120.10	250.42
電機(10억kwh)	915.0	297.70	1,212.70	963.26	1,927.73	2,890.99
石油(백만톤)	421.0	17.15	438.15	15.80	608.20	624.0
天然가스(10억m ³)	236.0	34.0	270.0	—	—	—
石炭(백만톤)	668.0	631.70	1,299.70	437.35	526.70	964.05
無煙炭(백만톤)	495.0	196.80	691.80	312.70	518.40	831.10

蘇聯은 西歐의 經濟를 完全히 支配하기 위한 政治的인 次元에서의 方法을 模索할 수 있다. 이러한 方法은 西歐가 그릇된 安保意識을 갖게 하고 그럼으로써 西歐의 경제적과 防禦하려는 意志를 弱화시키려는 모든 手段을 包含하고 있다. 이러한 方向에서 가장 劇적이고 政治的

인 段階가 西歐의 이른바 「détente」 政策에서 明白해 지고 있으며 이는 西歐側 으로는 適切한 防禦를 하기 위한 準備를 弱화시킨 反面 東歐로 보아서는 增強된 武裝을 갖추게끔 하였다. 「CSCE」, 「M FBR」, 「SALT」와 核擴散禁止條約 등이 모두가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에完



全히 相異한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 蘇聯이 武裝하지 않겠다는 證據가 없기 때문에 蘇聯側으로는 이러한 協商은 단순히 서로 相異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이라는 것은 明白한 것이다.

1978年 初에 평단이 있는 美國의 日刊紙인 “Boston Globe”紙는 「Prague」에서의 東歐共產黨指導者會議에서 「Leonid Breznev」가 行한 演說을 게재했다. “1935년까지 「détente」의 結果로서 우리는 西歐에서 우리가 意圖했던 大部分의

目的을 達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經濟를 伸張시켜야 합니다. 1985년에 우리는 必要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意圖대로 할 수 있을 만큼 兩大勢力에 決定的인 變化가 있을 것입니다.” 現狀況대로라면 「Breznev」의 말이 옳을 것이다. 但只 하나 남은 疑問이 있다면 西歐가 政治的 目的을 保持하고 1990年代에 生活水準을 維持하기 爲해 어떠한 機會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情報評價業務의 向上方案 (2)

林 貞 赫

3. 情報評價의 隘路點

情報의 評價作業을 向上하기 위해서는 그 隘路點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과감히 제거하는데 있다고 본다.

前號에 進술한 바와 같이 適時에 正確히 評價된 情報은 敵의 奇襲이나 主導權을 회피하는데 이바지 한다. 그러나 이런 情報을 얻기가 어렵다. 심지어 쉽게 捕捉를 入手하더라도 심각한 誤判을 할 우려가 있다. 어떤 것은 過小評價를 하고 어떤 것은 過大評價를 하게 된다.

우선 이런 실패는 그 원인이 共產國家의 秘密性에 있다고 본다. 全體主義體制에서는 그들의 活動을 은폐하기 쉽고, 반면에 면밀한 計劃下에 그릇된 諜報를 밖으로 流出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隘路 때문에 情報機關은 利用할 수 있는 모든 出處와 蒐集方法을 活用하게 된다. 科學技術의 發展으로 諜報蒐集은 人工衛星이나 기타 戰略偵察機와 같은 科學器機를 活用하게 된다. 또한 많은 諜報를

이 公開諜報에서 얻어진다.

그러나 어려운 問題는 蒐集보다도 解釋과 評價에 있다. 그렇다면 解釋과 評價에 어떤 隘路가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알아야 할 問題提起라고 볼 수 있다. 英國空軍의 한 專門誌(The Royal Air Force Quarterly, Autumn 1973, p. 224.)는 그 隘路를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 機械的 隘路(Mechanical Difficulties)

■ 心理的 隘路(Psychological Difficulties)

■ 機構的 隘路(Organizational Difficulties)

■ 政治·文化的 隘路(Political, Cultural Difficulties)

이 分類은 앞에서 언급한 이스라엘軍 情報部의 情報評價의 過誤에 대한 보다 體系의인 分析에 이바지한다고 생각된다.

(1) 機械的 隘路

機械的 隘路는 諜報 그 자체에 붙어다니는 에로를 말한다. 우선 入手되는 諜報의 量에 對한 量도 항상 두통거리가 된다. 그리고 그 諜報들은 크게 두 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즉 하나는 信號(Signal)이고 또 하나는 雜音(Noise)이다. 行動의 “信號”라 하는 것은 敵對方이 취하려는 行動 또는 企圖에 대한 徵候, 端緒 또는 證據를 뜻한다. 반면에 “雜音”은 옳은 方向을 지적하는 徵候를 모호하게 하여 그릇된 方向으로 유도하는 불필요하고 일관성이 없는 信號를 말한다.

여기에서 隘路를 느끼는 것은 한 諜報가 “信號”이냐 아니면 “雜音”이냐를 똑똑히 區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事件이난 事態가 끝난 다음에야 그 諜報가 信號이 있는지 雜音이 있는지를 알아내게 된다. 즉 한 事件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릇된 諜報와 危險을 알리는 諜報를 구별하기 곤란하다.

1941년 日本의 眞珠灣奇襲 前의 事態가 여기에 해당된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할 때의 사태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美國은 오히려 過多할 정도의 많은 諜報를 가지고 있었지만, 敵對方의 行動을 의심의 여지없이 정확히 지적하는 諜報가 부족하였다. 예컨대 眞珠灣 攻擊이 있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判斷이 概念化되어 있어, 이와 다른 諜報는 거들며보지 않았다. 즉 日本이 侵攻的인 行動을 취한다면, 太平洋에 있는 美軍이나 基地를 직접 攻擊하지 않고, 極東에 있는 英國과 和蘭의 領有地를 그 對象으로 할 것이다 라는 假說이었다. 또 이와 같은 事例은 前述한 4次中東戰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다.

따라서 한 諜報가 그릇된 “雜音”인지 아니면 敵의 企圖나 行動을 지적하는 “信號”인지를 구별하고, 그 信號가 概念化된 假說과 틀리더라도 이를 客觀的으로 그리고 科學的으로 評價해야 할 것이다.

(2) 心理的 隘路

위의 機械的 隘路는 心理的 隘路和 重複되면, 똑똑한 評價를 할 수 없으며 심지어 “雜音”의 정도가 최하로 줄어지더라도 敵對方의 意圖를 정확하게 判斷하기 곤란하다.

情報活動의 心理的 次元은 가장 복잡

하고, 전체 過程에서 현혹시키고 또 가장 귀찮은 문제이기도 하다. 이 心理的 隘路 때문에 信號를 똑똑히 知覺하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우선 사람은 자기가 보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만을 보고, 敵對方의 앞으로의 行動에 관한 入手되는 “信號”를 자기의 信念, 期待에 비추어서 解釋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先入觀念을 바탕으로 한 信念과는 모순되는 諜報가 있으면, 그것은 쉽게 是認되지 않는다. 또한 이런 諜報는 그릇된 信念을 再確認하는 다른 諜報에 눌려지게 된다.

韓國戰에서 中共이 介入함으로써 美國은 크게 놀랐다.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즉 유엔軍이 거의 勝利의 문턱에서 있을 때 中共이 介入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眞珠灣의 美國艦隊를 日本侵略에 대한 抑制力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抑制力이 도리어 口味가 당기는 目標物이 될 수 있다는 事實을 認識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問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것은 결국 사람은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을 보며, 그리고 믿기 어려운 信號를 무시하는 傾向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른바 “Cry-Wolf” 現象이다. 속담에 장난삼아 늑대가 왔다고 남을 속이고, 결국 진짜로 늑대가 왔을 때, 늑대가 왔다고 소리를 질러도 또 거짓말이겠지 하고 들보지 않아 참변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Cry-Wolf」 現象은 情報評價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즉 과거에 허위첩보 또는 별 가치가 없다고 판명된 內容과 비슷한 諜報가 入手되면, 그것을 무시하는 일이 있다.

戰史에서 볼 때, 眞珠灣에서는 여러 차례 日本軍 來襲이라는 警報를 내린 바 있었지만, 그것이 그릇된 諜報라는 것이 判明되었으며, 이 때문에 진짜 奇襲의 警報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1962년에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했다는 報告가 허다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重大한 事態이기는 했지만, 같은 말을 자주 反復하면 듣는 사람이 도리어 無感覺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精確한 評價를 하지 못하게 된다. 쿠바에서 소련군이 미사일을 설치하고 있다는 많은 徵候가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결국 U-2 정찰기가 확고한 航空寫眞을 제시함으로써 겨우 밀게 되었다.

4次中東戰에서도 「Cry-Wolf」現象이 있었다. 73년 5월에 總參謀長인 세이라中將은 아랍의 심상치 않은 動向을 보고 部分動員을 단행했으나 허탕을 치고 말았다. 그 후 진짜 奇襲 때에는 「戰爭勃發의 可能性 없음」으로 誤判하게 되었다.

(3) 機構的 隘路

위에서 보드시피, 情報化 過程에서는 偏見(Prejudices)과 劃一主義(Stereotypes)는 가장 무서운 敵이 된다. 이와 같은 傾向은 情報將校 個人뿐 아니라, 한 部署, 한 情報機構에 존재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진다.

情報將校는 저마다 自己自身の 現實을 構成하며, 이 構成을 準據로 하며, 어떤 事態나 狀況을 解釋하게 되지만, 한편 한 情報機構의 現實도 있으며, 이것이 各自의 現實을 安定시키고 급작스러운 信念의 變化를 가로막게 된다. 이리하여 하나의 支配의인 信念이 機構內容에 강력하게 침투되어 결국 事實을 옳게 評價하지 못하게 된다.

情報分野의 高位層들은 가끔 자기 자신

의 見解와 價値를 자기가 이끄는 部署 全般에 침투시키는 일이 있다. 그들의 信念과 欲望이 下部까지 침투되어 결국 엄격한 一致性을 낳게 된다. 下級情報將校는 자기의 上司가 불만스럽게 여길 것으로 보는 諜報를 提出하기를 당서된다.

한 軍事評論家는 이렇게 말하였다. 「諜報傳達은 報償, 進級, 費用으로 影響을 받는다는 事實 때문에 전체의 傳達體制가 最高責任者의 아이디어와 計劃에 따라 歪曲된다고 본다」. 더욱 下級者가 용기를 내고 환영을 받지 못한 諜報를 傳達하더라도 그것이 接受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情報部署는 엄격한 時間制約을 받기 때문에 基本的이고 重要한 業務보다도 緊急한 일에 優先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假說이나 先入觀에 따라 어떤 方案이 選定되면, 그것이 더욱 굳어지며, 고치기 어렵게 된다. 새롭고 급격한 異質의인 情報評價는 받아지기 어렵게 된다.

(4) 文化的 隘路

끝으로 가장 重要한 隘路의 하나는 文化的 隘路이다. 즉 自己自身을 다른 사

남의 立場 또는 敵對方의 立場에 서서 評價하는 일은 극히 어렵다고 본다. 즉 敵을 自己의 立場에서만 評價하는 일은 위험하며, 적어도 敵의 價値觀, 信念, 慣習 기타 모든 文化的 要素를 알고, 그 立場에서 敵을 評價해야 한다고 본다.

文化的, 이데오르기의인 差異가 크면 클수록 이 問題는 더욱 심각하다. 예컨대 眞珠灣攻擊이 있기 전에는 日本이 戰爭遂行 潛在力이 몇 배 큰 美國을 상대로 무모한 戰爭을 일으키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駐日美大使인 Grew氏도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다. 그는 후에 「日本의 國家的 正氣는 우리(美國)의 論理的 基準으로는 짚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日本人의 價値觀, 信念, 宗教, 기타 모든 文化的인 要素를 옳게 評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教訓은 잘 消化되지 못했다고 본다. 이런 失手는 막대한 代價를 지불하기 마련이다. 韓國戰에서도 같은 失手が 있었다. 유엔軍과 韓國軍이 北進하여 國境에 가까웠을 때, 그것이 새로 政權을 잡은 中共에게 어떤 威脅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評價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中共 政權이 아직 확고한 基盤을 닦지 못했을 때, 自己의 門前에 強力한 敵이 닥아왔으므로 挑戰하리라는 것을 내다보지 못했다. 결국 情報評價에 있어서는 相對方의 立場에 서서 판단해야 하며, 이러기 위해서는 敵의 文化的 要因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위의 事例에서 보듯이, 情報評價業務의 向上을 위해서는, 上述한 여러 가지 隘路를 克服하고 보다 合理的인 運用에 全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前進翼〈Forward Sweep〉

航空機 開發



윤 형 기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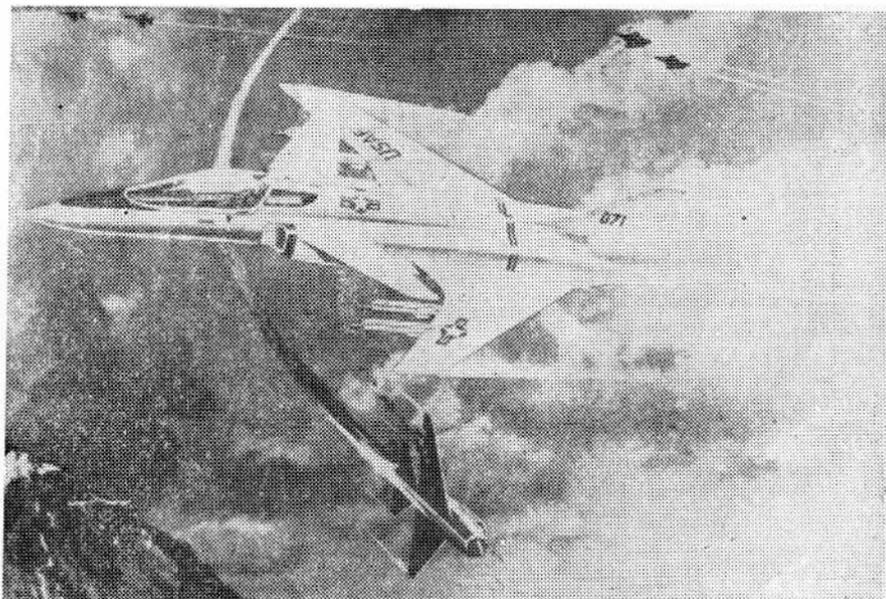
B-1戰略爆撃機의 개발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명칭의 변화와 Rockwell社의 행운을 뜻하는 것이었다.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은 퇴직을 하였고 숙련된 항공 기술자들은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하였으며 North American社의 시대에서 비롯되었던 건물들이 판매되었다. B-1 Division은 Los Angeles Division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Rockwell사의 Military Aircraft Division을 형성하기 위하여 Columbus사와 병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Los Angeles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는 B-1을 개발하고 F-18을 제작한 Northrop社였다.

카터대통령의 삭감의 선풍 속에서도 Rockwell사의 계속되는 Skill을 입증하

는 2가지 계획 즉, HiMAT(Highly Maneuverable Aircraft Technology) 및 Forward Swept Wing(FSW) 개발 계획이 부각되었다. HiMAT는 비록 원격조종 연구단계의 Vehicle이기는 하지만 기존 항공기로서는 가장 발전된 항공기일 것이다.

HiMAT는 각종 최첨기술의 상호이점을 입증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Rockwell사는 HiMAT를 이용하여 공력탄성적으로 구성된 혼합물질의 구성에 대하여 경험을 하게 되었고 前進翼항공기의 장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44년에는 Junker Ju 287 爆撃機가 있었으며 전쟁직후에 Rockwell사는 (North American社로서) 前進翼 Mus-



Forward sweep-Rockwell's new broom.

tang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1963년에는 HFB Hansa Jet회사는 前進翼 대산에 後退翼으로 Wing을 고정시켜서 다른 임무용 Jet기와 자체에서 개발한 항공기와 구별시켰다. 최근에 와서는 RFB Fan-trainer는 알맞은 전진익角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前進翼에 대한 Idea는 새로운 Idea가 아니며, 제반이점(보다 사용하기에 편리한 Lift와 보다 느린

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들은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어찌서 동 Idea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동 Idea가 제출된하지 않았을까?

전진익 항공기는 구조상으로 불완전하며 약간의 입사각만 주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체가 많은 입사각을 받는다. 하중시에는 Wing은 굽어지며 날개와 같이 각을 이루는 굽힘축(Flexural axis)을 따라 휘어진다(다음 그림 참조). 후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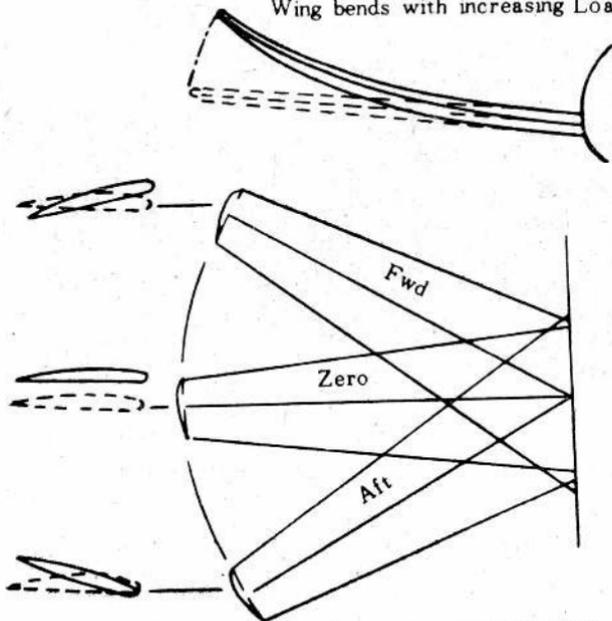
에서는 이 축은 전연에 비하여 후연 (Trailing edge)이 위로 휘어진다.

Wing의 앞쪽아래로 뒤틀림과 양각의 감소는 선회시 하중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후퇴익은 안전하며 최초로 발생하는 불

안정상태 (Disturbance)를 감소시킨다.

前進翼 (Forward swept wing)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대현상이 발생되며 Wing이 앞쪽 위쪽으로 비틀리고 Angle-of-attack와 Loading이 증가된다. 이와같

Wing bends with increasing Load



Bending causes wing to twist

Heading Forward swept wing technology can provide a small and cheap fighter with considerable manoeuvrability. Rockwell envisages the aircraft countering massed enemy air attacks, where its small size helps survivability and its low cost increases the numbers available.

Right The catch. Conventional metal wings under load twist leading edge down when swept aft but twist leading edge up when swept forward. Leading edge down decreases the load, leading edge up increases the load and the wing diverges, twisting itself off

은 구조상의 불안전성을 Divergence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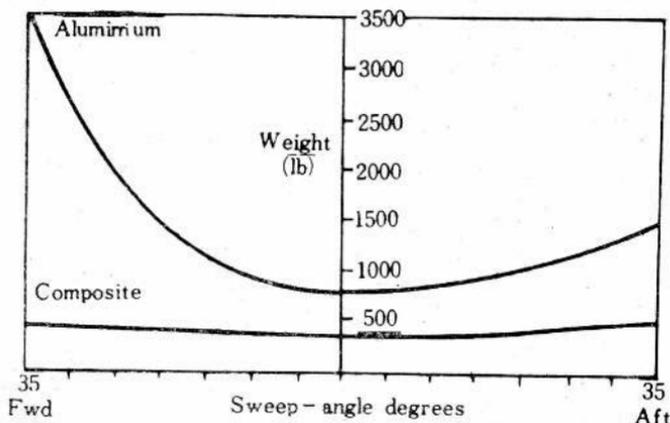
항공기의 전진각이 증가될 때에는 불안전성도 증가된다. 이와 같은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점점 Wing을 튼튼하게 하며 따라서 무거운 Wing이 필요하다. 최근까지는 Forward sweep에 대한 이점이 아주 빈약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중량상의 결점(Penalty)을 정당화할 수가 없으며 특히 전투기 설계의 Pound-pinching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미 공군의 Krone 대령은 그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혼합물의 구성은 Dive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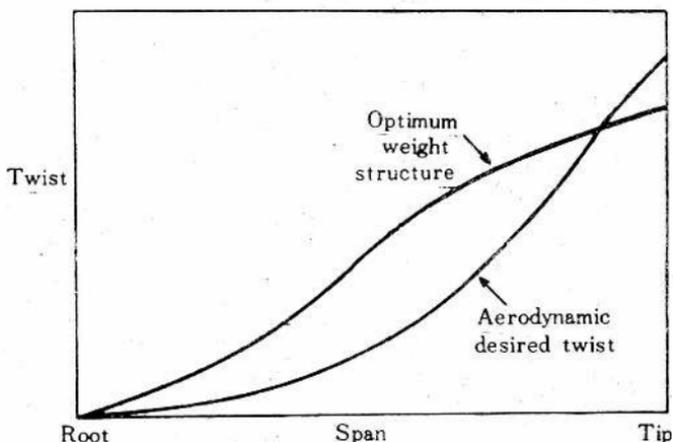
nce를 극복할 수 있음을 최초로 실현시켰다. Wing의 표면이나 표면의 두께에서 탄소섬유물질(Carbon-fibre) 두께의 방향을 변화시키면 굽힘축(Flexural axis)의 방향조정이 가능하며 따라서 하중을 받고 있는 Wing의 뒤틀림(Twisting)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에는 증가된 받음각(Angle-of-attack)에 대한 前進翼의 본질적인 경향(Natural tendency)을 바꿀 수 있음이 가능하다.

Configuration은 안전성을 기할 수 있고, 혼합물질을 사용하면 증가된 前進翼



To overcome divergence a metal forward swept wing must be made stiffer and therefore heavier. At useful sweep angles the penalty is too great. Aeroelastically tailored composite wings overcome this. Increasing forward sweep has very little effect on weight



Aeroelastic tailoring—varying the orientation of carbon-fibre plies in the wing skin and the thickness of the skins so as to control the twisting of the wing—can reconcile the differing requirements of strength and aerodynamics.

의 중량상의 불리한 점 (Weight penalty) 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Krone 대령은 기술 CIA로 알려진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와 합세하기 위하여 행동을 같이 하였으며 이는 前進翼의 연구를 위한 Programme Manager가 되기 위한 것이다. DARPA는 잠정적으로 높은 이점을 갖고 있는 최신기술개발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중요한 모험을 하고 있다. 이보다 위험

성이 적은 연구는 NASA 및 미 공군에서 하고 있다.

DARPA가 책임을 맡고 있는 전진익에 대한 모형은 Configuration상에 약간의 의혹의 징후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의혹 속에서도 DARPA는 1982년에 실시할 전진익 개념에 대한 비행시험을 향하여 착실하게 그리고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 항공회사와도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General Dynamics社와 Grumman 및 Rockwell 3개회사

는 이 도전을 받아 들였고, 1977년에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Rockwell사는 Windtunnel을 연구하는데에 수백시간을 소비하였으며, 전진익(FSW)의 가능성을 조심성 있게 확신하고 있다.

현재 다음단계 즉, Flight demonstrator에 대한 예비적인 설계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를 갖는 목적은 FSW 항공기를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항공 역학적, 구조적 및 분석적 Data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FSW의 제작에 따른 Data 정립과정이 성공할 경우 이것이 성립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Demonstrator를 설계, 제작 및 비행하기 위하여 어느 한 회사가 선정될 것이다.

전진익 항공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이유는 후퇴익 항공기 보다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재래식 Wing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력(Lift)은 Tip stall에 의하여 언제나 제한을 받는다. Taper 및 Vortex의 효과 때문에 Wing의 바깥부분은 안쪽보다 통상보다 높게 하중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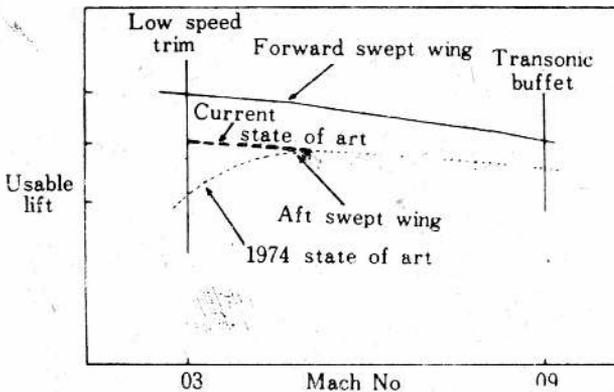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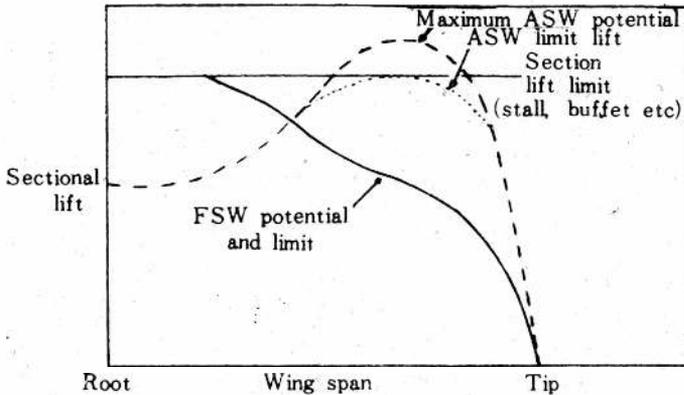
바깥부분은 Wing의 안부분이 최대의

양각(Angle-of-attack)에 도달할 때부터 Stall을 방지하기 전에 Stall 상태에 들어 갈 것이나, 전진익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부분이 심한 Stall 상태에 들어 가도 Tip은 Stall 상태에 들어 가지 않는다. 따라서 Wing이 양력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양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Span을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시킬 수 있다. 후퇴익은 보통 순항할 때에 Elliptic span loading을 생산하도록 설계한다. 이는 동 Elliptic span loading이 Drag(양력 때문에 발생하는 항력)을 가장 적게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High angles-of-attack에서는 Wing의 바깥부분에 받는 하중은 급속도로 증가되고 따라서 항력이 발생된다. 전진익은 최대 양력시에 Magieal loading이 발생한다. 이는 high "g" 기동시에 항력비(기체역학적 효율의 측정)에 비하여 양력이 보다 우수함을 뜻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능면에 있어서도 전진익 항공기는 또한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 후퇴익 항공기에 있어서는 Span-



Left At high angles-of-attack performance of an aft swept wing is limited by tip stall which prevents the rest of the wing reaching its full potential. With a forward swept wing the tips do not stall and more of the wing generates maximum lift, increasing the useable lift right of the forward swept wing. The forward swept wing also produces an elliptical span loading which generates less induced drag.

wise drift of flow에 따라 저속 및 의 효과가 감소된다. 따라서 많은 Aero-
High angles-of-attack에서는 Aileron dynamic crutche 즉 Snag, fence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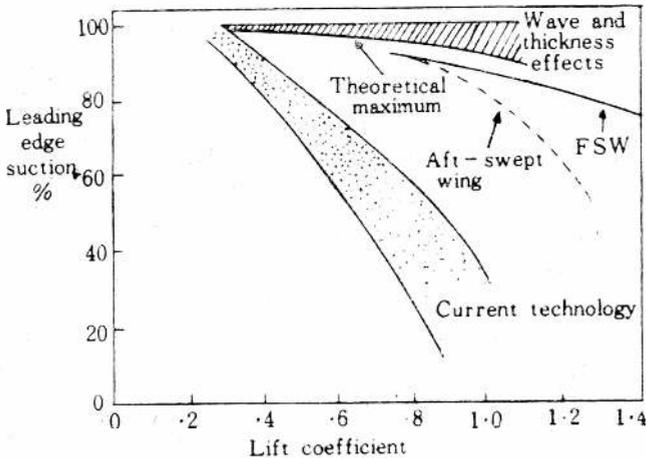
Vortex generator의 효과가 감소된다.

전진익 항공기는 이와 같이 감소되는 Drift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Wing의 나머지 부분(The rest of the wing)이 Stall 상태에 들어간 후라 할지라도 Aileron은 민감한 상태로써 Stall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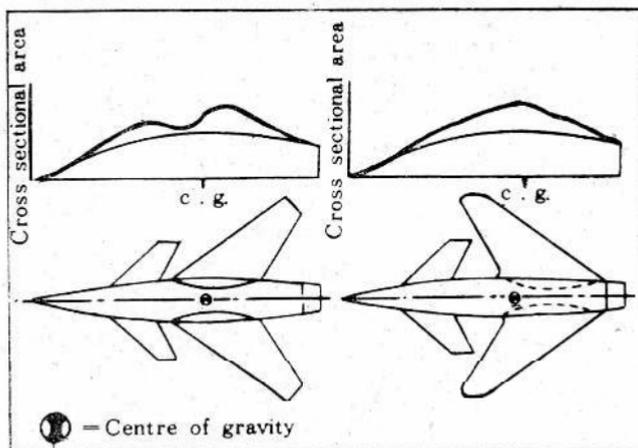
어느 방법으로 Wing이 각을 이루고 있든지간에 근접해서 연결되어 있는 Canard가 Wing을 유리하게 조종을 하여 준다는 것이 연구결과 입증되었으므로

로 근대 전진의 설계방식은 보통 Canard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저속에서는 Canard는 Wing control surface 및 고양력장치(High lift obvice)에 의하여 발생되는 Pitch moment를 조종하여 준다. 후퇴익에서는 이들 장치의 긴 Moment arm(Canard의 짧은 Moment arm과 연결된)에 따라 Trim power가 결핍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고양력 장치가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다.



Mach 0.9 is a difficult design case for fighters. This diagram shows that conventional wings(current technology) suffer a drastic loss of lift-to-drag ratio at the high angles-of-attack(high lift coefficient) associated with manoeuvring. Aft swept wings using aeroelastic tailoring are considerably better but forward swept still has the edge.



Area ruling is a black art, the aim being to smooth out the distribution of cross-sectional area, including wing and canard. Sweeping the wing forward helps to fill the gap between the canard and the wing without resorting to a "coke-bottle" fuselage. Volume near the centre of gravity is increased allowing more of the weight to be located near the c. g.

진진익에서는 Flap과 Aileron은 항공기의 C. G. 에 보다 가깝게 이동하여 Moment arm과 Canard에 대한 요구조건을 감소시킬 수 있다.

Supersonic drag은 항공기의 Cross-sectional area의 배분에 달려있다. 기수에서 Tail까지 Area의 순조로운 변화는 충격파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진진익에 위해서는 Area ruling이 보다 용이하다. 체적의 배분은 c. g. 에 맞

도록 하며 하중(연료 또는 전자장비)을 c. g. 에 보다 가깝게 위치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c. g. 와 떨어져 위치해 있는 질량(Masses)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중을 추가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진진익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의 이점을 갖고 있다. 즉 크기가 거의 같은 후퇴익이나, 같은 양력을 위한 보다 소형의 Wing 보다는 양력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동양력과 관계가 있는 항력

을 보다 적게 할 수 있으며, 보다 낮은 착륙속도에서도 조종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착륙거리가 짧고, 향상된 High lift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이륙거리가 짧을 뿐더러, 초음속 Drag의 감소와 하중 배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보다 높은 Flutter speed와 간단한 하중감소의 증가로, 다음과 같은 2 가지의 항공기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성능이 크게 향상된 F-16정도 크기의 항공기나 또는 F-16 보다는 훨씬 작으나 F-16과 같은 성능을 가진 항공기를 선택할 수 있다.

Rockwell사에게 가장 관심을 끌게 한 것은 후자의 선택이나, Los Angeles는 차기 세대의 미군 전투기—Counter-attack를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Counter-attack은 적의 공중공격을 무력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회사에서 만든 낱말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중전에서 적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다. F-15와 F-16는 우수한 항공기이지만 철의 장막 (Iron Curtain)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수천대의 MIG기를 파괴하기에 이들 항공기의 전개된 숫자가 충분할 것인지는 계속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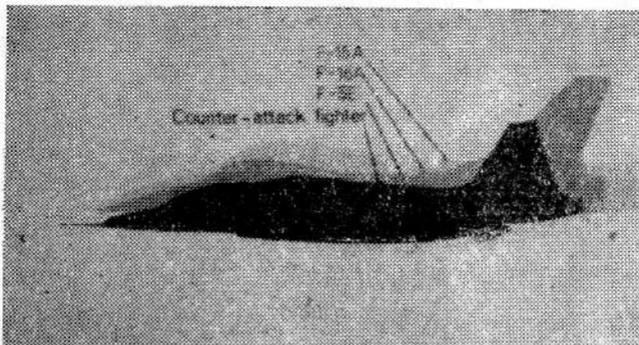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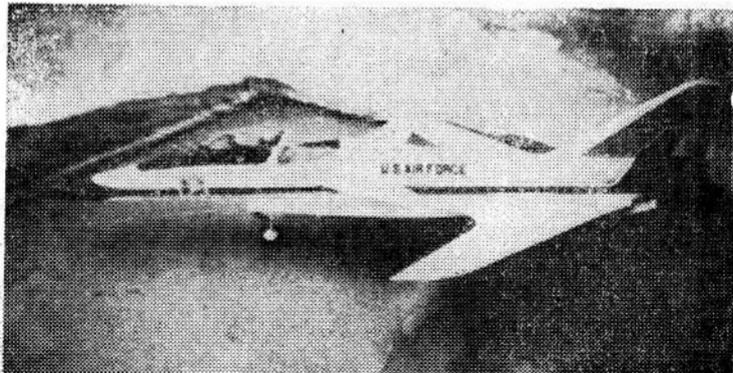
동안 계속되어 왔던 절대 양의 문제는 아직도 답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Rockwell사는 새로운 경량 전투기의 필요성이 곧 부각될 것으로 믿고 있다. NATO는 공대공 전투기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에는 Low-cost fighter를 생산할 수 있는 경량 전투기 계획이 실패를 해왔다. 하중문제와 비용 문제는 항상 연관이 있으며, 항공기의 크기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공군은 항공기를 1:1로 오랫동안 내치하여 왔다. 가용항공기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가격(Cost)문제가 바꾸어져야만 한다. 현재로서는 경량전투기가 가격도 싸다.

Rockwell사의 기술자들은 Counter attack은 진전익 항공기의 주입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항공기의 크기를 적게 할 수 있는 Configuration의 이점을 이용하면 최대 이륙중량의 20%의 감소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Rockwell사는 믿고 있다.

항공기를 작게 만드는 방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즉 Radar dish의 크기 Cockpit의 체적 및 무기크기의 조종 등 해로, 이것들은 한계를 보다 줄일 수 있



Left Rockwell mock up of its forward-swept wing demonstrator. General Dynamics and Grumman are also taking part in the programme. State of the art avionics and engines Rockwell envisages a 1985/1990 fighter some 20 percent lighter than a comparable aft-swept de.

는 것들이다. Rockwell社의 개념에 대한 핵심은 최신 기술을 이용한 전자장비 엔진 및 혼합물질의 사용이다.

이용할 수 있는 최신기술은 있으며 꼭 이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전진익항공기가 Demonstrator stage에로 도달하

면 회의론자들은 지나친 타협 없어도 전진익 항공기를 제작 및 비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80년대 후반기에 가서는 비용이 싼 새로운 전투기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空軍力の 先驅者

앤더슨 將軍

일찌기 美陸軍 航空隊로 發足한 美國空軍이 오늘날의 莫強한 宇宙空軍力을 行使하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많은 파란곡절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美國에는 피땀흘려 空軍力을 育成하고 戰術戰略理論을 研究하여 實踐에 옮기게 한 先驅者들이 많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別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 空將을 紹介한다.

<譯者註>

梁 宸 錫 譯

空軍力이 擡頭되던 初創期에는 한사람의 힘만으로도 軍事航空界에 여러 가지로 主要한 貢獻을 할 수 있었다. 그러한 貢獻들은 예를 들면 宇宙探險家, 地域戰爭理論家, 戰略企劃者, 戰鬪指揮官, 空軍力評價者 그리고 將來를 爲한 敎理學者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紹介하는 「오빌 에이 앤더슨 (Orvil A. Anderson)」少將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氣球로 成層圖探險

「앤더슨」將軍은 1次 世界大戰中에 氣球航法士 胸章을 獲得하였으며, 戰後에는 氣球操縱士가 되기 爲하여 美航空隊에서 勤務하였다.

그는 美陸軍에서 C-2 라고 불리운 小型輕式 飛行船의 副操縱士가 됨으로써 記錄樹立者가 되기 爲한 그의 經歷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가 세운 記錄은 1922年에 氣球을 타고 最初로 美洲大陸을 橫斷한 “空氣보다 가벼운(LTA: Lighter-Than-Air) 飛行이었다. 美陸軍에서는 이 氣球飛行에 對하여 繼續 關心을 갖게 되었고, 앤더슨에게는 그後 軍에서 試驗한 거의 모든 小型氣球와 飛行船에 搭乘하는 機會가 주어졌다. 앤더슨이 TC-13 및 TC-14 飛行船을 試乘한 後에 提出한 그의 最終報告書에서 그는 이 飛行船들이 陸軍用으로는 “軍事的인 價値가 없는 것으로 判斷한다”고 結論을 내렸다.

이 試驗飛行 報告書의 結論 때문에 앤더슨은 陸軍航空隊에서 가장 熱狂의인 事業의 하나로 꼽았던 成層圈 探險에서는 選拔이 되지 않았다.

아주 높은 高度에서 航空作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關하여는 當時의 研究課題였다. 初步의인 裝備를 가지고 上層圈을 探險해 보려는 試圖가 그 以前부터 있어 왔지만 美國의 氣球搭乘者들이 61,237피트의 世界高度記錄을 깨뜨린 1933年 後半까지는 不可能하였다. 그러나 그 記錄은 冊子로 發刊되어 나오기도 前에 美國記錄 보다 2,000피트나 더 높게 上昇한 소련에 의하여 깨져 버렸다. 소련의 記錄을 따라 잡는 한편 세로이 開發된 裝備를 가지고 上層圈을 探查하기 爲한 合議가 1934年 봄에 美陸軍航空隊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美國地理學會) 間에 이루어졌다. 이 窮極의인 氣球探險은 當代에 男兒로서 해볼 만할 가장 큰 일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앤더슨」은 그 當時 大尉였었는데 成層圈으로 氣球上昇을 할 「케프너」少領과 「스티븐스」大尉의 豫備乘務員으로 任命되었다. 그는 「사우스 다코다」州의 「레피드」市 附近에 있는 低地帶에 「스트라토보울(Stratobowl)」이라고 이름을 붙인 發進基地를 選定하는 일을 도왔고, 그 基地와 地上要員의 指揮責任을 맡았다. 앤더슨은 運이 좋아 나중에 乘務員

으로 발탁되었으며, 1934年 7月 28日 새벽에 「익스플로러(Explorer)」 I號의 同근 「곤도라」에 搭乘하여 3名의 함께 壯途에 올라갔다.

氣球가 57,000 피트의 高度에 올라갈 때까지 그들의 上昇은 順調로왔다. 그러나 그 高度에서 「앤더슨」과 「케프너」는 氣球의 表皮組織에 여러개의 커다란 龜裂이 생기고 있음을 發見하였다. 그 龜裂은 計劃된 高度에 到達하는 것을 不可能하게 만들었다. 앤더슨은 「해리움 밸브(Halium Valve)」를 調節하여 氣球가 60,613 피트에서 멈추게 한 후에 急降下를 始作하였다. 下降하는 途中에 氣球의 表皮組織은 떨어져 나갔으며, 「곤도라」는 落下傘을 타고 흔들거리며, 내려오는 것 같았다.

곤도라가 墜落할 危險에 直面했을 때 「케프너」少領은 「베일아웃」(落下傘으로 非常脫出)을 命하였다. 세 사람이 뛰어 내리자마자 氣球은 爆發하여 옥수수 밭에 떨어졌으며, 貴重한 計器들이 모두 박살이 났다. 앤더슨과 다른 同僚들은 無事히 着地하였다.

이 氣球上昇 失敗後 바로 두번째 氣球과 「곤도라」를 連結한 「익스플로러」II號의 發進作業이 着手되었다. 케프너少領이 다른 勤務地로 轉出되었으므로 「앤더슨」大尉가 「파일릿트」로 任命되었다. 氣象不良으로 여러 차례나 延期를 거듭

한 끝에 1935年 11月 11日, 「익스플로러」Ⅱ號는 드디어 離陸하였다. 「곤도라」에서 「스트라토보울」基地의 外廓을 겨우 볼 수 있는 視程이었지만 그들의 上昇作業은 順調롭게 進行되었다.

「앤더슨」과 「스티븐스」大尉를 「곤도라」內部에 密閉한 狀態에서 「익스플로러」Ⅱ號는 72,395 피트까지 올라가 念願의 新記錄을 樹立하였다. 「스티븐스」는 그 高度에서 地球의 둥근 曲率을 證明하는 첫 寫眞을 찍었다. 여러 가지의 實驗을 成功裡에 끝마친 後에 「앤더슨」은 이 巨大한 氣球을 下降시켜 地上에 safely 着陸시켰다. 이때에 세운 氣球의 上昇高度 記錄은 그後 22年間이나 維持되었다. 「앤더슨」과 「스티븐스」大尉는 當時의 英雄으로서 「루즈벨트」大統領을 面接하는 榮光을 누렸다. 「앤더슨」은 그의 生涯동안 有名한 「익스플로러」Ⅱ號의 操縦士 “앤디”라는 別名으로 불리워졌는데 그는 그 壯學를 늘 자랑스럽게 여겼다.

戰略空軍力—理論과 適用

한 國家의 空軍力으로 다른 産業國家를 屈服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理論이 擡頭되었으나 1930年代에는 軍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技術이 發展되어 이 理論을 實證하게 될 때까지는 軍事專門家들의 그러한 否定的인 意見이 根本

的으로 妥當하였다. B-17 爆擊機와 그에 装着된 「노오든」爆擊照準器(Norden bomb-sight)가 實用化되면서부터 이 理論은 빛을 보기 始作했다. 陸軍航空隊의 先覺者들은 「빌리 미첼」과 「주리오 듀에」의 戰略爆擊 概念을 實踐케 하기 爲하여 이 理論을 「알라바마」州의 맥스웰에 있는 航空隊 戰術學校에서 가르치게 하였다. 앤더슨은 이 學校에서 1936~37年間의 1年을 보내고 맥스웰을 떠난 後부터는 戰略爆擊의 理論家와 推進者로서 일하기 始作했다.

戰術學校 以後에 앤더슨은 航空局에 短期間 補任되어 空地作戰을 爲한 첫 野戰敎範을 著述하였는데 2次大戰時의 많은 戰技가 이 冊에 基礎를 두었다. 그의 다음 補職處는 「펜타곤」(美國防省)의 航空戰 企劃室이었다. 그곳에서 「앤더슨」은 「해롤드 L. 조지」大領, 「케네스 워커」 및 「헤이워드 헨셀」中領, 「호이트 맨덴버그」 및 「로렌스 쿠퍼」少領等과 함께 일을 하면서 戰略爆擊 理論을 다듬고 補強하는데 協調하였다.

2次世界大戰이 臨迫해짐에 따라 이들 集團은 有名한 「AWPD-1」 및 後에 「AWPD-42」라고 이름 부친 航空戰爭計劃을 作成하기 始作하였는데 이 企劃書들은 1930年代의 空軍力 理論을 反映시키고 空戰에 對한 美國의 戰爭努力을 誘導하였다. 1943年에 「앤더슨」은 유럽 方

面으로 轉出되어 이들 理論의 妥當性을 提供해 주는데 助力을 하였다.

英國과 美國의 聯合作戰 企劃委員會(COPC)가 런던에서 構成되어 戰略目標의 選定과 英美의 爆擊戰役に 協調하게 되었다. 「앤더슨」은 이 「COPC」의 委員長으로서 그가 最近에 啓發을 도운 몇 가지의 企劃들을 實踐에 옮길 機會를 얻게 되었다.

1944년에 「앤더슨」은 第3空軍 作戰擔當 副司令官으로 任命되었다. 그는 「COPC」의 委員長職도 繼續하면서 企劃의 非正常的인 狀況을 打開하고 任務에 盡力하였으며, 後에는 그것들을 實行케 하였다. 이 期間 동안에 그는 「Operatio Big Week」를 爲한 目標을 選定하고 企劃하고 任務를 指示하였다. 이 作戰은 獨逸 上空에 1,000臺의 航空機로 空襲을 始作하는 것으로 集中되었었다. 이 作戰의 結果로 유럽 空戰에서의 轉換點을 맞게 되었으며, 戰術學校에서 體系化한 初期 戰略爆擊 敎理의 大部分이 實證되었다. 유럽에 對한 大規模의 爆擊은 豫見한 대로 效果的인 것이 確實視되었으나 그 結果는 戰後에 評價되어야 했다. 「앤더슨」은 이 評價作業에서도 亦是 核心人物이 되어 일을 했다.

戰略爆擊 評價

유럽에 對한 爆擊結果를 調査하여 分

析評價하기 爲하여 「프랭크린 D. 루즈벨트」大統領은 美戰略爆擊調查團을 構成케 하여 「블루우 리본」委員會(Blue-ribbon Committee)라고 命名하였다. 이 委員會 構成員의 大部分은 軍事作戰과 距離가 먼 民間人이었으므로 이들을 請기 爲하여 「앤더슨」이 長이 된 軍事顧問團이 이 委員會에 合勢하였다. 「런던」에 本部를 둔 「앤더슨」과 그의 參謀들은 戰略爆擊 作戰에 關한 技術的인 細部事項을 委員會에 助言해 주었다.

「USSBS」委員會에서는 小規模의 情報蒐集 팀들을 유럽 各地로 派遣시켰다. 獨逸의 「프렌스부르크」를 探索하던 한 팀이 「히틀러」의 武裝 및 生産長官이었던 「알버트 스피어」氏를 찾아 냈다.

그는 「런던」으로 連行되어 와서 4日間의 訊問을 받았다. 戰爭에서 한 國家의 經濟를 攪亂시키는 空軍力의 能力을 正確히 評價하는데 必要한 資料를 이 「스피어」氏는 다른 어떤 獨逸人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貴重한 機會를 이 委員會에 提供해 주었다.

그 訊問이 끝날 때 「스피어」氏는 「앤더슨」에게 降服한다는 노우트와 함께 그의 私有拳銃을 贈物로 주었다(스피어의 著書 「第3帝國의 內幕」에는 이들의 受領人이 그 訊問에 參席하지 않았던 「앤더슨」으로 밝히고 있다. 이 노우트와 拳銃은 그 後 앤더슨 夫人이 寄贈하여 美空

軍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美戰略爆擊 調査委員會는 아래와 같이 結論을 내렸다. “……聯合空軍力이 西部 유럽에서의 戰爭에서 決定的이었다.” 그러나 太平洋戰爭을 치르고 있는 戰爭企劃官들에게는 이 調査委員會에서 發見한 價値있는 事項들에 對하여 疑問이 생겼다. 「앤더슨」은 「워싱턴」으로 飛來하여 그 企劃官들과 合同하고 日本 本土에 對한 目標 優先順位를 樹立하는데 協調하였다.

日本이 降服한 後에 再構成된 「USSBS」팀은 東京으로 날아 갔다. 「앤더슨」은 또 다시 軍事顧問團長으로 任命되었다. 空軍力으로 한 國家를 敗亡시키는 始末이 무엇인가에 對하여는 아무런 疑問이 없었다. 단 한 가지의 疑問은 어느 地域軍이 이 勝利에 더 많은 寄與를 하였는가 였는데 이 點에 對하여는 美海軍과의 사이에 論爭의 餘地가 있었다.

이 論爭은 “앤더슨과 海軍의 戰爭”이라고 불리워졌고 「앤더슨」과 그의 海軍 相對役인 航空母艦 飛行士 「오프스티」提督 사이에 벌어졌었다. 이들은 日本을 敗北로 이끈 主要한 力이 自軍의 힘이었다고 主張하지 않기로 合議하였으며, 그로 因하여 後에 將來를 위한 防衛費를 많이 따 내는데 成功했다. 나중에 이들은 自身들의 報告書를 各各 公表하였는데 두 가지가 다 어느 모로는 自軍쪽으로

판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日本에 關한 全般的인 「USSBS」報告書는 유럽에서 보더라도 더 強力하게 空軍力의 理論을 支持하고 있었다.

空軍戰爭大學의 創始者

1946년에 「앤더슨」將軍은 「텍스셀」基地에 新設되는 空軍戰爭大學(Air War College)의 總長으로 任命되었다. 敎理, 企劃, 作戰 및 評價 能力을 가진 그의 熱誠과 靈感에 넘치는 「리이더십」은 空軍의 「리이더」들을 養成하기 爲하여 세 워진 이 學校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큰 힘이 되었다. 처음부터 이 大學은 훌륭한 機能을 發揮하였으며, 豊富한 經驗을 쌓은 將校들이 그들의 意見을 서로 交換하고 空軍力을 行使함에 있어 가장 効果的인 方法을 反映시킬 수 있도록 時間的인 餘裕가 주어졌다.

「앤더슨」將軍은 公共演士로서도 꾸준히 招致되었다. 그는 「노우트」를 使用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그의 學生들은 그가 한 번 입을 열면 中斷시키기가 어렵다고 느꼈다. 그의 始終一貫된 演題들은 空軍力이 未來戰의 武器라든가, 美國은 強力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든가, 가장 훌륭한 防禦는 強力한 攻擊이라든가 였다. 때때로 그는 後者の 意見을 窮極의 으로 追求하였으며, 敵에게 豫防的인 “一

擊”을 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效果的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이러한 “一擊”이 모든 外交的인 手段이 失敗하고 戰爭이 不可避할 때 있어야 한다고 恒常 注意를 喚起시켰다. 1940年代의 後半에는 이러한 意見이 共通的인 概念이 아니었으므로 그는 쉽사리 誤解를 불러 일으켰으며, 특히 1950년에 韓國戰爭이 勃發했을 때는 더욱 그러했다.

韓國戰爭이 일어나고 몇 달간 이 空軍戰爭大學은 活動이 一時 中止되었고 「앤더슨」將軍은 그 期間에 外科手術을 받기 爲하여 얼마동안 學校를 비어 두었다. 그는 그의 宿所에서 療養을 하고 있을 때, 이 大學에 對한 批評記事를 쓴 「드루퍼어슨」의 未決審理에 對하여 地方新聞記者와 會見하는 것에 同意하였다. 「앤더슨」將軍은 그 會見이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임을 主張했고, 記者의 同意도 받았었다고 한다. 將軍은 空軍力의 行使에 關해 그의 意見을 披瀝하면서 “萬一 命令만 내리면 나는 一週日以內에 소련의 核 能力을 抹消시킬 수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이 記者는 그 「인더뷰」內容을 어이없이 記事化하고 말

았다.

그 內容이 올바르게 引用되었든 안 되었든 間에 이 머리 記事에 對한 美國防省의 反應은 빨랐다. 그 當時 「해리 트루먼」大統領은 同一한 種類의 聲明을 發表한 「더글라스 맥아더」將軍과 海軍長官 「프란시스 마티우스」를 沈默하도록 措置한 때 인지라 「워싱턴」으로부터의 同情을 얻을 수 있는 期待는 알팍했다. 「앤더슨」將軍은 轉屬을 命받았으나 轉出되는 것을 사양하고 1950年 12월에 少將의 階級으로 退役함으로써 그의 華麗한 經歷에 遺憾스러운 끝을 맺었다. 그는 1965年 70才의 나이로 死亡하였다.

× × ×

飛行人, 探險家, 企劃家, 「리더」分析家, 學者, 作家 그리고 스승이었던 「오빌 A. 앤더슨」將軍은 어느 面으로 보아도 空軍力의 先驅者이었다. 未來를 向한 空軍 「리더」의 思考에 심어준 그의 影響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다. 지금도 美國 空軍戰爭大學의 校庭에는 그의 눈부셨던 業績을 記念하는 「앤더슨홀」(館)이 서 있다.

×

×

×

젊은 보라매

씩씩하게

정훈감실 작사
현 중건 작곡



푸 음 - 도 우 령 차 계 흰 구름 뚝 고
승 리 - 의 은 익 아 래 태 극 기 날 고



원 수 의 무 리 쫓 - 아 하늘 끝 - 까 - 지
차 구 치 면 한 - 숨 - 에 압 록 강 - 까 - 지



한 빛 - 줄 - 한 - 누 리 에 자 유 물 - 위 - 해
조 국 애 에 - 불 - 타 - 는 신 념 의 - 조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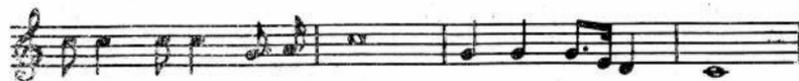
오 - 늘 - 도 활 개 친 - 다 젊 은 보 - 라 - 매
붉 은 장 - 벽 깨 - 치 - 고 하 늘 을 - 간 - 다

용사의 다짐

조정계 작사
최창권 작곡



남아 의 끝 는 - 의 조 국 에 - 바 쳐
우렁 찬 기 상 나 팔 울 릴 때 - 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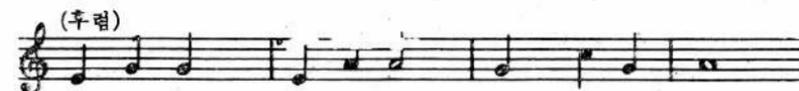
충성 을 다 하 리 라 다 짐 했 - 노 라
줄 기 차 게 샘 솟 는 새 로 운 - 용 기



눈 보 라 물 아 치 는 참 호 - 속 에 서
벽 차 고 고 될 수 록 즐 거 - 운 나 날



한 목 숨 바 칠 것 - 을 다 짐 - 했 노 라
부모 - 형 세 지 키 는 보 략 - 에 산 다



전 우 여 : 세 는 승 리 단 이



우리 의 사 명 이 요 각 길 이 다

하늘의 행진곡

생기있게

정훈감실 작사
현종건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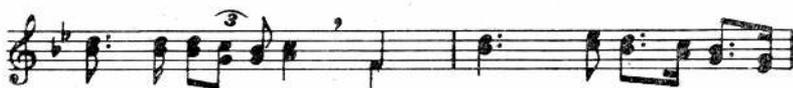
하늘은 우리들 남아의 무대
하늘은 신세기 탐구의 무대



은익을 솟구쳐 삼만오천척
오대양 육대주 비좁은이때



비바람 뭉게구름 헤치고또헤쳐 오랑캐 잠자리때
신비의 별나라로 은하수건너 대한그이름도



불리치고자 삼천만삼천
길이빛내여



리의하늘-별은사

사나이 한 목숨

박동수 작사
김수곤 작곡



피와 땀 이 스며 있는 이 고지
 손아래 이 서 평야에 이 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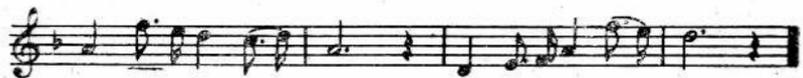
저 산 위에 솟아 난 별빛은
 저 산 위에 솟아 난 별빛은



어둠의 고운 눈길 전 우여
 어둠의 고운 눈길 전 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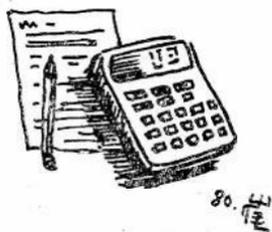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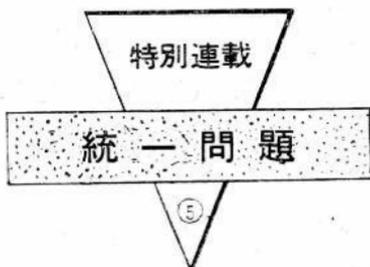


이 몸 바쳐 통일이 된다면
 너와 나의 영광은 이 피가



사나이 한 목숨 두엇이 두려랴
 원수를 무찌르고 나라를 지키는 자

이 낱은 전 호(169호)에 이어 다섯번째로 국토통일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사회의 공론(公論)을 정리, 체계화 하고 이를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엮은 국토통일원 발행 「통일문답」의 수록 내용을 장병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이해시키도록 마련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편집실

Ⅲ. 북한측의 거짓 평화통일선전

15. 북한측 역시 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가. 북한공산당이 말하는 평화통일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측이 통일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러한 통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북한공산당은 8·15 해방 이래 지금까지 줄곧 이른바 「외세를 배제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라는 선전을 해왔는데 그들이 말하는 통일의 참뜻은 1970년 11월에 채택한 북

한공산당 규약 전문(前文)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들의 「당면 목적은 북한지역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적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이 내용에서 보듯이 북한 공산당은 전 한반도에서 공산혁명을 수행하여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나. 이러한 통일을 달성하는 방도에 관하여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북한공산당 선전선동일꾼에게 행한 연설에서 「우리 혁명에는 두 가지 방도가 있는데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그 하나요,

큰 전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방도」라고 하면서, 「우리 당의 평화통일 정책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내부문제로 만들어 남한 혁명을 수행하는 방책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였다. 그리고 70년 11월 북한공산당 제5차 당대회에서는 「남한 혁명은 남한 인민 자신이 주도해야 하며, 그 수단은 유일하게 폭력적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 이러한 논거에 비추어, 북한측이 말하는 소위 「평화통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유세계에서 흔히 보는 대화와 선거에 의해 민족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회제도를 선택케 하는 통일이 아니라, 대규모의 전쟁만을 피하여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폭력혁명으로 남한을 뒤엎고 통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공산당이 말하는 「평화통일」이란 남한에서 공산당이 조종하는 폭력혁명을 일으켜 자유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북한공산당에 동조하는 「인민정권」이라는 것을 수립하여 북한 공산정권에 흡수함으로써 전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뜻이다.

라. 따라서 북한 공산당이 「외세를 배제하고 민주주의적 기초에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자,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자, 「평화협정」을 맺자는 등의 주장은 순전히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켜 폭력혁명을 감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는 기만책동(欺瞞策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공산당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이미 월남에서 그 방법과 내용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16. 북한측이 주한미군 철수를 줄곧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가. 북한공산당은 다음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 주한미군의 무조건 철수를 주장한다.

첫째,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자주통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며,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방해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주한 미군은 잘 알려진대로 6·25 동란시 북한공산집단의 남침을 격퇴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한반도에 왔으며, 휴전 후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남북간에 전쟁이 다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주둔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군주둔의 필요성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북한공산당은 이같은 옳은 제안을 거부한 채 덮어놓고 미군철수만을 주장하고 있다.

나. 다음, 북한공산당은 북한 내에는 외국군대가 없는데 남한에만 외국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위치상 중공과 소련에 땅이 닿아 있는 반면, 한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떨어져 있는데 이러한 위치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외국군이 있다 없다가를 따지는 것은 군사전략에서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잘 아는데로 북한은 중공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배후세력과 직접 땅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압록강과 두만강만 건너면 중·소 양국의 대군이 주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대국과 자기 군사동맹까지 맺고 있다. 또 중·소 양국은 과거에 북한 공산집단을 직접·간접으로 도운일이 있다. 그러므로 얼핏 보기에 북한방 안에는 외국군대가 없지만 군사전략적으로 보면 북한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 남북한이 놓여있는 군사전략적 위치에서 볼 때, 주한미군철수문제는 사실상 남북한을 자기 지원하고 있는 배후세력들간의 균형에서 처리되어야겠지만, 현재 중·소 양국이 우리의 6.23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실을 보면 아직 주한 미군철수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주변국가들의 탈냉전적(脫冷戰的) 분위기를 내다보면서 통일문제의 자주적·평화적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키 위해 북한측이 남북불가침협정을 받아들이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7. 북한 공산집단이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나서는 속셈은 무엇인가.

가. 북한 공산집단은 1974년 3월 25일 소위 최고인민회의의 5기 3차회의에서 외교부장 리담(許鎔)을 통해 다음 내용의 대미평화협정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대미접촉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

(1) 무력통일의 위험을 제거하고 자주적이고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

(2)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한국에 무기와 군수물자를 들여오지 말 것.

(3) 외군은 유엔군의 모자를 벗고 단기간내 가진 무기들 그대로 들고 철수할 것.

(4) 철수 후에는 남한 내에 군사기지를 두지 말 것.

(5) 이상의 내용을 포함시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나. 북한 공산집단이 종래 주장해 오던 남북평화협정을 버리고 「미국이 유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을 들어 한미군사협력관계의 해체를 내용으로 한 대미평화협정을 제의하게 된다는 다음과 같은 속셈이 들어 있다.

첫째, 이 제안을 통해 미국을 한반도 문제해결의 실질당사자로 끌어들이므로서 대한민국의 체면을 국내외에서 깎아내려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같은 허장성세(虛張聲勢)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7·4 공동성명에 어긋나고 그들의 사대주의적 시국관을 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둘째, 지금있는 휴전협정을 외교적으로 교란(攪亂)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려 보겠다는 속셈이다. 휴전협정은 비록 대부분이 북한측에 의해 지켜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남북간엔 침략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규제(規制)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 협정에 유엔군사령관의 당사자로 서명한 북한측이 이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질서를 외교적으로 교란하겠다는 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세째, 북한 공산집단은 내미평화협정을 구실로 미국과 대화를 트고 관계를 확대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미국을 믿지 못하도록 해서 한·미 관계를 이간(離間)해보자는 속셈이 있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같은 세계적으로 큰 나라와 맞서 그들이 당당히 교섭을 펴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국제적으로 위신과 지위를 높여 보자는 속셈이다.

다. 그러나 북한측의 이러한 속셈은 이미 다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

안이 담고 있는 비현실성과 비합리성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이나 주변국가들은 대체로 남북이 불가침협정을 맺어 먼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참가하지 않는 어떠한 한반도 문제회담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데 내외 여론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18. 북한공산당이 자주 내세우는 연방제란 무엇이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 북한공산당이 내세우는 남북연방제라는 것은 한 마디로 중공이 공산정권을 수립할 당시에 썩 먹었던 국공합작전술이라는 것을 본딴 것으로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반공체제를 부너뜨리고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을 펴게 될 길을 마련함과 동시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명분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런 속셈에서 김일성은 1960년 8월 15일 남북연방제를 제안한 이래 수시로 비슷한 주장을 들고 나오다가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의 교정책선언」을 발표하자 그날 저녁에 소위 「조국통일 5대 방침」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고려연방공화국(高麗聯邦共和國)이라는 국호아래 연방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나. 북한측이 내세우는 연방제의 내용을 보면 「남북한의 현정치체도를 그대로

두고 양측(兩側)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 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남북간에 일어나는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제 문제를 조절해 나가자"는 것인데 이 연방제안에 담긴 의미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제안은 기본적으로 「남조선혁명」이라는 것을 통한 공산주의식 평화통일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연방제를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도적(過渡的) 제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구체적 이념에 대해서는 전혀한 마디도 비치지 않고 있다. 연방을 이루려면 연방형성에 대한 이념이 같아야 하는데 이념문제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 대신 1972년 11월 22일 평양방송을 통해 연방제를 제안한 이유가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내세워 연방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① 연방제를 실시해야 통일의 기본장체인 미군을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고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② 남북은 사상, 이념, 제도가 달라 여러 분야로 교류를 꾀아가는데 적지 않은 지장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면 정치·경제·군사·외교면의 완전합작이 필요하며, ③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분간 연방제를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외세가 끼어들지 않는 남북총선거로 통일정부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요컨대 북한측의 연방제안은 우리 민족의 여망에 기반을 두고 민족사회의 실질적 통합에 도움이 되는 과도적 조치가 아니라 소위 공산주의식 평화통일의 방법인 「남조선 혁명」의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 얼핏보면 북의 연방제는 남북공존을 긍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이는 공산혁명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공존을 내세우는 공산주의식 평화공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는 남북대화 이전과 이후의 연방제 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서 알 수 있다 ① 남북대화전에는 여러 가지 제안을 따로 따로 내세우면서 남한측이 연방제이든 또 다른 것이든 어느 한 가지를 택해도 좋다는 방식을 취했는데 대화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한데 묶고 연방제를 다른 제안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 ② 남북대화 이전에는 연방제 실시에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는데 대화 이후에는 군사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보면 북한공산당은 연방제는 이를 단순히 정치신진수단으로만 쓰고 있을 뿐 제의 자체에 대해서마저도 성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우리 정부에서 연방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상에서 보아 온 속셈 때문만은 아니다. 적어도 진정한 민족통일

에 이르기 위한 중간조치로서 연방제를 검토하기에는 거기에 담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영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연방제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연방이 딛고 서야 할 이념을 말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연방도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이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요소가 빠져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연방제가 적화통일로 가는 중간목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연방구성의 이념을 제시할 필요도 없고, 또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내세우자니 연방제선전의 실효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찌기 1950년대 말엽에 냉전시대의 동서독(東西獨) 관계에서 전술적으로 연방안을 낸 사실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 다음으로, 민족사회의 실질적 통합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조건이나 방안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체제에 대하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적의(敵意)를 줄곧 표명하는 북한 공산집단이 국호만으로 연방이 된다고 생각할리 없고, 또 실제로 연방을 이루려면 이념도 이념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연방을 가능케 할 현실

적 여건이다. 남북간에 불화와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는 여건을 그대로 두고 연방 국가만을 형성한다는 것은 새로운 술책을 부리는 것으로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실망만을 더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현실적 여건을 생각지도 않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도 생각지도 않고 허울만의 연방제를 말하고 있는 북한 공산당의 한낱 모략선전에 지나지 않는 연방제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 북한은 간혹 협력이라는 말대신에 합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협력과는 뜻이 다르고 대한민국의 반공적 입장을 철폐한 남북간의 결탁을 뜻하는 것이다.

바. 정부는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우선 남북 불가침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족상잔의 전쟁위험을 없애고 대화와 교류와 협력을 터서 민족의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사회의 현실적 통합이 이루어질 여건을 하나씩 만드는 것이 통일을 위해 전실하고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 이를 성실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공산집단은 평화를 말하면서 일방 땅굴을 파는 민족반역적인 작폐(作弊)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

×

×

忠武公의生涯와思想

△ 5 ▽

이였다.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통쾌하게 勝利를 거둔 一大勝捷
第4次 釜山戰爭은 그 어느 때보다 敵船이 많았으나



14. 第4次 釜山勝捷

釜山은 나라의 關門인데 왜적들이 바로 남의 집 遮面안으로 들어왔던 것이요, 그래서 釜山이란 첫 대문턱에다 자리를 잡고 앉아 저희 본국과 연락하는 소굴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忠武公은 이것을 생각하고 통분함을 참을 길 없었다. 지금까지의 3차 전쟁, 9회 접전에서도 큰 승첩을 거두기는 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적의 연락, 보급 등 전투기지의 본부를 폭파시켜야만 할 것을 결심하고 일대 전쟁을 결행한 것이 바로 제4차 釜山전쟁이었던 것이다.

忠武公이 역사적인 閑山勝捷을 거두고 일단 麗水 본영으로 돌아간 것이 7월 13일이요, 그로부터 10여일 동안, 그는 계속하여 적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자체의 군비강화에 힘을 기울였었다.

이 때 왜적들은 閑山海戰 뒤엔 전면적으로 사기가 저상되어 각 도에 퍼졌던 적들이 차차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므로 忠武公은 水陸 연합작전을 생각했던 것이다.

「신은 바다와 육지에서 한꺼번에 공격할 계획으로 全羅左右道 전선 74척, 협선 92척, 합계 1백 66척을 엄격히 정비하여 지난 8월 초 1일 本營(麗水) 앞바다에 진을 치고 軍ships을 내렸읍니다」(釜山勝捷 狀啓).

편
집
실

이 같이 忠武公의 장계에 나타난 전함 숫자가 1, 2, 3차에 출동했던 전함수보다 20여 척이나 더 많아진 숫자임을 보면, 임진년 전투 개시 이후 다른 한편에 있어서 전함 건조에 그가 얼마만큼이나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던가 하는 것도 짐작이 간다.

忠武公은 8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엄격한 명령아래 全羅左右道の 연합함대를 맹훈련 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마침내 8월 24일 오후 4시쯤에 忠武公과 李德祺의 연합함대는 다시 영남바다를 향해 출병했다. 여기서 나는 장계와 <亂中日記>를 대조해 가며 읽어 본다.

24일 오후 4시에 출발. 노랑 뒷바다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다시 子正에 달빛을 타고 행선하여 泗川 毛自郎浦에 이르니 날은 새였지만 새벽 안개가 사방에 끼어서 지척을 분간키 어려웠다(日記).

25일, 비바람이 심하여 배를 띄우지 못하다가 해질 무렵에야 巨濟島 資乙子赤에 이르러 밤중에 見乃梁을 골래 건넜다(狀啓).

27일, 巨濟 七川島를 거쳐, 저물녘에 西院浦(지금 昌原郡 熊川面 院浦里)를 건너니 밤이 벌써 10시 즈음인데, 西風이 차게 불고, 마음이 산란했다. 이날 밤은 꿈자리조차 여지러웠다(日記).

그리하여 28일에는 육지로부터 돌아온 정찰대의 보고를 종합해 본 결과, 왜적들이 모두 부산의 근저지로 모여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加德島의 친성 시쪽에 이르러 밤을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29일 새벽에 배를 띄워 梁山江, 金海江(모두 洛東江이 바다로 들어가는 하류)에 이르러 왜적의 낙후병 30여 명이 큰 배 4척, 작은 배 2척에 갈라 타고 달아나는 것을 만나자, 경상 우수사 元均의 함대가 쫓아가 전투 무절렀고, 다시 이어 우리 함대는 두편으로 나뉘어 梁山, 金海 두 강을 거슬러 올라가 적을 탐색하다가 날이 어두워 증지하고 加德島 북쪽 바다 同埋山 아래서 밤을 지내며, 忠武公과 李德祺와 元均과 조방장 丁傑 등 네 장군은 내일의 전략을 토론하기에 잠을 자지 않았다.

임진년 9월 초 1일 새벽!

忠武公이 이끄는 연합함대는 加德島 북쪽에서 출발하여 釜山 앞바다를 향해 전진했다.

花樞仇美에 이르러 왜적선 큰 배 5척, 또 가다가 多大浦에서 큰 배 8척, 또 가다가 西平浦에서 큰 배 9척, 또 가다가 絶影島 앞에서 큰 배 2척, 모두 합해서 24척을 만나는데로 너무도 쉽게 깨뜨리면서 전진했다.

忠武公은 絶影島 안팎을 수색한 뒤에 왜속정 작은 배 하나를 釜山 앞바다로 보내어 敵情을 탐색해 오게 했다.

「전선 대략 5백여 척이 釜山 선창에서 동쪽 산기슭 아래까지 벌려 있고, 선봉선 4척이 草梁項(지금 影島다리 있는 곳)

까지 마주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보고를 받고 忠武公은 곧 다시 전진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 때에는 右部將 鄭運(鹿島 만호), 龜船突擊將 李彥良, 前部將 李純信(防踏 첨사), 中衛將 權俊(順天 부사), 左部將 申浩(樂安 군수)의 순서로 앞장 서 갔다.

우리 함대에서는 깃발을 날리고 북을 치면서 毛利輝元, 藤堂高虎, 脇坂安治 등이 거느린 왜적선의 소굴을 향해 기세 당당하게 돌입해 들어갔다.

忠武公은 이 날의 전투 상황을 임금께 이렇게 보고했다.

「釜山城 동편 5리쯤 되는 언덕 아래 세 군데에 진치고 있는 적선은 大中小 아울러 4백 70여 척인데 우리들의 위세에 눌려서 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釜山勝捷 狀啓).

과연 우리 함대의 위세를 눈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배들이 바로 질러 들어가자 배 안과 성 안과 산 위의 굴속 등, 세 군데 있던 적들이 모두 총과 활을 들고 산위로 올라가 여섯 군데 진을 치고서 내려다 보며, 총과 화살을 쏘아대는 데, 마치 비와 우박을 퍼붓는 듯했읍니다.」

우리에게 대한 왜적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게 강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싸움에서 얻은 노획품으로 왜적의 물건들은 별문제로 하고 그 중에 우리나

라 물건으로도 長箭 9개, 地字·玄字 총통 각 2문, 낫 1개, 大腕口 1문 등이 있었던 것으로도 증거되는 사실이기도와, 그것은 아마 왜적들이 육지의 어디에선가 우리 것을 뺏어 가지고, 이 때 우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장수들은 더욱 더 격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해 들어가 天字 총통·地字 총통·將軍箭·皮翎箭·長片箭·탄환 등을 한꺼번에 쏘아 대머 종일토록 접전하였습니다.」

얼마나 용감하고 통쾌한 전쟁이었더냐.

그러하여 우리는 적의 적선 턱에 적을 깨뜨렸다. 총과 화살에 맞아 죽은 왜적의 수가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나 배를 깨뜨리기에 바빠 목을 미처 자르지 못한 사이에 적들은 저희 시체를 토굴 속으로 끌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물론 이번 전쟁이 釜山의 적의 소굴을 완전히 소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싸움의 효과에 대해서는 忠武公 자신도 통쾌히 생각했고 또 높이 평가했읍니다.

「전후 네 차례 열 번 접전에서 번번이 승첩을 거두었으나 장수들의 공로를 논하오면 이번 부산 싸움보다 더 큰 것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적선의 수효가 많았자 70여 척을 넘지 못했아운데 이번에는 큰 적의 소굴 속에 4백여척이 늘어선 가운데로 위풍당당하게 뚫고 들어가 하루

종일 공격하여 적선 백여 척을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적들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해지고 겁내어 북이 움츠러져 들러가게 했습니다. 비록 적의 머리는 베지 못했을지라도 힘써 싸운 공로는 전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釜山勝捷 狀啓).

이번 부산 해전에서 적선 전부를 격파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적의 연락· 보급기지로서의 소굴을 두들긴 점에 있어서 적에게 막대한 영향을 던져 준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측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水陸聯合作戰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다.

忠武公은 바로 그 점을 예석히 여겼으며, 水陸 합동작전을 행한 연후에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을 그의 장계 속에 보고했음을 본다.

忠武公이 그 날의 전쟁을 끝내고 加德島에 도착한 때에는 이미 한밤중이었고, 거기서 돛을 내리고 잠깐이나마 군사들을 잠재우고 난 이튿날(初 2日) 아침 진을 파하고 다시 麗水 본영으로 돌아갔다.

忠武公의 釜山 해전에서 우리 측의 귀중한 장수 鹿島萬戶 鄭運장군을 잃어버린 것은 통분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물론 그 전쟁에서 희생된 이가 鄭장군만이 아니라 順天 수군 金千回 등 5명이나 있었고, 또 부상자도 26명이나 되었지만, 이 鄭장군의 순국만은 忠武公이

「나라의 바른 팔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만큼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 역사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 글이 밝혀 두어야 할 것 한 두 가지는 鄭장군의 순국 시간과 총 맞은 경위에 대해서다.

① 순국 시간에 대해서 <鄭公傳>에는 개전 첫 머리에 된 일로 적혀 있으나 忠武公의 기록에는 돌아올 때 된 일로 적혀 있는 바 전후 사정으로 보아 忠武公의 기록이 정확한 것임은 물론이다.

忠武公이 올린 「鄭運을李大源 사당에 배향하도록 정하는 장계」중에「돌아 올 무렵에 철환에 맞아 죽었다」(當其回帆 中鐵丸致死)고 기록되어 있고, 또 「鄭運을 제사하는 글」속에도「돌아오다 다시 나서 원수 갚자 맹세더니」(同船更突 誓欲報怨)라는 귀절이 있음을 보아 분명히 해질 무렵 돌아 오는 길에 또 다시 앞서서 싸우다가 그같은 불행을 당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총 맞은 경위에 대해서도 <鄭公傳>에는「가슴을 맞아 죽었다」(中丸洞胸而死)했는데 忠武公의 釜山승첩 장계에는「이마에 관통상을 입어 죽었다」(貫穿頭頂而致死)했다. 이것 역시 忠武公의 기록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연 장군은 남달리 정열과 의기를 가졌던 분이였다. 그래서 4차 전쟁, 10회 접전을 통해서 번번이 선봉을 섰고 큰 공을 세웠으며, 끝내는 이 같이 적진 속

에서 장렬한 죽음을 했던 것이어니와 다만 50세라는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꺾여 버린 그것이 애석하고 분통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그의 순국 장소는 沒雲臺 밑이었던 것이니 그래서 뒷 사람들이 沒은 꺼지는 것이요, 雲은 運과 발음이 같은 운이라 鄭運장군이 순국한 곳을 이미 그 지명이 예언했다고들 하며, 그것은 마치 저 鹿島 만호李大源이 損竹島 앞에서 죽은 것과 똑같은 운명이라고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옛 문헌 중에서도 <再造藩邦志>와 <朝野會通> 등에는 장군이 玉浦海戰에서 순국한 것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여기에 붙여 말해 둔다.

忠武公은 동지 장수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도 애석하고 통분하여 친히 鄭運장군을 제사하는 글을 지어 바쳤던 것이니 그것은 문장으로도 명문이라 일컫는 글이다.

忠武公은 鄭運을 鹿島李大源 사당에 같이 모시도록 해주기를 청하는 장계를 위에 올리자, 宣祖도 장군의 순국을 예봉해하며, 그것을 허락해 주는 동시에, 그의 공적을 표창하여 嘉善大夫 兵曹參判을 증직했었다.

그러한 반면 왜적들은 鄭運의 진사한 소식을 듣고 서로 술잔을 권하며, 「인제 鄭萬戶가 죽었으니 큰 걱정이 덜어졌다」

(《宜廟中興志》 靈岩邑誌)고 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그는 왜적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존재였거니와 그러기에 우리 국가로서는 더욱 더 장군의 충성과 순국을 잊을리가 없었다.

장군의 순국으로부터 23년 뒤인 광해 6년 甲寅(西紀 1614년)에 편찬된 <東國新續三綱行實>(國民讀本)에 장군의 순국 사실이 그림과 함께 한문과 한글로 적혀 있음은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고향인 全南 靈岩에는 충신정각을 세웠고, 그 뒤 孝宗 때에는 사당을 세웠으며, 또 그 뒤 肅宗 때에는 그 사당에 「忠節祠」라는 액자를 내려주고, 또 高興 녹동 사당에도 비로소 「雙忠祠」란 액자를 내림과 아울러 忠壯이란 시호를 내려 주었다(《文獻備考》 卷 212).

지금 장군의 무덤은 전남 해남군 북평면 해림리 大興寺 뒤 언덕 위에 있고, 또 그를 표창한 정각은 忠臣門이라 하여 역시 海南郡玉泉面大山리에 끼쳐 있다.

그리고 다른 한 두 가지 釜山海戰의 기록에서 우리들의 주의를 끄는 것은 첫째, 順天監牧官 趙玘란 이가 참전한 사실이다.

그는 왜적들이 육지에서 횡행하는 반면 바다에서는 忠武公에게서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 감격함을 참지 못하여 스스로 배를 준비해 가지고 집안 중들과 말 먹이는 머슴꾼들을 모아 거느리

고 忠武公의 편대 속으로 자원해 들어와서 이번 해전에 참전했던 것이다.

그래서 왜적을 많이 죽였고, 또 왜적의 물건도 많이 노획했음을 順天 부사 權俊이 두 번 세 번 보고도 했거니와 忠武公 자신도 그것을 확인하여 장계 중에 특기했음을 본다(釜山勝捷 狀啓).

그 당시 각처에서 의병들이 봉기하여 육지의 왜적과 항쟁했던 것은 물론인데, 이것은 해전에도 의병의 참전이 있었던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주의를 끄는 좋은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 밖에 또 한 가지 蛇梁 권관 李汝恬이 사로잡은 吳道同이란 왜놈을 신문한 내용 같은 것은 참고될 만한 것으로서 그놈의 供述내용은 이러했다.

「日本 본토에 사는 왜놈 장수들은 처자까지 데리고 왔지만 제가 사는 지방에서는 모두들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골로 숨어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 본토에서 사신이 와서 산골을 뒤져가지고 우리들을 배에다 싣고 이리로 온 것입니다. 요즘 高麗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모두를 본국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이같이 붙들려 온 것입니다」(釜山勝捷 狀啓).

아닌게 아니라 왜적들 가운데는 포악한 秀吉의 전쟁 광상 때문에 강제로 징발되어 온 놈들도 많았을 것은 물론이었다.

忠武公의 連戰連勝으로 말미암아 해상에서는 물론이요, 육지에 있는 적의 형

세도 완전히 풀이 꺾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적들은 두어 달 이래로 저희들의 형세가 외로와지는 것을 알고 모두들 부산으로 모여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성내의 관청을 모두 털어버리고 흩을 쌓아 집을 세워서 아주 소굴을 만든 것이 벌써 1백여 호나 되며, 성밖으로도 동서양쪽 산기슭에 여염집이 즐비하게 잇달아 있는 것도 거의 3백여 호나 되는데 그제 모두 왜인들이 지은 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집은 층층대를 만들고 회칠을 해서 마치 절간과 같습니다」(釜山勝捷 狀啓).

이것은 忠武公이 釜山勝捷 후 위에 올린 장계 중에 있는 한 구절이다.

이같이 적들은 부산에서 그대로 오래 머무르면서 持久戰을 할 계획을 세운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忠武公이 부산의 적굴을 완전 섬멸치 못했는가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육군의 호응이 없었던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해군은 해군으로서의 활동 범위가 있는 것이요, 최후의 섬멸전은 역시 육군의 담당이 아닐 수 없는데, 그것이 忠武公에게는 아쉬운 일이었던 것이다.

忠武公의 해상 승첩이 있던 몇 달 동안에 육내에서는 남북도처에서 혹은 승전, 혹은 패전으로 얼치락 뒤치락 했었다.

우의정 李陽元과 부원수 申恪은 양주 蟹陰嶺에서 적에 대한 기습작전을 감행했었고, 강원도 조방장 元豪는 여주 龜尾浦에서 적을 掩擊했던 반면, 臨津江에서는 도원수 金命元이 패전했던 것이니 이것은 5월의 일이었다.

강원도 淮陽城에서는 왜적 毛利吉城이 우리 부사 金鍊光을 죽이는 등 가장 잔인한 학살극이 있었으나, 玄風 茂溪에서는 의병장 金沔 등이 왜적 村上景親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또 龍仁에서는 3도 연합군 5만 병력을 가지고서도 脇坂安治의 적은 왜적들에게 패전을 당했던 반면, 任實의 雲岩에서는 의병장 梁大璞이 왜적의 대부대를 무찔렀던 것이니 이것은 6월의 일이었다.

金堤군수 鄭蒞 등은 態時를 넘어 全州로 향하려던 왜적 安國寺惠瓊과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전사했으나, 전라도 도절제사 權慄장군은 梨峙싸움에서 왜적의 명장 小早川隆景의 큰 부대를 물리쳐 대승을 거두었는데, 더우기 그것은 忠武公의 한산 대첩과 같은 날인 7월 8일의 일이었다.

다만 그 다음 날 금산에서는 의병의 초토사 高敬命이 그의 둘째 아들 因厚와 종사관 柳彭老, 安瑛 등과 함께 왜적 小早川隆景에게서 玉碎를 당한 것이 통분한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병장 金沔은 居昌 牛背峴에서, 의병장 權應銖는 영천성에서, 그리고 의병장 郭再祐는

宜寧·玄風·靈山에서 각각 모두 승첩을 거두었던 것이니, 이것은 7월 중의 일이었다.

의병장 趙憲은 청주성을 수복한 채 금산에 이르러 僧將 靈圭와 함께 7백 의사가 한꺼번에 순국했으며, 의병을 일으킨 공로로 부산 첨사에 임명되었던 도대장 金虎는 경주 蘆谷에서 전사했다. 그리고 초토사 李廷穉은 왜적의 명장 黑田長政과 싸워 연안성 전투에서 승첩을 거두었고 경상 좌병사 朴倂과 경주 판관 朴毅長은 왜적 福島正則과 싸워 경주성을 탈환했으며, 특히 함경북도 명마평사 鄭文孚는 한편으로 왜적 加藤清正군과 싸우고 또 한편으로 반역자 鞠景仁 鞠世弼 등을 무찔러 경성을 수복했던 것이니, 이것은 모두 8월, 9월의 일이었다. 어쨌든 이같이 몇 달이 지나가는 동안 적들은 차차 경상도로 몰려 내려오고 있었다.

「적들이 경상도에 웅거한 곳으로 좌도에서는 부산, 동래, 경주, 밀양, 청도, 대구, 영천, 영산, 창녕, 현풍 등 10고을이요, 우도에서는 웅천, 김해, 창원, 진해, 고성, 성주, 금산, 개령, 선산, 상주, 함창, 문경 등 12고을로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왜적들은 적어도 수백명을 내리지 않고 또 많아도 1천명을 넘지는 않으며, 다만 고성 근처 합진한 곳에는 수천명이 되는데, 이것으로써 계산해 보면 영남의 왜적들이 5만명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亂中雜錄)(卷 1)했는데

〈宜祖實錄〉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와 숫자가 적혀 있음을 본다.

그러기 때문에 忠武公은 부산 전투 이후 壬辰年이 지나고 다음 해 癸巳年 봄이 오기까지 해상 전투를 중지하고 있었지만, 여수 본영에 돌아와 있으면서 속으로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도 준비려니와 육지에 있는 왜적의 동향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기기에 대처했던 것이다.

「신이 비록 해전을 전문으로 맡았지만 육전의 방비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도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臣雖日專委水戰於陸戰之備 念不少弛) (癸巳 1월 26일 狀啓).

忠武公은 해전만으로써 능사를 삼지 않고 육전방비에도 걱정했었다. 그래서 적들이 경상도로부터 전라도로 넘어 들어올 수 있는 길목에 伏兵을 묻어 두어 방비하도록 했다.

각처에 있는 중들과 한량들을 모집했더니, 한 달이 채 못되어 자원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4백명이나 되었다.

忠武公은 이같이 육지의 일까지 걱정했지만 역시 그에게 맡겨진 중책은 해군이었던 만큼 바다를 내다보는 걱정이 한결 더했음은 물론이었다.

첫째는 戰船도 더 만들어야 하는 걱정, 둘째는 해군의 인원을 확보하고 보충해야 하는 걱정, 셋째는 그 많은 군인들의 軍糧을 준비해야 하는 걱정, 넷째는 활

과 화살과 총통과 탄약 등 무기를 정비해야 하는 걱정들이 태산처럼 코앞에 놓여 있었다.

忠武公은 부산 전투에서 왜적의 배를 1백여 척이나 깨뜨렸지만 그러고도 부산 선창에 정박해 있는 적선의 수효가 아직도 자그마치 3백50척이나 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앞으로의 해상 전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를 더 많이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부산 전투에서 破損을 당한 우리 배들을 修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뿐더러, 겨울철에는 남해의 파도가 너무도 세차기 때문에 전쟁을 잠시 중지하고 戰船을 더 만드는 일에 시간을 이용했던 것이다.

忠武公이 거북선과 전선을 만들던 船所는 지금 麗水에서 5.5「킬로」 떨어진 여수군 쌍봉면 柿田里 마을앞 굴강터가 바로 거기다.

斗力島니, 長島니 하는 조그마한 섬들을 돌아 들어가 오른편 산기슭에 있는 마을은 熊川里인데 거기가 바로 곰내(古昔川)라 부르는 곳으로 忠武公의 어머니 卞氏夫人이 내려와 피난살이 하던 마을이요, 다시 한 굽이 돌아 들어가면 오른편에 船所마을이 있다.

갯가에는 배 매던 돌 말뚝이 남아 있고, 마을 앞에는 불로 만든 「벽수」들이 끼쳐 전한다. 忠武公이 여수 본영에 갯신 동안에는 물론이었고 뒷날 한산도로

진을 옮긴 다음에도 배 만들던 일만은 여기서 계속했던 것이다.

「신은 본도(전라좌도)에서 더 만드는 전선을 친척 보고 정비하고자 하여 지난 癸巳年 12월 12일 본도로 돌아와 방금 전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고 한 甲午年 1월 10일 여수 본영에서 올린 장계를 보면 忠武公이 統制使가 되어 한산도에 진치고 계실 때에도 배 만드는 일은 의연히 이곳에서 계속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것은 전라도 연해안 각 고을 중에서 본시 해군에 소속된 것이 좌도에 다섯 고을이요, 우도에 열 네 고을이던 것을 巡察使 李廷樞가 내려와, 좌도와 우도에 각각 다섯 고을씩만 해군에 소속시키고 그 나머지 아홉 고을은 육군에 편입시키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같이 순찰사의 육해군에 대한 지역 개편명령에 의해서 전라우도에 소속되었던 아홉고을이 해군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忠武公의 전선 건조 계획에는 큰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忠武公은 그의 狀啓 중에 이같이 말한 것이 있음을 본다.

「순찰사의 공문에 의해서 연해안 아홉 고을에서는 배를 더 만드는 일이 정지되었으므로 위로는 배를 더 많이 만들라고 하신 임금의 분부에 어긋나게 되었고,

아래로는 해를 두고 경영해 오던 번번히 못한 이 신하의 계획도 틀러버리게 되어 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장계의 한 귀절만 가지고도 忠武公의 해선 계획이 어머했으며, 또 안팎으로 부닥친 난관이 얼마만 했던가를 짐작하기에 족하다.

忠武公이 다음의 전쟁 준비를 위해서 전선을 더 만들기는 했지만 전선을 많이 만들던 만큼수록 기기에 따라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해군의 인원 확보와 보충 문제가 그것이었다.

더우기 조정에서는 진작부터 친족끼리의 연대 책임이란 것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 하여 본인이 실사 도망을 갔더라도 다른 친척을 대신 징병해 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남아 전하는 忠武公의 장계 중에는 「친족에게 연대책임을 시행하지 말라하신 명령을 취소해 주시기를 청하는 장계」(請反汗一族勿侵之命狀)를 올린 것이 ① 壬辰 12월 10일 ② 癸巳 4월 10일 ③ 甲午 1월 5일에 걸쳐 무릇 세번이나 있었다.

물론 친족에게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은 일이요, 그렇게 명령한 임금의 본의를 모르는 忠武公도 아니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현실적으로 보아서 는 그것이 시기에 맞는 정책이 아닌 것

을 지적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 같은 명령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과 같이 위급한 때를 당해서는 한명의 병졸이 평상시의 백명을 당하는 것인데, 그 명령이 내려지고는 너도 나도 모두들 빠져나갈 것만 생각하는 데야 어찌하리까」(壬辰 12월 10일 狀啓).

과연 그 당시의 실정으로는 지난 달에 10명의 입대자를 책임졌던 고을에서도 이 달에는 3, 4명쯤으로 塞責하는 정도요, 또 어제는 10명이 주둔하던 곳에 오늘은 4, 5명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또 군인 자신은 더 말할 것 없고 고을 아전들까지 이런 기회를 타서 교묘하게 모면할 피만 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도망갔다고 하고, 또 살아 있는 자를 죽었다고도 보고해 왔다.

당시 전라도 한쪽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었던 것도 실상은 忠武公의 해군이 진

제한 때문이었고 또 국토 전부의 수복도 거기서부터 계획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忠武公은 조정으로부터 「연대책임면제」의 명령을 도로 취소해서 水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일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고, 시기에는 緩急이 있습니다. 한 때의 폐해를 덜고자 하다가 끝없는 후회를 불러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癸巳 4월 10일 狀啓). 하고 말했지만 忠武公의 요청이 쉽게 해결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忠武公은 조정의 명령대로 친족에게 연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자니 水軍을 충원할 길이 없고, 그 반면 수군을 보충키 위해서는 연대 책임을 실시하자니 백성들이 원망하게 될 것이므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 다만 높은 인격과 신망과 위엄과 지혜로서 水軍들을 이끌어 갔던 것이다.

<現代時事用語>

◎ 리스 산업(產業) (Lease Industry)

구미 각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우리 말로는 임대산업(賃貸產業)이라고 한다. 즉 일정한 자산(資產)을 구입, 일정기간 그 자산의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료를 받는 산업을 말한다.

초상화

— 올더스 헉슬리

<作者紹介>

올더스 헉슬리는 1894년 영국 남부 「사리」주의 명문에서 출생하였다. 유명한 진화론자 「토마스 헉슬리」의 손자로서, 어머니는 19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문학자의 한 사람인 <바티유 아놀드>의 조카다. 「헉슬리」는 현대의 지식계급의 회의적인 경향을 가장 잘 대변하는 박학총명한 작가였다.

작품은 상당히 많지만 그 중 주요한 것을 들어보면 장편소설로는 혼란하고 무질서한 현대 사회상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2대작 <크론웰로우(1921)>와 <익살꾼의 춤(1923)>이 있으며 관념소설로서 「헉슬리」문학의 하나의 집대성이며, 현대 영국소설의 최고수준을 보여 준 <대위법(1928)>과 실험소설가의 미래기(未來記)인 <굉장한 신세계(1923)>, 일기체의 야심작 <가자에서 맹인이 되어(1936)>, 그리고 신비적인 색채가 농후한 <천재와 여신(1955)> 등이 있다.

한편 단편집으로는 1922년에 출간한 <인간의 고난> 외에 수권이 있다. 시집에는 1918년에 쓴 <청춘의 패배>와 1920년에 쓴 <레다> 등이 있으며, 또 「헉슬리」는 평론에도 손을 대 1927년에 <인간론>, 1931년에 <밤의 음악>, 1945년에 <영원의 철학>, 1947년에 <과학·자유·평화> 등을 내었다.

「그림을 사시렵니까? 그림을 몇 장 사시렵니까? 지금 저의 화랑에는 각종 현대작품이 아주 흥미있게 섞여서 진시되어 있지요. 프랑스 것도 있고, 영국 것도 있습니다.」라고 비겨씨는 말했다.

손님은 손을 저들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내겐 현대 그림은 별로 필

요가 없습니다. 나는 진짜 옛날 그림을 구한답니다. 렘브란트라든가, 조슈아 레이놀드 경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것 말입니다.」

그는 유창한 북부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문예부흥기의 대가들 말씀이군요. 아, 물론 우리는 옛 것이나 현대 것이나 다

취급합니다。」라고 비거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인 즉」
하고 손님은 말을 꺼내어,

「내가 좀 금직한 집 하나를 샀어요.
장원(莊園) 저택을 말입니다.」

강조하는 어조로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비거씨는 빙긋이 웃었다. 이 단순하게 생긴 친구에게 매우 재미있는 순간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사나이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장원 저택을>하고 강조한 그의 말투에는 정말 마음이 끌리는 점이 있었다. 이 친구야말로 농노(農奴)의 신분으로부터 영주의 신분으로, 다시 말해서 봉건사회라는 피라밋의 넓은 밑바닥으로부터 좁은 정점으로 입신출세한 사나이가겠지. 그 자신의 역사와 계급이 <장원>이라고 우쭐대며 강조하는 그 말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었다. 손님이 말을 계속하는 바람에 비거씨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의 집에는, 그리고 나 같은 지위를 유지하자면, 그림 몇 폭은 있어야 하나지요. 옛 대가들의 것 말입니다. 렘브란트라든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런 등속의 그림 말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예, 물론이지요. 옛 대가의 작품은 하나의 사회적 우위성을 나타내는 것이

니까요.」

라고 비거씨는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려고 하는 바로 그말을 했습니다. 그려.」

손님은 반면에 회색을 더면서 이렇게 말했다. 비거씨는 터리를 낄실거리며 빙긋이 웃었다. 남이 비꼬아 하는 말을 정색으로 곧이듣는 사람을 대해 보니 재미있었다.

「물론 우리집 같은 데엔, 특히 아래층 응접실엔 옛날 대가들의 그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침실에까지 그린 것을 걸어두기란 너무 사치스럽겠지요.」

「물론 너무 사치스런 일이지요.」

비거씨는 맛장구를 쳤다.

이 영주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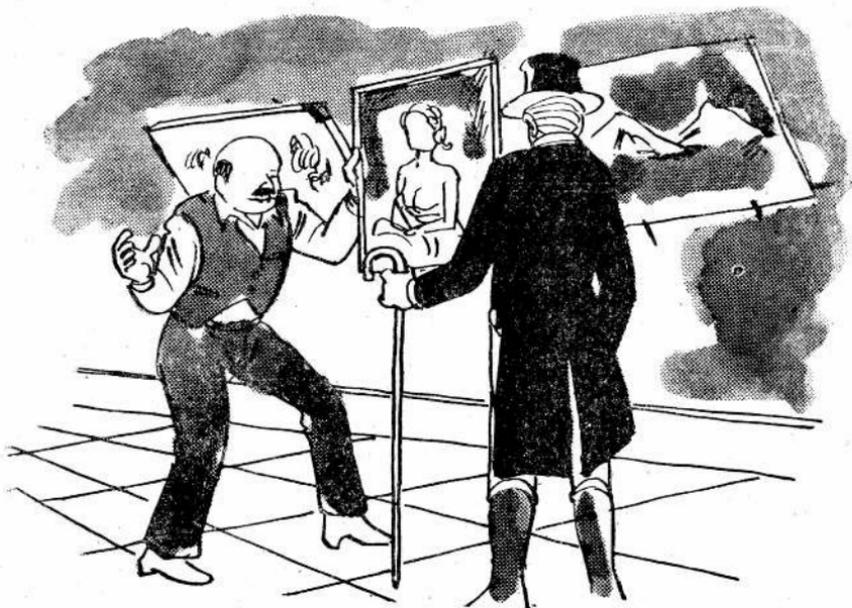
「사실인즉, 내 딸애가— 그 애가 스케치를 좀 한답니다. 그게 제법 잘 그려요. 그 애가 그린 것을 몇 가지 액자에 넣어서 침실에 걸어놓을 생각이지요. 집안에 화가가 있다는 것은 그림을 사지 않아도 되니까 큰 도움이 되지요. 그렇지만 물론 아래층에는 옛날 것을 걸어놓아야 해요.」

「바로 손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의 집에 있을 것 같군요.」

하고는 비거씨는 일어나서 벨을 눌렀다.

「내 딸애가 스케치를 좀 한답니다.」

—이 말을 생각했을 때, 비거씨는 피부가 희고 혈색이 좋은 술집 여급같은 안물 하나를 그렸다. 나이는 서른 하나에



아직 미혼이어서 다소 시기가 지나 시들어 가는 듯한 여자 하나를 머리에 떠올려 보았다. 이 때 그의 여점원이 문간에 나타났다.

「그 베니스의 초상화 좀 가져와요. 미스 프래트. 뒷방에 있는 것 말이요. 알겠지? 내가 말하는 것을.」

「가게가 꽤 아담하군요. 사업이 잘 되시나요?」라고 영주는 물었다.

비거씨는 한숨을 쉬며,

「불경기예요. 우리 화상(畫商)들은 누구라도 더 불경기를 잘 탄답니다.」

라고 말하였다.

「아, 불경기.」

하고 영주는 킬킬거리며,

「나는 항시 그것을 미리 내다 보았지

요. 어떤 사람들은 호경기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 바보들이지! 나는 경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물건을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살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말했다.

비거씨도 웃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손님으로서 안성마춤이었다.

「나도 호경기 때 팔아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운.」

영주는 눈물이 두 뺨에 흘러내릴 때까지 웃었다.

미스 프래트가 방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 하나를 마치 방패 처들듯이 두 손으로 쳐 들고 가져왔다.

「그것을 화가(畫架)에 올려놓아요, 미스 프래트.」

하고 비거씨가 말했다.

「자아, 이게 어떻습니까?」하고 그는 영주에게 몸을 돌렸다.

화가에 놓인 그림은 반신 초상화였다. 통통한 얼굴에 흰 살결, 깊게 판 부채꼴 모양을 한 푸른 비단옷 앞섶에 불룩 솟은 젖가슴 등, 그림의 인물은 18세기 중엽의 전형적인 이탈리아 귀부인으로 보였다.

약간 만족스런 웃음이 뾰족한 입술에 어리고, 한손엔 하투의 카아니발을 마치고 막 벗어든 듯한 까만 가면을 들고 있다.

「참 좋군요.」

하고 영주는 말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듯이 이렇게 덧붙였다. — 「이건 렘브란트의 작품과 꼭 같지는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너무 선명하고 밝군요. 대체로 문예부흥기의 대가들의 그림은 전연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둡고 킴킴하여.」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들 모두가 다 렘브란트 같지는 않지요.」라고 비거씨는 말했다.

「그렇지야 않겠지만.」

영주는 좀체로 납득이 안 가는 기색이었다.

「이것은 18세기 베니스의 것입니다. 그들의 색깔은 언제나 선명하지요. 화가

는 지양골러니입니다. 그는 요절했지요. 그의 작품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 여섯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그 중의 하나지요.」

영주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는 진품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다.

「누구든지 한 번 쳐 보면 뭉기의 영향을 알아볼 수 있지요. 그리고 얼굴의 화법에서는 로잘바의 세련미 같은 것이 흐르고 있구요.」

라고 비거씨는 가볍게 말을 계속했다.

영주는 불안스럽게 그림을 보다가 비거씨를 보고 또 그림을 보다가 비거씨를 보곤 했다.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말을 듣는 것같이 어색한 것은 없다. 비거씨는 자기의 우세한 점을 과시했다.

「이상한 일이지요.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티에폴로의 수법을 조금도 보지 못하니 말입니다. 손님은 그렇게 안 생각하시나요?」라고 비거씨는 계속했다.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얼굴에는 우울한 표정이 떠돌고 있었다. 어린애같이 입의 양 가장자리가 축 처지고 당장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과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과 얘기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지요. 알아보는 사람이란 몇 안 되니까요.」라고 드디어 비거씨는 불쌍한 생각을 느끼며 말했다.

「글쎄요, 나도 그 점에 대해 그다지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요.」

영주는 겸손하게 말하곤 이어서 또 말했다.

「그러나 물건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알아요.」

영주의 얼굴에는 다시 화색이 들었다. 자신의 입장이 한 층 뚜렷해진 것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천부적인 재능이지요. 그것은 아주 귀중한 소질이랍니다. 얼굴을 비었을 때 그것을 첫 눈에 느낄 수 있었답니다.」

영주는 기뻐했다.

「정말!」

이렇게 그는 말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더욱 커지고 더욱 훌륭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그렇지.」

그는 무엇을 다시 생각해 보는 듯이 머리를 갸우뚱했다. 다시 계속해서

「역시 그렇습니다. 저것이 대단히 좋은 그림인 것을 알겠군요. 참 훌륭하외다. 한테, 사실은 좀 더 역사적인 작품이 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한 층 우리의 조상다운 것들 말예요. 어떤 배후의 얘기가 있는 사람의 초상화말입니다.…… 말하자면, 앤 불린이라든가 벨 킨이라든가, 웰링턴 공작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라고 말했다.

「예, 선생님 제가 막 말씀드리려고 하던 참입니다. 이 그림에도 배후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주 굉장한 이야기가

이 초상화의 주인공과 관련이 되어 있을지요.」

비거씨는 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영주의 부름을 탁 했다. 그의 두 눈은 탐스러운 눈썹 아래에서 동정심을 보이면서도 재미있어 하는 빛으로 번쩍이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친절의 빛이 있었다.

「과연 그런가요?」라고 말하고는 영주는 눈썹을 치켜올렸다.

비거씨는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히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귀부인으로 말하면」

하고 손을 들어 그 초상화를 가리켰다.

「제4대 허트모아 백작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지금 대가 끊어졌을지나만, 제9대 백작은 바로 작년에 죽었지요. 그런 오랜 전통을 가진 집안이 몰락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요.」

비거씨는 한숨을 내쉬었으며 영주는 교회에 앉아 있거나 한 듯이 엄숙한 모습으로 하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계속되었다. 비거씨는 어조를 바꾸어 말을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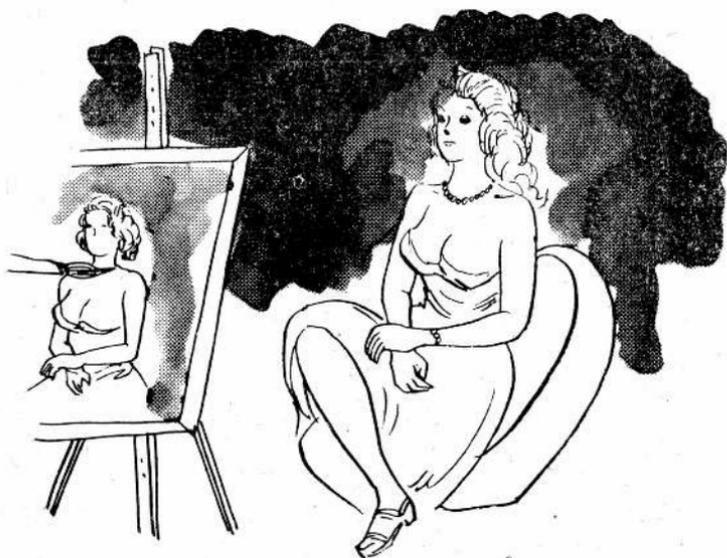
「제가 보았을지라도, 그분의 초상화로 보아서는 제4대 백작은 길다란 얼굴에 우울하고 늙게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젊었을 때의 그 분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분은 언제나 50대로 보이는 그런 분이지요. 그 분의 중요한 취

미는 음악과 로마시대의 유물수집이었지요. 그분의 어린 초상화를 보면 한 손에 상아 피리를 들고, 다른 손은 로마시대의 조각품을 위에 얹은 모습이더군요. 그분은 적어도 반평생을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유물을 찾고, 음악을 듣고 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55세쯤 되었을 때 갑자기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때 그 분이 찍힌 부인이었습니다.]

비거씨는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서 다시,

「돈과 작위로 그분의 여러가지 결점이 보완된 것이 틀림없지요. 외모로 봐서야 그 누가 허트모아 경 부인이 로마의 유물에 큰 흥미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

겠습니까? 저도 저 부인이 과학이나 음악사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는 믿지 않는답니다. 저 부인은 의상에 신경을 썼고, 사교를 즐겼고, 도박을 좋아했고, 사랑의 유희를 좋아했고, 향락적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갓 결혼한 이 부부는 별로 사이가 좋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노골적인 알력은 피했습니다. 결혼 1년 후에 허트모아 경은 또다시 이탈리아를 방문하기로 결심하여 늦은 가을에 베니스에 도착하였지요. 허트모아 경에게 베니스는 끝없는 음악과 다름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곳은 미세리콜디아의 고아원에서 열리는 가루피의 음악회로 생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타마리아 교회에서 연주되는 푸치니의 오페라나



모이체 교회에서의 신작 오페라로 생각이 될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 곳은 수백 교회에서 울려나오는 상쾌한 성가로 생각되었지요. 또한 그 곳은 많은 음악 애호가들의 개인 음악회로 생각이 되었으며, 플로라와 같은 작곡가나 유럽 제1급 성악가들로 또는 탈리니 같은 바이올리스트나 기타 최고 바이올리니스트들로 생각이 되었지요. 그러나 허트모아 공작 부인에게는 베니스가 좀 다르게 생각되었지요. 리도토 도박장에서의 도박으로 생각되었고, 가면무도회, 화려한 만찬회 등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도시의 온갖 즐거움으로 생각되었지요. 서로 각각 다른 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은 모두 이곳 베니스에서 거의 무한정으로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날 허트모아 경은 자기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야겠다는, 불행의 씨가 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젊은 지앙골리니가 유망하고 잠재성있는 화가로서 공작에게 추천이 되었읍니다. 허트모아 경 부인은 포우즈를 취하기 시작했지요. 지앙골리니는 미남이고 정열적이었으며 또한 젊었습니다. 그는 연애의 기술이 그림 그리는 기술 못지 않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만일 허트모아 경 부인이 그를 물리칠 수만 있었다면 그 부인은 인간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인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지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

소?」

영주는 손가락으로 비거씨의 옆구리를 꼭 찌르며 웃어댔다.

비거씨도 접잡게 따라 웃었다. 웃음판이 가라앉자 그는 말을 계속했다.

「결국 그들은 국경을 넘어 도망치기로 결정했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비엔나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허트모아 집안의 보석을 밀천으로 해서 말입니다. 부인이 그 보석들을 가방 속에 조심껏 싸가지고 갈 판이었지요. 그 보석들은 2만 파운드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허트모아 집안의 보석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엔나에서 마리아 테레사 황제의 통치하에 2만파운드의 이자를 가지고 멋지게 살 수 있으니까요.

준비는 쉽사리 갖추어졌습니다. 지앙골리니의 친구 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을 위하여 제반 일을 보아주었지만…… 그가 그들에게 가명으로 여권을 만들어 주고 마차를 세내어 본토에 대키시키고, 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곤돌라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부인이 마지막으로 포우즈를 취하는 날 도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지요. 허트모아 경은 보통 때의 습관대로 아내를 곤돌라에 태워 지앙골리니의 화실로 베리고 가서 뒤가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아내를 거기에 두고서 미셀리코디아 교회에서의 가루피의 음악회에 갔던 것입니다. 때는 마침 카야니발이 한창인 때

였으니까요. 대낮에도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돌아다녔지요. 허트모아 경 부인은 검은 비단의 가면을 썼습니다. 저기 저 그림에서 그것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의 부군계신 도락가가 아니어서 카아니발 놀이를 못마땅하게 생각은 했지만, 유별나게 곱아서 남들의 이목을 끄는 이 보다 이웃 사람들이 입는 그 괴상한 차림에 쫓고자 했지요.」

긴 검정 당토에 커다란 세모난 모자, 흰 종이로 만든 코가 긴 가면이 이 카아니발 기간에 베니스의 신사를 누구나가 입는 보통의 복장이었습니다. 허트모아 경은 특이한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입었습니다. 베니스의 유패한 가면극 배우가 입는 어릿광대의 복장을 차림은 이 정중하고 엄숙한 표정의 귀족의 모습에는 매우 우습꽁스럽고 조화되지 않는 점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풀시벨라의 복장을 입은 판타론>이란 말이 그 공작부인과 그 애인이 그를 놓고 서로 표현한 말이었지요. 말하자면 그는 어릿광대의 복장을 한 영원한 피극적인 영감이었습니다.

하여간에 이날 아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트모아 경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곤돌라를 빌어 타고 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편 그녀는 큼직한 망토자락 안에 허트모아 집안의 보석이 들은 비단 바닥 위에 아늑히 놓여진 한 작은 가죽상자를 들고 왔어요. 곤돌라의 어둑한

작가 선실에 앉아서 그들은 옆으로 흘러 지나가는 교회들, 화려한 장식의 궁전 같은 집들, 높고 초라한 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치의 가면 밑에서 허트모아 경은 친신히 그리고 엄숙하고도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요.

<그 학문이 높으신 마티니 신부께서 영광스럽게도 오늘밤 우리와 만찬을 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보다 음악사 지식이 더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하는 바이요. 당신이 그분에게 특별한 면목을 세워드리도록 노력하기 바라요.>

<열려마십쇼. 그렇게 할 것이니, 나으리.>

그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저녁식사 때쯤이면 그녀는 멀리 떠나 있을 것이니까요. 고리지아 저편, 국경선을 넘어서 비엔나의 도로 위로 말을 달리고 있을 것이지요. 가엾은 판타론 영감! 그러나 그렇지 않았읍니다. 그녀는 조금도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도 그의 음악이 있고 깨어진 대리석 조각들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망토 자락 밑으로 그녀는 보석상자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그 얼마나 미칠듯이 재미있었습니까?」

비거씨는 두 손을 움켜쥐고 연극에서 하는 것처럼 가슴에 꼭 댔다. 그는 재미 있어 하면서 그 긴 여우코를 영주에게

향하여 그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한편 영주는 정신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래서?」

하고 영주는 물었다.

비겨씨는 움켜쥐었던 두 손을 풀어 무릎 위에 내려 놓고서 말을 이었다.

「예, 곤돌라가 지앙글리니의 문턱에 닿자 허트모아 경은 부인을 부축해서 내리고는 이층에 있는 그 화가의 큰 화실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때의 그 점잖은 말로 부인을 그에게 맡기고서 미세쿨디아 교회에서 열리는 가무피의 아침 음악회에 가 버렸습니다. 이 애인들은 최종 준비를 하기에 두 시간은 충분히 걸렸지요.

판타론 영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자, 그 화가의 친구가 카니발이 벌어진 베니스의 거리나 운하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가면을 쓰고 망토를 입고서 홀연히 떠났지요. 곧 포옹과 악수와 웃음판이 벌어졌어요. 만사가 아주 척척 잘 되어 단 한 가지 의심받을 일도 일어나지 않았읍니다. 허트모아 경 부인의 망토 밑에서 보석상자가 나왔지요. 그녀가 그것을 열자 경이와 감탄의 드높은 이탈리아의 외침소리가 흘러 나왔어요.

브릴리언트형의 보석, 진주, 허트모아 공작의 큰 에머랄드, 루비 펜, 다이아몬드 귀걸이 등, 이러한 찬란하고 번쩍거리는 물건들을 소중하게 들여보고 신중

히 손꼽니다. 그 쓸모있는 친구의 평가에 의하면 적어도 5만 세키는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두 애인은 미칠듯이 포옹했어요.

그 쓸모있는 친구가 그들의 포옹을 잠깐 중단시켰지요. 아직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권을 내기 위하여 공안성에 가서 사인을 해야 합니다. 아, 그것은 단순한 형식이지만 그래도 해야 하니까요. 그 친구도 동시에 나가서 필요한 여행비용을 장만하기 위하여 부인의 다이아몬드 하나를 팔기도 했습니다.」

비겨씨는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말을 멈추었다. 그는 연기 한 모금 내뿜고 다시 계속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소매없는 망토를 입고서 집을 나섰지요. 그 쓸모있는 친구는 한 쪽으로 화가와 부인은 다른 쪽으로. 아, 베니스의 사랑.」

비겨씨는 황홀한 듯이 눈을 치켜 폈다. 그리고서,

「손님은 베니스에서 연애하신 일이 있으십니까?」하고 영주에게 물었다.

「천만예요. 티에프까지 밖에는 못 가 본 걸요.」

영주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그러시다면, 손님은 아깝게도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한 가지 못하셨군요. 그 작은 허트모아 경 부인과 화가가 눈구멍으로 서로 쳐다보며 긴 운하를 미끄러

내려갈 때, 그들의 심정이 어찌했으리라는 것을 손님은 결코 이해하실 수 없겠지요. 어쩌면 때로 그들은 키스를 했을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서는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작은 선실의 창문으로 그들의 가면 속의 얼굴을 알아볼지도 모르는 위험이 항상 따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못했을 것입니다. 대체로 키스는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비거씨는 깊이 생각하는 듯 결론을 내렸다.

「내 생각으로는 그들은 서로 쳐다보는 것 정도로 그쳤을 것 같군요. 그러나 베니스에서 운하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갈 때엔 누구나 바라보는 정도로, 다만 바라보기나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한 손으로 애무의 시봉을 하면서 음성을 낮추어 여기에서 말을 그쳤다. 그리고서 아무 말도 없이 담배를 두 세모금 빨았다. 다시 말을 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아주 조용하고 침착하였다.

「그들이 나간지 약 반 시간 쯤 지났을 때 곤돌라 한 척이 지앙폴리니의 문에 닿자 종이 가면을 쓰고, 검은 망토에 머리에 누구나 쓰는 세모난 모자를 한 사나이가 내려서 이중 화가의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초상화는 화실 안에서 다정하게 그러나 그 앞에 화가란 모델은 있지 않았고 의자도

비어 있었습니다. 코가 긴 가면은 표정 없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방안을 둘러 보았습니다. 방안을 헤매던 그 시선이 드디어 그 애인들이 무심코 테이블 위에 얼어붙은 채 두고 간 보석 상자에 닿았습니다. 쇠상한 가면 밑에 깊이 놓여 꺾꺾하게 그늘진 두 눈은 이 물건을 오랫동안 주시했습니다. 코가 긴 풀시넬라는 명상에 잠긴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층계 위로 두 사람이 웃으며 같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가면의 사나이는 창 밖을 내다보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문이 요란스럽게 열리더니 흥분과 유쾌하고 재미있는 무관심에 도취한 두 애인이 들어닥쳤습니다.

〈야, 여보게, 벌써 돌아왔군.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많이 받았나?〉

창문가에 서 있는 망토를 입은 사나이는 움직이지 않았읍니다. 지앙폴리니는 유쾌하게 지껄여댔지요.

〈여권에 사인하는 데에도 질문 하나 없이 무사통과였다네〉

주머니에는 여권이 들어 있는 판이니 그들은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터트모아 경 부인이 갑자기 참을 수 없도록 웃어댔읍니다. 웃음을 그치질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하고 지앙폴리니가 자기도 웃으면서 물었다.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웃음이 터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판타몬 영감이 미세리폴디아 교회에서 울뻐미처털 엄숙히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는 꼴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거의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울면서 말하는 듯이 말소리가 날카롭고 부자연했습니다.

〈그 늙은 가루피의 싫증나는 낡은 성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꼴이란……〉

창가에 있던 사나이는 몸을 돌렸습니다.

〈마담, 불행히도 그 고명하신 작곡가가루피 선생께서 오늘 아침 몸이 불편하셔서 음악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가면을 벗었지요.

〈그래서 나는 평상시보다 일찍 돌아올 수 있었던거요.〉

히트모아 경의 웃지도 않는 긴 흡수그레한 얼굴을 보고 놀라서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히트모아 경 부인은 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은 무섭게 뛰고 공포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없는 지암골리니는 그가 쓰고 있는 종이 가면만큼이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버렸지요. 공인된 남자 친구들끼리 남의 유부녀의 정부가 되던 시대에도 질투심에 불탄 난폭한 남편들이 살인을 자행했던 사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무기를 갖고 있

지 않았지만, 들여다 볼 수 없는 그 검은 망토밑에는 과연 어떤 무서운 도구가 감춰져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다른 일을 처리할 때처럼 존엄하고 침착하게 테이블로 걸어가서 보석상자를 집어들어 아주 조심껏 그것을 닫았습니다.

〈내것 같군.〉

이렇게 말하고서 주머니에 넣고 방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애인들은 의심스럽게 서로 쳐다보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그 후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고 영주가 물었다.

「호지부지 됐지요.」

비저씨는 고개를 슬프게 저으며 대답했다.

「지암골리니는 5만 세켄을 가지고 출행량치자고 했습시다만, 히트모아 부인은 깊이 생각한 나머지 별장에서의 연애 생활이 그다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지요. 여자가 있을 곳은 역시 집안의 보석이 있는 가정이라고 그녀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지요. 그러나 히트모아 경이 그 문제를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습시다. 무섭고 불안한 문제였겠지요.

그녀는 별 수 없이 자기가 가서 직접 만나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것이 마칠 저녁식사 때였습니다.

〈각하께서 지금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

시웁니다.>

하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앞에서 큰 문이 몇 개 활짝 열렸읍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턱을 높이 쳐들고 당당히 가볍게 들어갔지요. 남편은 벽난로가에 서 있다가 그녀를 맞이하러 걸어나왔읍니다.

「부인,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요.」

이렇게 말하고서 아내를 인도했읍니다. 그가 그 사건에 관하여 한 말로선 그것이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오후에 그는 하인을 보내어 화가의 화실에서 부인의 초상화를 가져오게 했지요. 한달 후에 그들이 영국으로 떠날 때, 초상화가 그들의 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이 초상화와 함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지요. 나는 작년에 이 초상화를 살 때 그 집안의 오래된 친구 한 사람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비저씨는 담배 풍초를 난로 속에 집어 던졌다. 그리고 그 에피소우드를 아주 잘 이야기했다고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주 재미있군요. 아주 역사적인데요. 그렇지요? 벨슨이나 앤 블린 이야기에 못지 않겠는베요. 안 그렇습니까?」

비저씨는 모호하고 냉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베니스를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 하숙집에 묵고 있던 러시아 백작부인, 칠실 밖 마당에 우거진 나무, 그 백

작부인이 쓰던 강한 자극적인—누구나 그것을 처음 말으면 숨이 막힐 정도의—향수, 그리고 리도 모래사장에 있던 수영장, 곤돌라, 그리고 가르더가 그랬을 때와 똑같이 보이는 몽롱한 하늘에 솟은 살루에 교회의 둥근 지붕 등, 참으로 이 모두가 지금은 아득한 옛날의 천리 밖의 일처럼 생각이 되었다. 그 때 그는 소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최초의 대모험이었다. 이러한 환상에서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영주가 말을 하고 있었다.

「자, 저 그림 얼마나 받으시겠소?」

라고 그는 물었다. 그의 말은 아무래도 좋다는 즉흥적인 어조였다.

*그점 그는 흥정하는 데 있어서 보기도 문 사람이었다.

「글쎄요.」

비저씨는 25년 전의 그 백작부인과 낙원의 베니스에 대한 생각을 마지못해 떨쳐버리면서 말했다.

「이만 못한 작품들도 천 파운드를 달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7백 50에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영주는 휴우하소서,

「7백 50이라고? 그건 너무한데.」

하며 되풀이했다.

「그러나 선생님, 이만한 크기와 이정도 좋은 물건으로 렘브란트의 작품이라면 얼마나 값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적어도 2천은 나갑시다. 7백 50은 조금

도 비싼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손님께서 사시려는 작품의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아주 쓴 것입니다. 손님께선 이것이 대단히 훌륭한 예술작품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충분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하고 장원의 영주는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것은 7백 50이 너무 거금이란 것 뿐입니다. 휴! 달애가 그림을 그리니 다행이군. 7백 50파운드나 되는 그림들로서 몇개의 칠실을 일시에 장식해야겠다고 내가 만일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는 웃었다.

비거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만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손님께선 좋은 투자를 하시는 것입니다. 후기 베니스의 작품은 지금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금의 여유만 있다면……」

하고 그는 말했다.

문이 열리고 미스 프래트가 곱슬곱슬한 금발의 머리를 쭉 내밀었다.

「크라울리씨께서 보셨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비거 선생님.」

「기다리라고 해.」
라고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그리고서 <흠>하고 기침을 하면서 영주에게로 돌아섰다.

「자금의 여유만 있다면, 나는 후기 베

니스 작품에다 모두 투자하겠어요. 한편만 남기고 모두.」

결국 영주는 주인에게 6백 80파운드의 수표를 끊었다.

「아까 얘기하신 얘기를 타이프로 쳐서 한 부 주실 수 있겠지요? 저녁식사 때에 손님들에게 들려주기에 좋은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지요? 자세한 얘기를 아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 물론이지요. 그 세세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랍니다.」

라고 비거씨는 말했다. 그는 그 키가 작고 뚱뚱한 친구를 문으로 안내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은 가버렸다.

키가 늘씬하고 창백한 얼굴에 구레나루가 난 젊은이가 문에 들어섰다. 그의 눈은 까맣고 침울했다. 그의 표정이나 전체적 모습이 로맨틱하면서 다소 가련해 보였다. 그것은 화가인 젊은 크라우리였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용무이시지요?」

라고 비거씨가 물었다.

「사실은 제가 몹시 돈이 궁해서요.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진날 제가 해드린 것의 값을 지불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이런 귀찮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크라우리씨는 드디어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비거씨는 이 자립할 줄 모르는 가엾

은 젊은 크라울리는 어린아이 처럼 무력했다.

「얼마 드리기로 했던가요?」

「20파운드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크라울리씨는 말했다.

비거씨는 지갑을 꺼내며,

「내가 그것을 25파운드로 해드리지요.」

라고 말했다.

「아니, 정말 그레도 괜찮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크라울리씨는 소년처럼 얼굴을 붉혔다.

「저의 종경화를 몇 장 전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비거씨의 인자스런 태도에 힘을 얻어 이렇게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당신 자신의 것은 안 합니다.」

비거씨는 매정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현대 것은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당신의 솜씨로 저런 옛 대가의 것을 표절한 것은 얼마든지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히트모아 경부인의 미끈하게 그려진 어깨를 톡톡쳤다.

「베니스 것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것은 대 성공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락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처 : 공군교제창
편집실 전화 : 829-3511, 5241
인쇄 : 1980년 7월 1일
발행 : 1980년 7월 5일

군 인 의 길

나는 영광스런 대한민국 군인이다.

하나 : 나의 길은 충성에 있다. 조국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 나의 길은 승리에 있다. 불굴의 투지와 전기를 닦는다.

하나 : 나의 길은 통일에 있다. 기필코 공산적을 쳐부순다.

하나 : 나의 길은 군율에 있다. 엄숙히 예절과 책임을 다한다.

하나 : 나의 길은 단결에 있다. 지휘관을 핵심으로 생사를 같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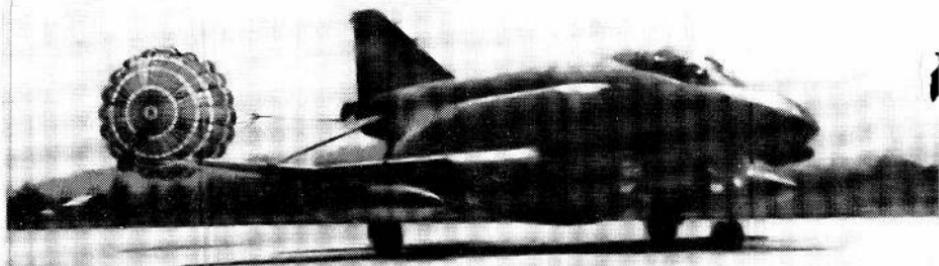
필승의 공군
지속정신 과감경계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필 승 의 공 군 되 자